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채 규 만 교수지도
박사학위 청구논문

부부갈등 경험과 이혼결정 과정에 관한 근거이론연구

- 법적 이혼절차 중에 있는 부부들을 대상으로 -

2018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심 리 학 과
김 민 녀

부부갈등 경험과 이혼결정 과정에 관한 근거이론연구

- 법적 이혼절차 중에 있는 부부들을 대상으로 -

채 규 만 교수 지도

이 논문을 박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8년 7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심 리 학 과
김 민 녀

인 준 서

김민녀의 박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18년 7월

심사위원 장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 문 개 요

본 연구는 법적인 이혼절차 중에 있는 부부들을 대상으로 부부갈등경험과 이혼결정과정을 실제적으로 탐색하고 결정적 이혼사유를 밝혀 부부교육 및 상담의 지침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결혼지속년수가 10년 이하이면서 30-40대인 미성년 자녀를 둔 10쌍의 부부를 대상으로 근거이론방법(Grounded Theory)을 적용하였다. 또한 심리도식질문지(YSQ)과 의사소통패턴 질문지(CPQ)를 활용하여 부부들의 심리도식과 의사소통패턴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이것이 부부의 상호작용 실제에 어떻게 나타나고, 부부관계 와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설문연구를 통합적으로 활용하였다.

연구를 위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혼을 실행하는 부부들의 주요 생활사건(자녀출생 전, 후)에 따른 갈등 경험 및 갈등해결과정과 방식은 어떠한가? 둘째, 남편과 아내의 이혼결정과정은 어떠하며 이혼 촉진요인과 심층적 이혼사유는 무엇인가?

본 연구 결과는 첫째, 개방코딩 절차를 통해 남편들의 경우 83개의 개념, 40개의 하위범주, 16개의 범주가 도출되었고, 아내들의 경우 93개의 개념, 42개의 하위범주, 18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둘째, 축 코딩 절차를 통해 범주들을 패러다임에 연관시킴으로써 범주들 간의 관계성을 확인한 결과, 남편들의 경우 중심현상은 '삶의 의미상실'로 나타났으며, 아내들의 경우 중심현상은 '혼자라는 생각/느낌(외로움)'으로 나타났다. 중심현상을 일으키는 인과적 조건은 '준비없는 결혼', '원가족 경험에 의한 개인요인', '경제적 문제'였으며, 중심현상에 대응하는 상황인 맥락적 조건은 '일-가정 다중역할갈등', '출산 후 상황에 의한 각방사용', '지속하는 부부문제', '함께하는 시간의 부재', '원가족 및 배우자 가족과의 문제'였고, 행위/상호작용 전략을 방해 혹은 촉진하는 중재적 조건은 '배우자 외 다른 관심에 몰입', '변화 불가능성 인지', '이혼 억제

요인의 약화', '새로운 삶에 대한 갈망', '마음이 떠남'이었으며, 중심현상에 대한 '행위/상호작용 전략'은 '부부성생활', '의사소통방식', '갈등해결방식'이었다. 셋째, 개방코딩과 축 코딩에 이어 선택코딩을 통해 도출된 남편들의 중심범주는 '무의미한 삶에서 벗어나 진정한 나를 찾기'였고, 아내들의 핵심범주는 '외로움의 터널에서 빠져나오기'였다. 과정분석을 통해 부부들의 갈등이 이혼실행으로 이어지는 과정은 갈등발생-상호작용 회피-친밀감 상실 및 성관계 회피-의도적 별침 및 별거-법적이혼실행의 5단계로 나타났다. 넷째, 본 연구에서 확인된 심층적 이혼사유는 남편들의 경우 '삶의 의미상실'이었고, 아내들의 경우 '혼자라는 생각/느낌(외로움)'인 것으로 나타나 부부갈등경험과 이혼결정과정에서의 남녀의 경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끝으로, 설문연구를 통해 평가된 부부들의 심리도식과 의사소통패턴이 실제 부부관계에서 재현되어 상호작용 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나 부부들은 이를 부정확하게 인지하거나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부부갈등경험과 이혼결정과정을 단계별로 제시하고, 기존의 부부의사소통에 기반을 둔 프로그램에 '삶의 의미 찾기'나 부부는 팀으로서의 '우리성 획득'이라는 성장적인 요소들을 중요하게 포함시킬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또한 남편들과 아내들에 따라 이혼에 이르게 되는 내적인 경험의 차이와 심층적 이혼사유를 실증적으로 확인하고, 임상실무에서 갈등의 단계에 따른 구체적인 개입 방향을 제안하였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1

2. 연구문제……12

II. 이론적 배경……13

1. 부부관계 영향 요인……13

1) 개인 내 요인으로서 심리도식……13

2) 대인 간 요인으로서 의사소통 패턴……17

2. 부부갈등……19

1) 부부갈등의 개념……19

2) 부부갈등 요인……20

3) 부부갈등 대처방법……22

4) 부부갈등 과정……24

3. 이혼……27

1) 우리나라의 이혼동향……27

2) 이혼의 원인……30

3) 이혼의 과정……34

III. 연구방법……39

1. Strauss와 Corbin(1988)의 근거이론방법……39

2. 연구 과정……43

3. 연구 참여자 선정……43

4. 자료 수집 방법……44
1) 면담방법……44
2) 분석자료……45
3) 측정도구……46
5. 자료 분석 방법……47
1) 개방 코딩……48
2) 축 코딩……48
3) 선택 코딩……50
6. 연구자의 준비……51
7. 연구의 신뢰성 및 타당성 확보……52
8. 연구 윤리 확보……53

Ⅳ. 연구결과……55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54
2. 질적연구 결과……57
2-1. 개방코딩에 의한 범주분석……57
2-2. 축 코딩에 의한 범주분석……118
1) 패러다임에 의한 범주분석……120
2) 부부갈등경험 및 이혼과정분석……133
2-3. 선택코딩……142
1) 핵심범주……142
2) 이야기 윤곽의 전개……145
3. 설문연구 결과……147
3-1. 부부들의 의사소통패턴……147
3-2. 부부들의 심리도식……149

Ⅴ. 논의·····155
1. 결론 및 논의·····155
2. 제한 및 제언·····168

참고문헌
ABSTRACT
부록 1. 주요면담질문지
부록 2. 인적사항질문지
부록 3. 심리도식 질문지
부록 4. 의사소통 패턴 질문지
부록 5. 연구 설명서 및 동의서

표목차

<표 1> 심리도식 하위요인……15
<표 2> 이혼율……27
<표 3> 미성년 자녀 유무별 이혼율……28
<표 4> 2016년 이혼사유 ……28
<표 5> 연구 대상자 일반적 특성……55
<표 6> 개념-하위범주-범주와의 관계(남편)……57
<표 7> 개념-하위범주-범주와의 관계(아내)……61
<표 8> 인과적 조건의 속성과 차원……122
<표 9> 맥락적 조건의 속성과 차원……125
<표 10> 중재적 조건의 속성과 차원……128
<표 11> 행위/상호작용 전략의 속성과 차원……130
<표 12> 중심현상의 속성과 차원……132
<표 13> 결과의 속성과 차원……133
<표 14> 부부들의 의사소통패턴(CPQ)……147
<표 15> 심리도식유형과 원가족 경험……150
<도표 1> 근거이론 연구 과정……43
<도표 2> 자료 분석 절차……48
<도표 3> 패러다임 모형(남편)……119
<도표 4> 패러다임 모형(아내)……120
<도표 5> 부부갈등경험 및 이혼실행과정(남편)……134
<도표 6> 부부갈등경험 및 이혼실행과정(아내)……135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결혼할 의지가 없음을 뜻하는 '비혼(非婚)'이라는 용어가 생겨나고 결혼을 능동적으로 포기하는 비혼주의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듯 지난 해 혼인은 28만 1600건으로 1970년 이래 최저에 달하고, 이혼율은 전년 대비 1.7%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OECD 국가 중 아시아 1위, 세계 3위로 여전히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통계청, 2017; 서울신문, 2017. 8. 7일자). 이혼율이 다소 감소한데에는 2007년부터 실시된 이혼숙려제도의 영향도 있겠지만, 요즘 유행하는 '결혼을 졸업한다'라는 뜻의 '졸혼(卒婚)'이라는 용어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법적인 혼인관계는 유지하지만 서로의 삶에 간섭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정서적 이혼이라는 새로운 선택을 하는 부부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도 한몫을 한 것으로 생각된다. 즉, 여전히 부부갈등은 해결되지 않은 채, 법적 이혼을 지연시킴으로써 이혼이 가져오는 책임과 부담을 덜고자 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

더불어 지난 해, 초혼의 이혼율은 인구 1천 명당 2.1건, 재혼의 이혼율은 인구 1천 명당 4.3건으로 초혼의 이혼율에 비해 재혼의 이혼율이 2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나(통계청, 2017), 전혼의 경험이 행복한 재혼생활을 보장해주지 못하고 부부의 갈등과 결혼생활의 실패는 악순환 되고 있음이 분명하다. 이처럼 '결혼은 하기도 힘들고 유지하기도 힘들다'는 부정적 견해가 확대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혼을 선택하고, 결혼생활을 통해 행복을 바라고 기대한다. 결혼이란 살아온 배경과 환경, 성격, 사고방식, 생활습관이 다른 두 남녀가 만나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갈등과

위기가 있기 마련이다. 이렇게 다른 두 사람이 결혼을 통해 이룬 새로운 가족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해결해야할 여러 과제와 이슈에 놓이게 된다(김민녀, 채규만, 2006). 이러한 과정 속에서 부부는 둘 만의 관계문제 뿐만 아니라 가사분담과 관련된 문제, 자녀의 양육과 교육 문제, 배우자 가족과의 관계 문제, 재정적인 문제 등 여러 영역에서 다툼이 될 수 있는 요소들에 직면하면서 갈등하게 되고 서로가 달라도 너무 다름을 뼈저리게 경험하게 된다. 결혼은 남녀가 만나 함께 살면서 변하고 성숙해가는 적응의 과정이 필연적이다. 따라서 부부는 결혼생활 중의 갈등을 조율하고 해결하면서 만족스러운 결혼 생활을 하고 성숙해 갈 수 있다. 그러나 갈등해결에 실패한 부부들은 예상하지 못한 결혼생활의 고비를 겪게 되고, 누군가는 자신의 삶의 행복을 찾아서, 또 다른 누군가는 결혼생활의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 결국 이혼을 선택하게 된다. 그러나 그렇게 선택한 이혼은 한국에서는 자식의 죽음 다음으로 힘든 생활사건으로 평가되고(홍강의, 정도언, 1982), 미국에서는 배우자의 사망 다음으로 힘든 생활사건으로 평가될 정도의 위기사건으로(Holmes & Rahe, 1967, Weizman, 1987; Kitson, 1992; Hope, Rodgers, & Power, 1999), 이혼 당사자 뿐만 아니라 자녀 및 가족에게 상당한 심리/사회적 스트레스를 가져온다.

부부의 이혼은 가족해체를 비롯하여 자녀의 비행문제, 법적문제, 경제적 문제, 이혼 후 분노와 후회, 죄책감, 낮은 자존감, 외로움, 우울, 그리고 실패감 등의 심리적 문제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친구를 비롯한 사회적 관계들과의 단절이나 비지지적 관계로의 변화 등에서 오는 어려움과 재혼 후의 적응문제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Amato, 1993; Emery, 1982; Wolchik, Wilcox, Tein, & Sandler; 이종한, 2004). 이 뿐만 아니라 많은 연구들은 부부의 결혼생활이 자녀들의 결혼생활에 모델이 되며, 행복한 결혼생활의 지표이자 결혼생활의 만족과 적응, 갈등 등 결혼생활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김경자, 2003; 전영주, 이성희, 2006, Fine & Hovestad, 1984;

김순기, 2001; Amato & Booth, 2001; Sabatelli & Bartle-Haring, 2003; 하상희, 2008). 더불어 자녀들의 결혼에 대한 개념은 원가족에서 학습되는데(Rovers, 2004; Tallman, Rotolo & Gray, 2001), 부모의 부부관계가 원만하다고 인지하는 경우의 자녀는 결혼에 대해서 보다 수용적이고 이혼에 대해서는 덜 허용적인 전통적 가치관을 갖게 되며(서정숙, 2010; 정윤경, 최지현, 2010) 이혼에 대해 보다 허용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부부관계의 질이 감소하고 이혼할 가능성이 증가한다고 하였고(Amato, 1996; Amato & Rogers, 1999), 부모의 부부갈등을 높게 지각할수록 자녀는 자신의 부부관계에서 친밀감을 형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다(이영희, 2011). 이처럼 부부갈등과 이혼은 당사자들과 자녀들의 심리, 정서적 문제를 넘어 자녀들의 결혼생활과 부부관계에도 세대전이 되는 등 그 영향력이 상당히 방대하다고 볼 수 있겠다.

이러한 문제인식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경솔한 이혼을 예방하고 건강한 이혼을 준비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2008년부터 이혼숙려제도를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혼숙려제도는 협의이혼을 신청한 부부를 대상으로 양육하여야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양육하여야할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1개월의 기간이 경과한 후 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를 확인받아 이혼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또한, 재판 상 이혼을 할 경우에도 당사자에게 상담을 권하는 상담권고제도가 도입되어 전국 법원으로 확대 실시되고 있는데, 이러한 움직임은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이혼이 가져오는 여러 사회적 문제에 대한 인식, 특히 건강한 이혼의 중요성과 미성년 자녀의 복리 등 가족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시도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는 이혼의사를 철회하고 관계회복을 시도하기 불가능한 법적 이혼 절차 중에 있는 당사자들에게 적용하여 건강한 이혼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혼을 결심하기 전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어 온 부부갈등을 해결하고 이혼을 예방하는 데 실제적인 도움을 제공해 주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결혼과 이혼에 관한 연구 동향들을 정리해 보면, 결혼과 관련된 연구로는 결혼만족과 부부친밀감, 부부응집성 그리고 부부갈등에 관한 연구들로 분류해볼 수 있으며, 이혼과 관련된 연구로는 이혼 사유 및 소재에 관한 연구들과 일부 여성을 중심으로 한 이혼 과정에 관한 질적 연구들로 분류해볼 수 있다.

우선, 결혼만족과 관련된 요인으로는 부부가 겪는 부정적 생활사건 스트레스와 심리사회적 요인들(장춘미, 2009; 김미정, 2001), 부부 간의 의사소통(이정은, 이영호; 2000, 엄정희, 2009), 배우자에 대한 정서적 신뢰(박창희, 유금란; 2013), 개인의 자기분화 및 자아존중감 정도(이종원, 2002; 김순숙, 2012; 박민지 2005; 권정란, 이인순, 2006; 임은혜, 2008; 이소미, 고영건, 2009; 김정숙, 2009; 박봉순, 김영희, 2010; 엄정희, 2009), 갈등해결전략(이소미, 고영건, 2009) 등으로, 주로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부부들을 대상으로 일반적인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요인이나 부부갈등의 요인, 그리고 부부의 갈등을 줄이고 결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들에 관해 연구하는데 집중되어 있다.

부부친밀감 및 부부응집성과 관련된 요인으로는 주로 원가족과의 분화수준, 가족규칙, 부부의사소통, 갈등대처행동, 부부의 자아정체감 및 자아개념(박민지, 2005; 임은혜, 2008; 이소미, 고영건, 2009; 김정숙, 2009; 장현숙, 2009; 엄정희, 2009; 박봉순, 김영희, 2010)을 위주로 연구되었다. 특히 부부의사소통과 갈등대처행동은 부부친밀감에 간접적 혹은 매개 역할을 하는데 반해 원가족 분화 수준은 부부의 친밀감에 직접적 영향을 준다는 연구가 주를 이룬다.

부부갈등과 관련된 요인으로는 역기능적 의사소통(박민지, 2005; 박영화, 고재홍, 2005; 장문선, 김영환, 2003), 성생활 불만족, 생활양식 차이, 성격차이, 외도, 재정 문제(이경희, 1998; 이선미, 전귀연, 2001), 원가족 부모와의 정서적 미분화 및 원가족 문화 및 생활 경험의 차이(이종원, 2002; 남순현, 전영주, 황영훈, 2005; 권정란, 이인순, 2006; 김정옥, 2011), 갈등대처행동(박영화, 고재홍,

2005; 김경신, 조유리 2000) 등 매우 다양하게 연구되었다. 이들 연구들은 대체로 주로 부부갈등의 원인을 밝히는데 집중되어 있거나 갈등대처방식에 따라 결혼만족과 결혼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양적 연구로 결혼을 유지하고 있는 부부들의 갈등대처방식의 양상과 이혼하는 부부들의 갈등대처방식의 차이를 밝히고 있으나 이혼을 실행하는 부부들의 갈등대처방식을 다각적이고 깊이 있게 밝히는 연구는 부족하다.

보다 최근의 연구들은 앞서 언급했던 특정 요인들보다는 부부의 인지적인 요인이 결혼만족 및 이혼의도와 더 관련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Funder(2001)는 배우자의 성격특성이나 행동에 대한 지각 및 생각이 성격차이 자체 보다 이혼을 더 잘 설명해 준다고 하였고, 이숙희와 고재홍(2012)은 부부들의 긍정적 착각과 결혼만족과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 긍정적 착각 중 남편의 통제착각과 아내의 자기고양편향이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고 밝혔다. 또한 강유진(2005)과 연규진(2006)은 부부관계에 대한 기대와 신념이 부부관계의 질에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하였으며, 이경성과 한덕웅(2001)은 배우자 행동에 대한 귀인이 결혼만족과 배우자의 행동 및 배우자의 행동에 대한 기대에 영향을 주어 궁극적으로 이혼의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힌바 있다. 김진숙(2010)은 부부관계에 대한 지각 및 사고가 부부 불만족에 영향을 미친다하였으며, Baucom과 Epstein(1990)도 부부들이 겪는 생활 사건은 부부신념과 상호작용하여 부부의 불만족도에 영향을 주고 부부의 지각은 이 과정을 매개한다고 밝혀 부부 갈등과 이혼의 문제를 표면적인 사건중심의 이해보다 개인 내적이고 심층적인 문제로 이해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더 나아가 부부와 같이 쌍을 이루고 있는 대상의 경우에는 쌍방 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호의존적 자료이기 때문에 결혼에 관한 연구들은 개인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부부를 쌍으로 연구하여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APIM(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을 사용한 연구들도 이루어졌다.

이들 연구들은 주로 결혼만족도를 종속변인으로 하고, 자기분화, 원가족 분위기, 원가족 건강성, 부모의 수용 등 원가족과 관련된 요인(오현주, 최승미, 조현, 권정혜, 2013; 이봉은, 김세경, 천성문, 2017), 성인애착(박수진, 이인숙, 2015; 서미아, 2017), 긍정적 착각, 비합리적 신념, 핵심적 자기평가 등의 인지적 요인들(이숙희, 고재홍, 2012; 연규진, 연문희, 양지웅, 2013), 부부의 성격(장지영, 황순택, 2012), 자존감(박영화, 고재홍, 2005)과 결혼만족도와의 관계에서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를 연구하였다.

원가족 관련 변인과 결혼만족도와의 관계에 관한 APIM 연구를 살펴보면, 오현주 등(2013)은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가부장적 분위기의 원가족 경험과 결혼만족도와의 관계를 살펴본 바, 남편과 아내 모두 원가족의 가부장적 분위기가 자신의 결혼 불만족을 예측하는 요인으로 밝혀졌고, 특히 남편의 원가족 분위기는 아내의 원가족 배경보다 부부 관계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과정을 의사소통이 매개한다고 하였다. 박수진과 이인수(2015)는 가족 간의 협력, 신뢰와 유대, 친밀감 등의 원가족의 건강성이 부부의 친밀감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결과, 남편과 부인 모두가 지각하는 원가족의 건강성은 자신의 부부친밀감에는 영향을 미치는 반면 상대방의 부부친밀감에는 유의미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봉은 등(2017)은 부부의 자기분화와 부정적 상호작용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를 연구한 결과, 남편의 자기분화가 남편 자신의 결혼만족도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것에 더하여 부부만족에 있어 아내보다는 남편의 자기분화 및 상호작용 특징이 더 많은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밝혀, 결혼관계의 변화 및 결혼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상대방 보다는 자신의 특성과 노력이 중요하며, 특히 아내보다는 남편의 원가족 분위기와 자기분화가 중요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인지관련 요인과 결혼만족도와의 관계에 관한 APIM 연구에서 이숙희와 고재홍(2012)은 부부의 긍정적 착각이 결혼만족도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가정하고 부부의 긍정적 착

각과 결혼만족도 간의 자기효과와 배우자효과를 연구한 결과, 남편의 긍정적 착각은 아내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주지만 아내의 긍정적 착각은 남편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여전히 남성중심의 부부관계가 특징인 우리나라에서 남편에 대한 부인의 의존정도가 더 큰 결과임을 제안하였다. 연규진 등(2013)은 의견불일치, 마음 알아주기, 배우자의 변화가능성, 성적 완벽주의, 성 고정관념의 다섯 가지 부부관계에 대한 비합리적 신념과 결혼만족도와의 관계에 있어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를 분석한 결과, 성적 완벽주의를 제외한 네 가지 비합리적 신념에서 아내가 더 높은 비합리적 신념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같은 결과는 한국 여성의 관계몰입 경향성이 결혼생활 및 부부관계에 대해 이상화하고 비현실적 기대를 갖게 되면서 나타난 결과인 것으로 보았다. 이들 연구결과는 우리나라의 결혼과 부부관계에 여전히 남성 중심의 문화가 존재하고 있고, 결혼생활에서 겪는 생활사건이나 객관적 사실보다는 이러한 문화 속에서 부부들이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부부관계와 결혼에 대한 이해와 해석이 결혼만족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므로 여러 APIM 연구들에서 제안하고 있는 것과 같이 결혼기간 동안 여러 생활사건과 갈등을 겪으면서 부부관계 및 결혼에 대한 부부들의 주관적 지각과 해석의 변화를 살펴보고 이것이 부부관계의 와해 및 이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질적연구는 의미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끝으로, 자존감, 의사소통 방식, 갈등대처행동과 결혼만족도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에서 박영화와 고재홍(2005)은 부부의 자존감이 자기 및 배우자 모두의 결혼만족에 영향을 주지만 자기에 대한 영향력이 더욱 크고, 자신이 사용하는 의사소통 방식과 갈등대처행동이 부부 각자의 결혼만족도에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부부의 결혼만족도는 상대방의 특징이나 행동보다는 자신의 특징이나 행동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이들 APIM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결혼만족도를 종속변인으로 하고 원가족

으로부터의 자기분화 및 인지, 행동적 요인과 같은 심리 내적 요인들을 연구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들 요인들이 상대방 효과보다는 자기효과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양적 연구를 통해 밝혀진 결과들이 실제 부부관계 상호작용 시 어떤 작용을 통해서 어떻게 드러나고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와 같은 세부적 자료들을 제공해주지는 못한다는 아쉬움이 있다. 즉, 부부의 역동성을 고려한 APIM 연구에서도 부부관계의 변화과정과 그에 따른 결혼만족도의 변화 등 과정을 탐색할 수 없으며(서미아, 2017), 결혼만족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로 언급되고 있는 의사소통 방식에 있어서도 어떤 양상이 부부 상호작용과 갈등 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현상을 분석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으므로(오현주, 최승미, 조현, 권정혜, 2013), 실제 부부의 상호작용을 관찰한 결과와 질적 연구 등의 다양한 방법을 병행할 필요성을 제안하고 있다. 이처럼 양적 연구방법을 통해 얻어진 결과들을 질적인 연구방법으로 확장하여 세부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혼합적 연구방법이 연구문제들을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이유로 혼합적 방법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있어 왔다(Reichardt & Cook, 1979; Mertens, 2003; Punch, 1998).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부부문제에 관한 양적인 연구들에서 얻어진 결과들을 질적인 자료에서 실제 부부들의 언어적 진술을 통해 세부적으로 확인함과 동시에 기존의 양적 자료에서 얻을 수 없었던 부부 갈등의 변화 과정에 따라 실제적 상호작용을 관찰하고 이혼을 실행하게 되는 결정적인 심리 내적 요인을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해 부부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심리내적 요인으로서는 가장 중요하게 인식되어 빈번하게 연구되어 온 인지적 요인을 살펴보고자 하며 인지적 요인 가운데 어린 시절 원가족 경험의 영향이 큰 것으로 알려진 심리도식을 Young의 도식 질문지(YSQ-S; Young Schema Questionnaire Short form)를 통해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갈등 발생 시 도식의 유형이 부부들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관계 와해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또한 부부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대인 간 요인으로서 부부 쌍의 의사소통 패턴을 Christensen과 Sullaway(1984)가 개발하고 임승락(1998)이 번안한 의사소통 패턴 질문지(Communication Pattern Questionnaire: CPQ)를 사용하여 평가하고, 갈등이 반복되면서 부부의 의사소통 패턴과 갈등해결 양상이 어떻게 변화하고 견고화되는 지 질적 연구를 통해 밝히고자 한다. 즉 결혼생활 중 여러 생활사건을 겪으면서 부부관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 과정에서의 의사소통 패턴을 비롯한 부부 상호작용의 실제를 이혼을 실행하는 부부들의 언어적 진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면 부부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가능하며 부부갈등을 해결하고 이혼을 예방하려는 목적의 실제 부부치료 현장에서 구체적 활용의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혼에 관련된 연구는 주제가 가지는 민감성 때문에 대상자 선정에 어려움이 매우 크다. 따라서 결혼만족과 부부갈등에 관한 연구보다 상당히 빈약한 실정이다. 현재까지 이혼에 관한 연구 동향은 이혼을 결심한 기혼자들을 대상으로 한 이혼사유별 이혼의향에 관한 연구(이명신, 김유순, 2005; 한경혜, 김주현, 강혜원, 2004), 기혼자들의 이혼 의도나 시도 및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이혼을 주저하게 만드는 이혼 장애 요인에 관한 연구(구혜경, 유영달 2008; 이경성, 2001), 이혼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이무영, 2003) 등 양적연구들이 대부분이며, 부부갈등 및 이혼위기 부부를 대상으로 한 치료 사례연구(박태영, 문정화, 2013), 이혼위기 부부들을 대상으로 한 부부갈등 과정에 관한 질적 연구(강희숙, 양정옥, 2012), 이혼을 경험한 기혼자들을 대상으로 한 이혼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유정이, 김명자, 이지은, 이호준, 김수리, 2006) 등 소수의 질적 연구들이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들은 다음과 같은 한계점으로 후속 연구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첫째, 사전에 제작된 질문지를 사용하여 이혼 사유를 탐색하는 것과 같

은 이혼의 표면적 이유와 사건 중심의 연구를 실시하여 그 내용이 풍부하지 않다. 둘째, 대상자 선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이혼을 실행한 부부들을 대상으로 하기보다 이혼에 대한 의사가 있거나 이혼을 고려할 정도의 높은 갈등이 있기는 하지만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의 부부들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셋째, 이혼한 경험이 있는 대상을 연구한 경우에는 부부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을 대상으로 하여 부부 양측의 경험을 통해 부부 관계의 역동성을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다. 다시 말하면, 이혼의 실태와 원인에 관한 사건 위주의 양적 연구이거나, 이혼을 실제로 실행한 부부들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이혼에 대한 의도를 가지고 이혼을 계획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에 국한되어 있어 이혼할 의도와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 이혼을 하게 될지 정확한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부부갈등과 이혼의 본질을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혼의 여부는 부부들이 결혼을 하기 전에 얼마나 사랑을 하는 대상자를 만났느냐 보다는 결혼 후에 갈등을 어떻게 잘 해결하고 신뢰로운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는 Gottman(1994)의 주장처럼, 부부들의 이혼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남녀가 결혼을 해서 함께 부부생활을 하면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갈등을 어떻게 경험하고 대처하며, 어떤 계기로 이혼을 결심하고 실행하게 되는지 부부갈등에서 이혼 결심이라는 과정의 관점에서 연구할 필요가 필요하다. Benette, Blanc & Bloom(1988), Martin & Bumpass(1989), Hopper(1993) 등도 이혼이나 결혼불안정성에 관한 연구들이 단순히 이혼 사유를 분석하는 데에 국한되어서는 안 되며 배우자를 선택하고 결혼을 하게 되는 과정과 부부 간의 갈등 수준, 이혼의 장애 요인 및 사유 등을 포함한 이혼과정에 대한 보다 면밀한 분석을 통해 결혼 해체의 근본적 원인을 찾아야 함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부부갈등이 이혼과 관련이 있기는 하지만 부부갈등이 일어난 시점에 반드시 이혼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결혼 생활 중 어떤 특정 사

건이 반드시 이혼을 예견하지도 않는다. 부부는 각각의 행위, 그리고 부부 간의 상호작용 경험에 있어 차별적이고 독특한 의미를 지니며, 상호작용을 하는 과정에서 외적으로 관찰되는 현상 이면에 부부 각자가 부여하는 의미도 매우 다양한 특징을 나타낸다. 더 나아가 결혼생활 중 갈등이 촉발되는 시기와 문제 자체 및 문제의 심각성에 관계없이 결혼생활의 종결을 선택하는 이혼결심의 시기와 실제로 이혼을 실행하는 시기도 매우 다양하다. 즉, 부부가 갈등을 반복하면서 이혼을 심각하게 고려하게 되는 시점과 이혼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시점은 매우 다양하다. 따라서 개별 부부들의 상황에 따라 갈등이 일어난 시점과 어떠한 문제로 갈등이 시작되었는지, 또 그 갈등에 어떻게 대처해 왔는지, 더 나아가 부부가 어떠한 상호작용의 과정을 통하여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 이혼을 결심하고 실행에 옮기게 되었는지에 관한 경험적 자료를 통해 심층적이고 결정적인 원인을 밝히는 연구는 부부문제의 본질을 이해하는데 많은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연구는 부부가 결혼생활 중 갈등을 겪을 때 그 단계와 과정에 따라 어떤 실제적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주어 부부치료 실무에서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이혼 예방을 위한 이혼 전 상담과 이혼 진행 과정에서의 상담, 이혼 이후의 적응을 돕기 위한 상담 등 다양한 이혼과정에 놓인 부부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결혼과 부부문제, 이혼에 관한 지역사회나 국가 수준의 정책개발과 제도를 개선하는데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부부가 결혼생활 중 겪게 되는 갈등은 무엇이며,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상호작용하며, 또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갈등이 이혼에 이르게 되는지 그 변화과정을 밝힘으로써 이혼을 결정하고 실행하게 하는데 영향을 미친 근본적인 요인을 탐색하고자 한다. 즉, 실제로 법적 이혼 절차 과정에 있는 부부를 대상으로 결혼생활 중 부부의 갈등경험과 이혼결정 과정에 대한 개인 내적이고 심층적인 경험을 밝힘으로써 부부문제에 대한 본질적

인 이해에 더 나아가 임상현장에서 갈등 중에 있는 개별 부부들에게 적합한 치료적 개입을 제공하고, 경솔한 이혼을 예방하기 위한 이혼 전 상담에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질적 연구 방법 중 분석의 엄격성과 체계성이 높은 것으로 인정되는 근거 이론적 방법을 적용하여 이혼 과정 중에 있는 부부들을 심층 면접하고자 한다.

2. 연구 문제

연구 목적을 위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이혼을 실행하는 부부들의 주요 생활사건(자녀출생 전, 후)에 따른 갈등 경험 및 갈등해결과정과 방식은 어떠한가?

2) 남편과 아내의 이혼결정과정은 어떠하며 이혼 촉진요인과 심층적 이혼사유는 무엇인가?

Ⅱ. 이론적 배경

1. 부부관계 영향 요인

결혼 및 부부관계에 관한 심리학적 연구들의 대부분은 공통적으로 결혼 적응이 배우자 사이에서 교환되는 행동과 이와 관련된 개인의 인지적 요인의 결과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Jacobson & Margolin, 1979; Epstein & Baucom, 1993).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개인 내 요인으로서 심리도식과 개인 간 즉 부부관계 요인으로서 의사소통 패턴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평가하고 부부갈등이 이혼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이들의 영향과 드러나는 양상을 질적연구 방법을 통해 확인하고자 한다.

1) 개인 내 요인으로서 심리도식

부부관계 및 결혼만족에 영향을 주는 개인 내 요인으로는 주로 성격특성과 낮은 자존감, 인지 등이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개인의 심리내적 요인으로서 인지에 관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졌다. 인지행동치료 이론에 따르면 인지는 과거 경험으로부터 발전된 태도나 가정에 기초하며, 어떤 사건을 평가하고 해석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정서와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Beck, 1976; Ellis, 1962).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부부들의 인지 또한 부부 자신들의 결혼생활과 만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Hamamci, 2005). 인지치료의 관점에서 성격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는 '구조,', '뼈대, 윤곽'을 뜻하는 도식(schema)이며, 이러한 도식으로 인해 자기와 타인, 그리고 현실에 대한 정보처리 과정에서 왜곡이 일어나고 심리적으로 부적응을 겪게 된다고 한다(Beck, 1967; Segal, 1988).

Young(1990, 1999)은 Beck의 도식의 개념에 영향을 받아 초기 부적응도식(Early Maladaptive Schema: EMS)이라는 개념을 발전시켰다. 초기 부적응 도식이란 아동기 혹은 청소년기와 같은 생애 초기에 중요한 타인들과의 관계에서 발달하는 것으로 전 생애에 걸쳐 정교화되고 지속되며 심한 부적응과 대인관계 상의 여러 문제를 일으킬 정도로 역기능적인 자기-패배적 감정과 사고의 패턴이라고 정의하였다(Young, Klosko & Weishaar, 2003). 초기 부적응도식은 다음의 특징은 지닌다고 한다. 첫째, 환경과 관련된 자신에 대한 무조건적인 신념과 감정들, 즉 핵심신념을 의미하고, 둘째, 자기 연속적인 경향성을 지니기 때문에 변화에 저항적이다. 즉, 자신의 도식에 익숙하여 이와 반대되는 정보가 나타날 때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자신의 도식을 수정하기 보다는 도식의 타당성을 유지하기 위해 새로운 정보를 왜곡한다. 셋째, 반복적이고 심각한 문제, 즉 우울, 불안, 외로움 등의 심리적 고통이나 부적절한 대인관계, 업무 수행 등 자기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넷째, 특정도식과 관련된 외부 사건에 의해 활성화되므로, 그에 따라 분노, 우울, 슬픔, 수치심을 경험하게 되는 등 인지, 행동, 정서 전반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Young, 2005).

초기부적응도식은 단절 및 거절, 손상된 자율성 및 손상된 수행, 손상된 한계, 타인-중심성, 과잉경계 및 억제의 5개 영역으로 분류되고(Young, 2005), 이들 5개 영역은 총 18개의 도식으로 구성된다(단절 및 거절 영역: 1. 유기/불안정, 2. 불신/학대, 3. 정서적 결핍, 4. 결함/수치심, 5. 사회적 고립/소외, 손상된 자율성 및 손상된 수행 영역: 6. 의존/무능감, 7. 위험/질병에 대한 취약성, 8. 융합/미발달된 자기, 9. 실패, 손상된 한계 영역: 10. 특권의식/과대성, 11. 부족한 자기통제/자기훈련, 타인-중심성 영역: 12. 복종, 13. 자기희생, 14. 승인-추구/인정-추구, 과잉경계 및 억제 영역: 15. 부정성/비관주의, 16. 정서적 억제, 17. 엄격한 기준/과잉비판, 18. 처벌). 초기부적응도식의 18개 하위요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 1>와 같다.

<표 1> 심리도식의 하위요인

영역	도식	설명
단절 및 거절	유기/불안정	자신에게 지지와 힘, 보호를 제공하는 중요한 대상이 불안정하거나 신뢰할 수 없다고 지각한다.
	불신/학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해치고 학대하고 모욕하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조종하고 이용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정서적 결핍	다른 사람들에게 정서적으로 지지받고 싶은 소망이 적절하게 충족되지 못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결함/수치심	자신을 결함이 있고 나쁘고 남들이 원치 않고 열등하고 취약한 존재라고 느끼거나 자신의 참모습이 드러나면 중요한 타인에게서 사랑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느낀다.
	사회적 고립/소외	자신이 세상으로부터 고립되어 있고 남들과 다르며 어떤 집단의 일부가 되지 못한다고 느낀다.
손상된 자율성 및 손상된 수행	의존/무능	다른 사람들의 많은 도움이 없으면 자신의 일상적인 책무를 유능하게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믿는다.
	위험/질병에 대한 취약성	끔찍한 재난이 언제라도 일어날 것이며 그 재난을 도저히 막아낼 수 없을 것이라는 과장된 공포를 지닌다.
	융합/미발달된 자기	충분한 개별화나 정상적인 사회적 발달을 이루지 못한 채 한 명 이상의 중요한 타인과 지나치게 밀접하거나 정서적으로 지나치게 연루되어 있다.
	실패	자신이 이미 실패했거나 결국 실패할 것이라고 믿으며 자신이 동료들에 비해 성취 영역에서 근본적으로 부적절하다고 믿는다.
손상된 한계	특권의식/과대성	자신이 남보다 우월하고 자신에게는 특별한 권리를 누릴 자격이 있으며 자신은 보통의 사회적 상호작용에 적용되는 상호성의 규칙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고 믿는다.
	부족한 자기통제/자기 훈련	개인적인 목표를 이루는데 필요한 적절한 자기 통제 능력 및 좌절을 견뎌내는 능력을 발휘하지 않거나 발휘하지 않으려고 하며 자신의 감정이나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여 과도하게 표현한다.
타인-중심성	복종	처벌당할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타인에게 통제권을 주고 지나치게 복종하는 모습을 보인다.
	자기희생	일상생활에서 자기 자신의 만족은 희생한 채 타인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자발적으로 지나치게 집착한다.
	승인-추구/인정-추구	참되고 안정된 자기감의 발달은 희생한 채 타인의 승인, 인정, 관심을 받는 것이나 그들에게 맞추는 것을 지나치게 강조한다.
과잉경계 및 억제	부정성/비관주의	삶의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측면은 최소화하거나 무시하는 반면 삶의 부정적이 측면에 지속적으로 초점을 맞춘다.
	정서적 억제	타인에게 승인을 받지 못하거나 수치심을 느끼거나 충동 통제력을 상실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자연스러운 행동, 느낌, 의사소통을 지나치게 억제한다.
	엄격한 기준/과잉비판	행동과 수행에 대한 매우 높은 내적인 기준을 지니고 있으며 비판당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이런 높은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해야만 한다고 믿는다.
	처벌	실수를 하면 누구나 가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믿는다.

* 출처: 심리도식치료 Young, J. E. 외(2005), 학지사

선행 연구들은 초기 부적응 도식이 관계에 대한 만족 및 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Nemati(1996)는 초기 부적응 도식이 결혼만족도와 부적인 상관이 있다고 하였으며, Freeman(1998)의 연구에서도 초기 부적응 도식이 대인관계의 어려움과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Stiles(2004)의 연구에서는 정서적 결핍 도식과 결함/수치심 도식이 낭만적 관계에서의 친밀감과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밝혔다. 김시연과 서영석(2008)은 부적응도식이 남편과 아내 집단 모두에서 결혼만족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인지적 왜곡은 부부가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스트레스를 실제보다 더욱 크게 지각하게 만들어 자신의 인지적 왜곡을 다시 심화시키는 상호작용 통해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여 부적응도식의 중요성을 확인한 바 있다.

이처럼 초기 부적응도식이 결혼만족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과 이들 관계를 매개하는 변인들에 관한 연구들이 조금씩 진행되고 있으나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 특히 초기 부적응도식이 실제 부부들의 역동적 상호작용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인지, 정서, 행동과정을 통하여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에 관한 다차원적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객관적 자료로서 부부들의 초기 부적응도식을 평가하고, 질적 연구방법을 통해 결혼생활 중

부부갈등 발생 시 도식이 어떠한 인지, 정서, 행동으로 나타나 갈등의 반복 및 증폭, 그리고 결국 이혼에 이르게 되는지 그 역동적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2) 대인 간 요인으로서 의사소통 패턴

부부관계 및 결혼만족에 있어 대인 간 요인의 핵심은 부부 간의 상호작용이라고 볼 수 있다. 부부 간의 상호작용과 관련된 변인들로는 의사소통, 갈등대처기술, 역할기대 등이 있는데, 이들 중에도 특히 부부 간의 의사소통에 관한 연구들이 매우 활발히 이루어졌으며 부부문제 및 치료에 있어 가장 주요한 요인으로 확인되고 있다(Geiss & O'Leary, 1981). 결혼 및 부부관계에 관한 많은 학자들은 부부관계에서의 의사소통은 결혼 안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Baucom, 2002; Jacobson & Malgolin, 1979; Gottman, 1994; Klinetob & Smith, 1996; Watzlawick et al., 1967), 만족스러운 결혼생활을 예측하는 가장 직접적이고 강력한 변인이라고 강조한다(Hahlweg, Revenstorf & Schindler, 1984; O'Donohue & Croach, 1996).

행동주의적 입장에서 의사소통을 강조하는 연구자들은 부부문제를 유발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 의사소통 기술의 부족이라고 강조하는 한편(O'Donohue & Croach, 1996), 체계이론적 입장에서의 연구자들은 의사소통 기술 자체보다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소통 패턴을 더욱 강조한다(Jacobson, 1989; Greenburg & Johnson, 1986). 특히 부부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호작용 중에서 한 배우자는 요구하고 한 배우자는 철수하는 상호작용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왔는데, 이를 Fogarty(1976)는 '따라가는 사람-거리 두는 사람(pursuer-distancer)', Napier(1978)는 '거부-침입 유형(rejection-intrusion pattern)', Wile(1981)은 '요구-철수 유형(demanding-withdrawn)'으로 보았으며, Christensen과 Heavey(1990)는 '요구-철수(demand-withdraw)' 의사소통

유형으로 명명하였다. 요구-철수 의사소통 행동은 한 배우자는 상대 배우자에게 변화를 요구하고 비난, 불평, 강요하는 행동을 하고 다른 배우자는 이에 물러나는 철수행동을 함으로써 부부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Christensen과 Sullaway(1984)에 따르면 부부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소통 패턴을 가지게 된다고 하며, 의사소통패턴을 상호건설적 패턴, 상호 손상적 패턴, 상호 회피적 패턴, 그리고 요구-철회 패턴(남편요구-아내철회/아내요구-남편철회)으로 구분하였다. 이에 따라 여러 연구들에서 상호 건설적 의사소통 패턴은 결혼 만족에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장문선, 김영환, 2002; 박영화, 고재홍, 2005; 이희윤, 조유현, 2015), 요구-철회 의사소통 패턴과 상호 회피 의사소통 패턴은 결혼 만족에 가장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Christensen, 1988; Christensen & Shenk, 1991). Christensen과 Shenk(1991)는 요구-철수 의사소통 행동은 부부관계에 문제가 없는 부부, 부부관계 문제로 부부 치료를 받고 있는 부부, 이혼한 부부 집단을 잘 변별하며, 상호건설적 의사소통 패턴이 이혼한 부부 집단 보다 부부치료 참여 집단에서 보다 높게 나타난다고 보고 하여 의사소통 패턴이 부부관계 와해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남편과 아내 중 누가 요구하고 누가 철수하느냐에 따라 장기적인 결혼만족의 수준이 다르다는 연구들이 있는데, Heavey, Layne, Christensen(1993)은 남편요구-아내철수 유형은 1년 후 아내의 결혼만족은 증가하는 것으로, 아내요구-남편철수 유형은 1년 후의 아내의 결혼만족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Gottman과 Levenson(2000)은 아내요구-남편철회가 빠르게는 7년 이내, 늦게는 결혼 7-14년 사이에 결혼 안정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고 하였다.

의사소통 패턴은 체계이론에 기반을 두고 배우자의 행동은 상호의존적이라고 본다(Watzlawick, Bavelas, & Jackson, 1967). 즉 요구-철회 의사소통 패턴의 경우 요구하는 배우자는 상대 배우자의 철회를 이끌어내고, 철회하는 배우

자는 상대 배우자의 요구를 이끌어내는 쌍의 행동 패턴을 나타내며 서로의 행동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부부는 결혼생활 중 갈등과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에서 의사소통하고 이러한 의사소통 과정에서 서로의 의사소통을 강화하고 패턴화 된다고 볼 수 있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부들의 의사소통 패턴을 확인하고, 결혼생활 중 여러 차례의 부부갈등과 문제를 겪는 동안 부부들이 어떻게 의사소통하고, 패턴화 되어 결국 이혼결정 과정에 이르게 되는 지 그 영향을 통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부부갈등

1) 부부갈등의 개념

부부는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것이 다른 두 사람이 만나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때문에 갈등이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즉, 건강한 부부도 갈등은 경험한다(Christensen & Jacobson, 2006). 부부갈등의 개념에 대한 정의는 학자들에 따라 다양하다. Coleman(1984)은 부부가 결혼생활을 하는데 있어 서로의 상반된 욕구, 목표, 기대의 불일치로 인해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겪게 되는 대립이나 긴장이라고 정의하였고, Koerne와 Jacobson(1994)은 부부의 상호관계에서 부족한 자원이나 상충되는 목표에 직면하여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Fincham(2003)은 언어적, 신체적 학대에서부터 개인적 특성과 행동에 이르는 갈등의 원천에 대한 불평이라고 정의하기도 하였다.

이민식과 오경자(2000)는 부부갈등을 부부 사이의 대립과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해 교환하는 관찰 가능한 부정적 언어 및 비언어적 상호작용이라고 정의하고, 이선미와 전귀연(2001)은 부부갈등은 배우자의 기대 및 욕구, 목표의 불

일치로 인해 겪는 긴장이라고 하였다. 또한 박경란과 이영숙(2005)은 부부가 가정생활의 여러 측면에서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겪는 긴장된 상호작용이라고 부부갈등을 정의하였다. 이와 같이 다양한 정의들을 종합해 보면, 공통적으로 부부갈등이란 부부간의 '대립과 불일치, 긴장'이라고 볼 수 있겠다.

한편, 부부갈등에는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이 공존하는 것으로 보는 학자들도 있다. 즉, 결혼생활 중 겪게 되는 부부갈등에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결혼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을 공유함으로써 서로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되는 기회가 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Scanzoni, 1982), 어려움 끝에 결국 이혼의 결정적인 원인이 되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Gottman(1994)은 결혼생활 중에는 긍정적 상호작용과 부정적 상호작용이 공존하는데, 그 중 결혼생활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부정적인 상호작용이며, 이것이 부부갈등이라고 한 바 있다. 또한 Stinnett 등(1984)은 부부갈등은 불가피하며, 갈등을 경험한 부부들은 더욱 친밀해지나 혹은 해결되지 않은 갈등이 긴장을 유발하여 상대방의 자아가치에 지속적인 공격을 가하게 되고 두 사람 사이를 소원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는다고도 하였다. Christie(1981)는 부부관계에서 나타나는 배우자의 태도와 가치 유사성 및 차이가 항상 갈등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이것이 건설적인 갈등과 파괴적인 갈등을 구분 짓는다고 하였다(김오남, 2006 재인용). 따라서 부부갈등의 존재 자체 보다는 부부갈등을 어떻게 다루고 해결해 가는 가에 따라 결혼의 성패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겠다(Driver, Tabares, Shapiro, Nahm & Gottman, 2003).

2) 부부갈등 요인

서로 가치관과 욕구, 기대가 다른 부부는 결혼생활을 하면서 발생하는 문제

가 무엇인지,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문제로 인해 발생한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등 다양한 부분에서 갈등을 겪게 된다. 즉, 양말을 뒤집어 벗어 놓는 것과 같은 사소한 문제에서부터 자녀의 교육문제나 가정 경제, 각자의 여가생활과 직장 문제 등과 같은 중대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갈등의 영역은 그 범위가 매우 방대하다(Fincham, 2003).

이처럼 부부갈등은 결혼생활의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영역을 분류하는 방법은 연구자들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인다. Rice(1979)는 부부갈등의 영역을 사회적 요인, 관계적 요인, 개인적 요인의 3가지 요인으로 분류하였다. 사회적 요인에는 지위, 소득, 동료문제가 해당되고, 관계적 요인에는 애정, 존경, 관계의 평등, 성적관계, 의사소통, 역할 기대, 친밀성, 자녀관계 등의 문제가 해당되며, 개인적 요인에는 건강, 종교, 가치관, 취미 등이 해당되는데, 이 3가지 요인 중에서 부부갈등에 가장 중요한 영역은 관계적 요인이라고 하였다.

부부갈등 요인에 관한 국내 연구를 살펴보면, 유영주(1977)는 부부갈등은 부부의 성격차이, 습관의 차이, 성생활의 문제, 정신연령의 차이에서 기인한다고 하였고, 김재경(1992)은 부부갈등 영역을 체계론적 관점에서 보고 심리사회적 하위 체계로 부부관계 및 인척관계를, 관리적 하위체계로 의사소통, 재정관리, 가사노동을 제안하였다. 서병숙(1993)은 부부갈등 요인을 사회적 요인과 개인적 요인으로 나누고, 사회적 요인으로는 인구의 도시 집중화, 핵가족화, 여성의 취업증가, 새로운 성 윤리관을, 개인적 요인으로 부부 간의 성격차이, 부부간의 사회적, 문화적 배경의 차이, 역할 기대의 차이, 경제적 문제, 고부간의 갈등, 소비 절약의 문제 등을 언급한 바 있다. 또한 최규련(1994)은 성격차이, 의사소통 문제, 경제 문제, 성생활, 친가 및 인척관계, 자녀지도, 배우자의 나쁜 습관, 가사분담 등에서 부부갈등이 발생한다고 하였고, 이경희(1998)는 부부갈등 영역을 개인적 특성, 부부관계 특성, 공동생활 특성, 제 3자 특성의 4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고, 개인적 특성은 부부의 성격이나 사고방식의 차이로 인한 갈등, 부부관계 특성은 부부간 애정, 동생활을 하면서 겪는 갈등, 제 3자 특성은 친인척 등 부부 외의 관계친밀감, 성문제 등으로 인한 갈등, 공동생활 특성은 주택이나 금전, 여가 등 공로 인한 갈등으로 언급하였다. 김갑숙과 최외선(1992)은 개인적인 요인을 중심으로 한 부부갈등의 연구에서 성격 문제, 성 문제, 의사소통 문제, 자녀 문제, 배우자부정 문제, 시가족 문제, 경제적 문제로 부부갈등의 영역을 분류하였다.

기혼자 및 이혼자들을 대상으로 결혼 및 이혼과정에서의 차이를 연구한 천혜정과 김양호(2007)는 이혼자들이 결혼생활 중에 겪는 부부갈등은 성격 및 가치관, 대화 영역에서 그 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이혼자들의 부부갈등은 특정 영역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결혼생활 전반에 걸쳐 전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하였다. 이는 이혼자들이 겪는 부부갈등의 특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부부갈등을 다룰 때는 부부가 표면적으로 내세운 문제 외의 다른 측면까지 총체적으로 다루어야함을 시사한다.

이처럼 부부 갈등에 관한 여러 선행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부부갈등은 결혼생활의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고, 가벼운 문제에서부터 무거운 문제에 이르기까지 그 무게가 다르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에서부터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에 이르기까지 문제가 지속성과 반복 가능성에 있어서도 매우 다양한 특징을 지니는 것으로 확인된다.

3) 부부갈등 대처방법

부부 관계를 파괴하는 것은 부부 간 다양한 영역에서의 차이 및 이로 인한 갈등 자체보다는 갈등을 효과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부부갈등 대처방법에 관한 연구들이 이루어졌다(김경신, 이선미, 2000; Fincham, 2003). 갈등대처방법에 관한 연구는 갈등해결방안(이영숙,

1990), 갈등해결방법(김은정, 1992), 갈등대처방안(최규련, 1994), 문제해결전략(유은희, 1994), 문제해결행동유형(최혜경, 노치영, 1994), 갈등대처유형(고현선, 지금수, 1995) 등 다양한 표현으로 이루어졌다. 부부갈등 대처방법은 문제나 갈등에 직면했을 때 이를 극복하고 처리하며, 관리하고 적응하기 위한 방법과 활동, 수단 등으로 정의될 수 있다(조유리, 김경신, 2000).

갈등 대처방법에 대한 분류는 학자에 따라 다양하다. Straus(1979)는 가족 간의 갈등 대처방법을 합리적 방법(reasoning), 언어적 공격(verbal aggression), 폭력(violence)의 3가지 방법으로 분류하고, 이성적 방법은 지적인 접근을 하는 방법으로, 언어적 공격은 상대에게 상처를 주고 위협하는 언어적, 비언어적 행동으로, 폭력은 상대방에게 육체적 힘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설명하였다. Rusbult, Johnson과 Morrow(1986)는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지 소극적인지, 부부관계 유지에 있어 건설적인지 파괴적인지를 기준으로 하여 표현형(voice), 탈출형(exit), 순종형(loyalty), 무시형(neglect)의 4가지로 유형화하였다. Berko 등(1997)은 자신의 욕구를 고려하는 정도와 상대방의 욕구를 배려하는 정도에 따라 회피형, 타협형, 덮어주기형, 지배형, 통합형의 5가지 유형으로 갈등대처 유형을 구분하였다.

갈등 대처방법에 대해 국내에서는 김명자, 권오실(1996)이 이성적 대처, 외부도움 요청, 감정표현, 회피, 순응 및 체념, 기분전환, 의견강요의 7가지로 구분하고, 이현주(1997)는 외부도움 요청, 신앙에 의지, 이성적 대처, 회피, 행동표출의 5가지로, 조유리와 김경신(2000)은 이성적 대처, 외부도움 요청, 회피, 부정적 감정 및 행동 표출의 4가지로 구분하였으며, 이선미와 전귀연(2001)은 이성적 대처, 외부도움 요청, 회피, 언어적 공격, 신체적 공격, 순응 및 체념의 6가지로 구분한 바 있다.

부부 갈등대처방법과 결혼에 대한 만족도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들에서 갈등대처방법에 따라 결혼만족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최규련(1994)

은 부인의 경우 외부도움에 대한 요청이 많을수록, 회피를 적게 할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았고, 남편의 경우에는 회피와 행동 표출을 적게 할수록 결혼만족도가 높다고 하였으며, 정경숙(1998)의 연구에서도 갈등해결방식을 회피형, 통제형, 조정형으로 나누고, 회피형과 통제형의 갈등해결 방식이 결혼만족도와 부적상관이 있다고 하였다. Kurdek(1995)은 갈등해결유형을 대결형, 후퇴형, 순응형으로 나누어 결혼만족도의 변화를 조사하였는데 부인의 갈등해결방법에 의해 남편의 결혼만족도가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Gottman과 Krokoff(1989)도 갈등 회피는 결혼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한편 결혼만족도가 높은 부부와 낮은 부부를 비교할 때 갈등의 존재 여부에서는 차이가 없지만 갈등대처 방법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Yelsma, 1984) 결혼생활 중 겪게 되는 갈등에 대한 적절한 대처는 결혼만족도의 증진과 성공적 결혼에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며, 갈등에 대한 부적절한 대처는 결혼에 대한 불만족과 결혼의 실패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Gottman & Levenson, 1992). Leonard 와 Roberts(1998)는 부부가 직면하는 갈등의 질과 그 갈등에 대처할 수 있는 자원에 따라 결혼의 결과가 영향을 받으므로 결혼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갈등의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부부 갈등 유형과 유형에 따른 갈등의 과정과 결과에 대한 분석은 결혼생활의 성패를 예측하는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줄 것으로 생각된다.

4) 부부갈등 과정

부부갈등이 어떻게 시작되고, 어떠한 과정을 통해 진행되며 어떻게 증폭되는지, 갈등의 출현과 발달 과정을 이해하는 것은 부부문제를 해결 가능한 시점에 적절한 방식으로 개입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Long과 Young(2004)은 갈등이 어떻게 상승하는가에 관심을 갖고, 갈등이 해결되지 않고 심화되는 부부 갈등의 발달 단계를 4단계로 제안하였다. 초기의 의견 불일치가 있는 1단계는 갈등 정도가 극히 적고, 보통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부부에게 존재하는 6개월 이상 지속되지 않는 갈등이 해당된다. 이 단계의 부부들은 심각한 긴장이나 분노가 발생되지 않고, 치료적 접근에 반응한다고 하였다. 반복되는 갈등이 있는 2단계에 있는 부부들은 6개월 이상 지속되는 만성적 갈등을 경험하고 있으며, 분노와 불안, 스트레스를 겪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접근이 필요한 단계라고 보았다. 심각한 갈등이 있는 3단계의 부부들은 상당한 불안과 스트레스를 6개월 이상 겪고 있으며, 스트레스를 줄이려는 불건강한 노력으로 삼각관계가 증가되며, 의사소통이 어렵고 신뢰가 낮으므로, 이 단계에서는 부부 간의 신뢰를 구축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하였다. 끝으로 심각한 부부관계 단계인 4단계는 모든 스트레스가 최고점에 달한 상태로, 의사소통이 빈약하고 권력 투쟁과 비난이 강하게 나타나며 분노가 극에 달해있고, 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이 포함되므로, 관계 치료는 불가능한 단계라고 보았다. Jacobson 등(1979, 1986)은 배우자를 선택하는 과정에 영향을 주었던 강화물들이 결혼생활에서는 그 가치가 감소하고, 상호관계 속에서 양립 불가능한 불일치점들이 발견되고 일반화되며, 새로운 불일치점들이 나타나 부부 사이에 강화를 주고받는데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되면서 부부갈등이 출현하고 발달된다고 설명하였다.

국내에서 부부들의 갈등 과정을 밝힌 근거이론연구를 살펴보면, 강희숙과 양정옥(2012)은 이혼위기에 있는 15명의 기혼남녀를 대상으로 부부갈등과정에 대해 연구한 결과, 부부갈등의 과정을 갈등태동단계, 삶의 의미상실단계, 갈등은폐단계, 인정단계, 회복단계의 5단계로 도출하였다. 즉, 의사소통기술 부족 및 스트레스 관리 부족, 그리고 분노조절능력 부족으로 갈등이 시작되어 배우자의 외도, 외박, 음주, 의처증 등의 문제행동이 심화되면서 부부갈등이 증폭

되면서 인생에 대한 회의와 자신감 저하 등 삶의 의미를 상실하는 단계에 이르며, 일정 기간 외부로는 부부갈등을 은폐하는 과정을 겪다가 부부상담의 과정을 통해 신뢰를 회복하고 애정을 확인하여 인정하는 단계에 이르거나, 이혼을 협의하고 자녀양육에 있어 화합하는 협의의 단계 혹은 결혼 유지가 불가능함을 깨닫고 배우자를 용서하지 못함으로써 거부하는 단계에 이른다는 화합, 합의, 거부라는 갈등의 결과를 도출하였다. 김현숙(2017)은 이혼소송 중인 13쌍의 부부를 대상으로 소송 중 갈등변화 과정에 관해 연구한 결과, 유리한 고지 선점하기 단계, 자기 이익찾기단계, 투쟁단계, 숙고단계, 파국 또는 재정립 단계의 5단계의 갈등과정을 도출하였으나, 이는 소송 중에 있는 부부가 소송과정에서 겪는 갈등 경험에 대해 초점을 둔 연구로 결혼생활 중 갈등의 과정을 살피고 소송에 이르기까지의 부부갈등 경험을 연구하고자 하는 본 연구 목적에 적절한 해답을 주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부부갈등이 해결되지 못하고 지속될 경우에는 부부관계에서 긴장감이 생기고, 시간이 흐르면서 적대감에 이르기까지 부부결속력은 급격히 와해되기 시작한다. 이렇게 와해된 부부결속력은 가족 해체로까지 이어져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와 같이 부부갈등이 결혼생활의 위기를 가져오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기회가 되기도 하므로, 본 연구를 통해 부부갈등 과정에 대해 보다 면밀히 분석하고, 갈등과정에서 갈등을 증폭시키고 이혼위기로 이끄는 요인을 찾는 것은 부부관계에 대한 이해 및 갈등 중재에 매우 중요하리라 생각된다. 이러한 시도는 부부갈등을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시점에 적절한 개입을 통해 갈등을 부부관계의 유대 강화라는 건설적 방향으로 이끌도록 하는 임상실무에서 매우 의미있는 지침을 제공해줄 것이라고 생각된다.

3. 이혼

1) 우리나라의 이혼 동향

<표 2> 이혼율

연도	이혼건수	조이혼율 (%)	결혼지속기간별 이혼율(%)				
			0~4년	5~9년	10~14년	15~19년	20년 이상
1995	68,279	1.5	32.6	25.1	20.6	13.1	8.2
2000	119,982	2.5	29.3	22.3	18.7	15.3	14.3
2004	139,365	2.9	25.2	22.9	18.9	14.7	18.3
2005	128,468	2.6	25.9	22,2	18.4	14.8	18.7
2010	116,900	2.3	31.5	22.0	18.6	16.9	27.8
2011	114,300	2.3	30.7	21.7	17.4	16.2	28.3
2012	114,300	2.3	28.2	21.5	17.7	16.6	30.2
2013	115,300	2.3	27.3	21,5	16.9	17.2	32.4
2014	115,500	2.3	27.2	22.0	16.3	17.0	33.1
2015	109,200	2.1	24.7	20.8	14.9	16.2	32.6
2016	107,300	2.1	24.6	20.6	14.7	14.9	32.6

* 출처: 통계청, * 조이혼율: 인구 천 명당 이혼건수

2016년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의 이혼건수와 조이혼율은 1995년 이래 꾸준히 증가하였고, 2004년을 기점으로 하여 감소하여 2016년 이혼건수는 10만 7천 3백 건에 이른다. 무엇보다 이혼의 양상에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혼을 하기까지 사실혼 기간을 포함한 결혼 지속기간이 20년 이상인 이혼이 32.6%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4년 이하가 24.6%, 5~9년인 이혼이 20.6%를 각각 차지하여 20년 전에는 결혼 지속기간이 길수록 이혼이 감소하는 추세였던 것과 달리 최근에는 10년 이내 및 20년 이상인 부부가 전체 이혼의 상당 비율을 차지하면서 다양한 기간에서 이혼이 나타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결과는 결혼지속기간이 10년 이내의 결혼 초반부부터 부부들이 상당한 갈등을 경험하게 되고 이러한 과정에서 이혼을 선택하게 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또한 결혼초반부터 발생된 갈등은 결혼지속기간 20년 이상의 상당 기

간 동안 해결되지 못한 채 누적되며,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시기가 되어 이혼을 하거나 미성년 자녀와 같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이혼 장애 요인이 사라지는 시기가 되어 이혼을 한 것으로 해석해볼 수 있겠다. 따라서 결혼지속기간 10년 이내의 부부들을 대상으로 한 이혼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표 3> 미성년 자녀 유무별 이혼율

자녀유무	1995	2006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자녀 있음	71.4	75.7	68.5	62.9	60.1	60.3	59.0	57.2	52.8	51.0
자녀 없음	28.6	48.2	55.1	53.7	53.9	53.7	56.1	58.1	55.6	55.4

* 출처: 통계청

1995년에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의 이혼이 71.4%로 높았으나, 이후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에 이르러 2016년에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의 이혼이 51.0%, 미성년 자녀가 없는 부부의 이혼의 경우 55.4%로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 이는 최근 우리사회의 출산율 감소 현상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으나, 과거와 달리 자녀의 유무가 이혼을 포기하는 장애요인으로서 큰 영향이 없게 되고 부부 둘만의 상호관계가 결혼생활을 유지하는데 주요한 요인일 수 있음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겠다. 따라서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고려할 때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의 상호관계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실제적 개입은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겠다.

<표 4> 2016년 이혼사유

원인	배우자 부정	정신적 육체적 학대	가족간 불화	경제문제	성격차이	건강상	기타
건수	7,564	3,812	7,927	10,928	48,560	605	27,932
(비율)	(7.0%)	(3.6%)	(7.4%)	(10.2%)	(45.2%)	(0.6%)	(26.0%)

* 출처: 사법연감(가사소송 신청서에 기재된 원인별 비교 기준에 따름)

과거의 이혼 사유는 배우자 부정, 부당한 대우, 동거 및 부양의무 유기, 생사불명, 자신의 부모에게 부당한 대우 순으로 배우자의 외도가 이혼사유의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데 비해(사법연감, 2000), 최근에는 성격차이, 원인불명의 기타사유, 경제적 문제 순으로 성격차이가 가장 높은 비율로 보고되고 있어 부부 둘만의 정서적 관계 문제는 결혼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여겨진다(사법연감, 2017). 우리나라는 민법 제 840조에 이혼사유를 1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호.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호.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호.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장기별거, 성격차이, 경제 갈등, 폭언, 생활 무능력, 배우자의 이혼강요 등)로 나누고 있다. 1호~6호는 모두 부부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조건으로 상정한 사유인데, 이 중 5호 사유는 확실하고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있으나, 나머지 사유는 개인의 주관적 해석이나 판단이 개입되는 것이 불가피한 사유들이다. 특히 6호 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는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며 상대적이고 융통성 있는 이혼사유로서 해석이나 적용이 시대상황에 따라 유동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000년 이후 어떤 다른 이혼 사유보다 6호의 이혼 사유 가운데 '성격차이'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어 유책행위가 명확하지 않은 심리, 정서적 문제와 관련한 주관적 사유들이 이혼의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2016)의 상담통계자료에서도 이혼상담 사유의 1위가 '성격차이'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부부 간의 내적 갈등의 근원이 되는 부부불화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격차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부부의 성격문제로만 이해하기는 어렵다. 즉, 부부의 문제는 사적인 영역으로 일반 사람들에

게 쉽게 드러내기 어려운 문제이며, 또 특정 요인만을 문제 삼기도 어려운 매우 복잡한 현상이기 때문에 한 마디로 표현하기가 매우 어려운 특징이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일반적으로 가장 표현하기 쉬운 간단한 표현으로 '성격차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최상진, 김은미, 차영란(2006)은 이혼사유는 이혼하는 사람들의 심리적, 사회적 허용에 따라 받아들여지는 것으로. 그 시대에 설명 가능한, 사회적으로 적합한 요소들로 만들어진다고 하였다. 이에 이혼사유를 '성격차이'로 설명하려는 현상은 정 중심의 심정적인 한국 사회의 심리, 사회, 문화적 과정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혼을 실행하는 실제 부부들을 대상으로 한 실증연구를 통해 그들의 판단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과 주변인들의 반응에 대한 질적 연구가 이루어져야 실질적인 측면에서의 이혼예방에 의미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이혼 동향을 통하여, 단순히 이혼 발생 건수의 증감에 초점을 두기 보다는 이혼 실태의 다양성에 대한 인식을 기반으로 이혼 문제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며, 이를 기반으로 이혼을 결정하게 되는 요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성격차이'라는 용어만으로 이혼의 복잡하고 미묘한 과정과 그 과정에서 느끼게 될 감정들을 설명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실증적 자료들을 통하여 '성격차이'라는 용어에 내포되어 있는 세부적이고 구체적이며 자세한 내용들을 밝힘으로써 심리적, 정서적, 행동적 관점에서 부부가 이혼으로 이어지는 과정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2) 이혼의 원인

일반적으로 행복한 결혼이냐 이혼이냐 하는 결혼의 결과는 결혼의 질(marital quality)과 결혼 안정성(marital stability)에 의해 평가된다. 결혼의 질은 결혼생활에서 느끼는 만족이나 행복과 같이 결혼관계의 질적 경험에 의해

판단되고, 결혼 안정성은 이혼과 같은 결혼의 해체 가능성에 의해 판단된다(Lewis & Spanier, 1979). 결혼의 질이 높을수록 결혼 안정성도 높아진다고 보는 관점이 일반적이기는 하나, 결혼생활의 만족과 결혼생활의 안정성 간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며(최선희, 전명희, 1999), 결혼만족과 이혼을 예측하는 요인에 있어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Huston, Caughlin, Houts, Smith, & George, 2001). 대부분 연구에서 부부갈등이 높을수록 결혼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지고, 부부갈등이 낮을수록 결혼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최규련, 1994), 권력이나 친밀감과 관련된 부부갈등은 결혼에 대한 만족을 감소시키지만, 배우자의 개인적 습관이나 사회적 이슈, 부부의 거리감과 관련된 부부갈등은 결혼에 대한 만족과 의미있는 관계를 보이지 않다고 보고 하여(Kudek, 1994), 부부갈등 영역에 따라 결혼에 대한 만족도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부부가 갈등을 겪고 있다고 할지라도 모든 부부가 이혼을 하지는 않는다. 또한 부부갈등으로 인해 이혼을 심각하게 고려하더라도 막상 이혼을 실행하기는 쉽지가 않다. 즉, 부부 간 갈등이 이혼을 고려하게 만들지만, 이혼을 지연시키거나 억제시키는 요인들이 존재한다면 이혼을 실행하기가 어려운 등 부부갈등과 이혼의 과정은 복잡하다(곽배희, 1993, 이경성, 2001, 구혜경, 유영달, 2008). 따라서 부부의 갈등 과정과 이혼 결정과정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국내에서 이혼에 관한 연구들은 19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초에 시작되었고, 대체로 사건위주의 표면적 이혼사유를 밝히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들 연구들을 종합해볼 때, 이혼의 원인은 표면적 원인과 심층적 원인으로 구분해 볼 수 있으며, 표면적인 원인에는 가부장적 배우자 성격과 생활태도, 배우자 가족과 불화, 주벽, 알콜중독, 도박, 성격파탄 등 정신질환에서 오는 행동(곽배희, 1993)과 배우자의 외도, 성격차이, 역할갈등, 음주, 도박, 가정폭력, 시댁식

구갈등, 의사소통문제, 성, 신체장애(옥선화, 남영주, 강은영, 2006) 등이 있고, 이혼의 심층적 원인으로는 자아미숙과 자아 미분화 상태(Collins, 1984; 이종원, 2002; 박민지, 2005; 권정란, 이인순, 2006), 부부관계에 대한 비합리적 신념(연규진, 2006), 역기능적 부부 의사소통(Gottman, 1993, 1994; 박영화, 고재홍, 2005; 장문선, 김영환, 2003)과 부부간의 성관계 불만족(김요완, 2000), 부적절한 갈등대처행동(조유리, 김경신, 2000; 박영화, 고재홍, 2005) 등이 있다.

한편 부정행위, 경제적 문제, 폭력, 성격결함, 문제행동, 양립불가능, 정서문제, 확대가족관련문제 등 흔히 이혼사유로 보고되는 요인들은 이혼에 직접적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한경혜, 김주현, 강혜원, 2004), 이혼사유와 부부사이의 긴장도, 그리고 주변의 이혼권유는 이혼의향을 촉진시키기는 하나 실제적인 이혼발생을 촉진시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무영, 2003). 또한 이경성(2001)의 연구에서도 배우자 행동에 대한 귀인이 결혼만족과 이혼의도에 영향을 주기는 하나 이혼계획과 시도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주혜주(2005)의 연구에서도 이혼의 사유가 이혼에 직접적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 연구들을 종합해볼 때, 이혼사유가 이혼결정에 직접적 영향을 주기보다는 기존에 잠재적인 문제가 있던 부부들의 이혼결정에 부차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이명신과 김유순(2005), 한경혜, 김주현, 강혜원(2004)의 연구에 따르면, 이혼사유별 이혼의향에 있어 남녀의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이 남성보다 이혼원인을 더 복잡한 것으로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전영주, 2006a), 이혼에 관한 성별차이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졌으나 남녀의 차이가 부부간의 차이를 나타낸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부를 대상으로 한 이혼고려 사유를 밝힐 필요가 있다.

여러 통계적 자료나 이혼 사유를 밝히는 사건위주의 연구들은 이혼의 심각성을 표면적이고 현상적으로 설명해줄 수는 있으나, 이혼이라는 스트레스 사

건을 겪는 당사자들의 복잡한 내면과 정신과정을 설명해줄 수는 없다. Weiss(1975)는 이혼사유를 묻는 질문으로 얻을 수 있는 응답은 '무엇이 이혼을 생각하게 하는 직접적이며 구체적인 계기가 되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과는 다른 성격을 가진다고 지적하였다. 그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이혼을 하게 되면, 자신의 결혼이 해체된 이유를 스스로가 납득하고 이해하기 위해 지난 결혼생활과 이혼과정에 대하여 회고하는 인지적 과정을 거치게 된다고 하는데, 이러한 회고를 통해 결혼생활에 대한 평가를 이혼의 사유로 보고하기 때문에 주관적 이혼사유는 결혼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의 성격을 갖는다고 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건위주의 표면적 이혼사유를 묻는 질문들을 통해 이혼의 심층적 원인을 파악하는 데는 많은 한계가 있다고 본다.

이러한 문제인식에서 국내에서도 부부를 대상으로 이혼을 주제로 한 몇몇의 근거이론 연구가 이루어졌다. 김요완(2007)은 이혼 소송 중에 있는 6쌍의 부부들을 대상으로 부부관계의 와해 및 이혼소송과정에 관한 근거 이론적 연구를 한 결과, 이혼소송의 심층적이고 결정적 원인을 자존감 손상이라고 밝히고 상대방의 자존감을 존중하는 것이 부부간의 사랑과 친밀감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전제조건이 되며, 이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것이 의사소통 능력임을 실증적으로 입증하였다. 그러나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볼 때 부부들의 연령을 30대 초반부터 60대 초반까지, 결혼지속기간이 14년~42년, 학력이 초등 중퇴~대졸까지로 그 범위를 방대하게 설정하였고, 이혼소송 중의 갈등 과정에 중점을 두고 있어 이혼 전 단계에서 부부갈등의 심화 과정과 이혼실행의 결정적 계기가 되는 부부들의 경험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부족하며 남녀를 통합적으로 분석하여 결혼만족에 중요한 변수로 밝혀진 남녀의 경험 차이를 밝히기 어렵다. 또한 이혼소송 중 부부관계 와해과정의 결정적 요인을 자존감 손상으로 밝혔으나 부부들의 자존감에 주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원가족 부모와의 관계 경험을 다루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상담소를 찾은 이혼위기에

처한 기혼남녀 15명을 대상으로 부부갈등 과정에 대해 근거이론 연구를 한 강희숙과 양정옥(2012)은 부부갈등의 중심현상으로 삶의 의미상실을 도출하고, 부부갈등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삶의 의미를 상실하게 되면서 부부관계에 총체적 위기를 경험하게 되고 결국 가족해체로까지 이르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부부 쌍이 아닌 기혼남녀가 연구대상으로 포함되어 부부 쌍의 경험을 충분히 연구하지 못했으며, 무엇보다 부부갈등의 반복으로 삶의 의미상실을 경험하지만 어떤 기혼자는 결혼생활을 유지하기로 결정하고 어떤 기혼자는 원만하게 이혼 합의에 도달하며 어떤 기혼자는 원만한 이혼합의를 거부하게 되는지 등 부부갈등이 이혼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의 결정적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다.

이에 최근의 국내 이혼 동향을 고려하여 높은 이혼율을 나타내고 있는 결혼지속기간이 10년 이하인 30-40대 부부들을 대상으로 한 보다 특정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이혼을 실행하는 부부들의 부부갈등 및 이혼실행 과정의 연속적 측면에서의 분석을 통해 많은 양적 연구들을 통해 밝혀진 부부들의 심리내적 문제들이 실제 부부들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이고 심도 있게 밝힐 수 있는 질적 연구가 필요하다.

3) 이혼의 과정

이혼은 한 순간에 결정하게 되는 일회적 사건이 아니라 결혼 전반에 걸쳐 일어나는 일련의 과정으로, 이혼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과정의 관점에서 이혼을 이해하고 설명하고자 한다. 부부는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 갈등을 겪으면서 이혼에 대해 고려하게 되고, 어느 순간 이혼 의도를 갖고 이혼을 실행하게 되는 과정을 겪는다. 즉, 이혼을 고려하고 의도를 가지며 실행하는 전 과정을 이혼이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많은 학자들은 이혼을 과정의 관점에서 이해

하고 있다.

Booth와 White(1980)는 이혼의 과정은 결혼 생활에 불만을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 이혼의 가능성에 대해 심각하게 고려하는 단계, 이혼에 대해 배우자에게 이야기하고 주변 사람들과 의논하는 단계, 이혼에 대해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단계, 그리고 법적 이혼의 전 단계로서 별거 등이 이혼의 과정에 포함된다고 하였다.

Bohannan(1970)은 이혼을 정서적 이혼, 법적 이혼, 경제적 이혼, 공동부모역할 이혼, 지역사회 이혼, 심리적 이혼의 6가지의 복잡한 과정으로 분류하고, 각 단계의 경험은 반드시 순차적으로 일어나지는 않으며, 여러 단계의 경험이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는 등 개인마다 각 단계의 경험이 다를 수 있다고 하였다. 정서적 이혼(emotional divorce)은 결혼관계의 문제를 인식하고 배우자와 정서적 거리를 두기 시작하는 단계로, 법적 이혼이 이루어지기 훨씬 전부터 시작된다. 법적 이혼(legal divorce)은 법적 결정으로 결혼관계가 종결되는 단계이며, 경제적 이혼(economical divorce)은 이혼과정 중 이루어지는 재산분할의 과정과 관련된다. 공동부모역할 이혼(co-parental divorce)은 이혼 후 자녀에 대한 양육과 면접, 자녀에 대한 지원과 관련된 문제들과 관련된 단계이며, 지역사회 이혼(community divorce)은 부부의 이혼으로 야기되는 사회적 관계망의 변화가 있는 단계이다. 끝으로, 심리적 이혼(psychic divorce)은 전 배우자와의 법적, 정서적 분리가 이루어지는 단계로, 누구의 배우자로서가 아니라 독립된 개인으로서 자신을 재정의 하게 되는 과정이나 이 시기는 개인에 따라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다고 하였다.

Kressel과 Deutsch(1977)은 이혼의 과정을 이혼 전, 이혼 과정, 이혼 후의 3단계로 나누었는데, 이혼 전 단계는 결혼 만족도와 친밀감이 감소하고 화해를 시도하기 보다는 회피하거나 공격하며 결혼결속력이 파괴되는 단계, 이혼과정은 이혼을 결심하지만 헤어짐에 대한 불안과 고통이 존재하며 의존적인 집착

때문에 다시 친밀감이 증가하기도 하지만 이혼이 불가피함을 인식하는 단계, 이혼 후 단계는 애도과정과 평정 과정을 거치게 되는 단계로 설명하였다.

Sprenkle과 Storm(1983)은 이혼 전 이혼의사 결정 단계, 이혼 재구성 단계, 이혼 후 회복 단계의 3단계로 구분하였으며, 이혼 전 이혼의사 결정 단계는 부부 중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이 관계에 대해 불만이 증가하고, 한 배우자가 상대 배우자 없이 사는 미래를 꿈꾸거나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고, 법적 절차를 알아보거나 이혼의 가능성을 가까운 지인과 논의해 보는 단계, 이혼 재구성 단계는 이혼의 경제적 현실 문제를 다루면서 혼란된 감정을 겪는 단계이며, 이혼 후 회복 단계는 새로운 삶의 경험,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사랑의 대상을 탐색하는 단계로, 흥분과 후회, 분노 등을 경험하는 단계라고 하였다(Young & Long, 1997; 2004, 김요완, 2006 재인용).

Gottman(1993)은 이혼의 과정을 결심단계, 분리단계, 투쟁단계, 정리단계로 구분하였으며, 배우자 가운데 한 사람이 결혼생활에 만족하지 못하고 이혼을 심각하게 고려한다면, 이미 이혼의 과정이 시작되었다고 보고, 이혼을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단계가 있는 과정이며 다차원적이고 복합적인 과정이라고 하였다(유순희, 2016 재인용).

Balswick(1995)은 이혼의 과정을 별거 이전 단계, 별거 단계, 별거와 법적 이혼 단계, 적응단계의 4단계로 구분하고, 별거 이전 단계를 감정적 이혼이 이루어지고 사랑이 식어가는 시기, 별거 단계를 실제적인 별거 시점에서 협상, 좌절, 분노, 동요, 죄책감, 후회를 경험하는 시기, 별거와 법적인 이혼의 단계를 법적 문제들, 재산분배, 애도, 자녀양육문제의 결정, 생활방식에 대한 새로운 방향설정, 자신의 정체성이나 감정적인 기능 발휘에 대해 초점을 맞추는 시기, 적응 단계를 새로운 목표나 활동이 포함되어 자신의 삶을 재구성하는 개인적 회복 시기라고 하였다(최정숙, 2006 재인용).

국내에서 이혼과정을 연구한 근거 이론적 연구들을 살펴보면, 김요완(2009)

은 이혼소송 중인 30~60대 6쌍의 부부를 인터뷰하여 이혼소송과정을 갈등발생단계, 자존심 손상단계, 무시단계, 성관계 단절단계, 역할중단단계, 상호공격단계, 단절단계의 7단계로 분석하였다. 갈등발생단계는 역기능적 의사소통, 남녀차이로 인한 역할변화 부적응과 같은 부부갈등의 원인들이 발생하는 단계이며 이 단계에서 어느 정도로 갈등이 노골화되는 지에 따라 자존감 손상단계로의 진행이 결정되며 가해자-피해자의 관계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단계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 단계에서는 서로에 대해 여전히 기대가 있고 상대방에게 자신의 요구를 주장하는 단계이며 부부의 원가족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므로 원가족으로부터 얼마나 독립하느냐, 결혼 후 변화하는 가치관과 역할에 얼마나 빨리 적응하느냐에 따라 부부관계가 긍정적 혹은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자존감 손상단계는 자존감의 손상을 경험하지만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단계로, 갈등의 요소들이 오랜 시간 지속 및 반복, 심화되어 자존감이 손상되며 이로 인해 우울, 분노, 무기력 등 정서문제를 겪지만 상대방의 태도는 무관심과 부인의 모습을 보이는 단계라고 하였다. 무시 단계는 자존감 손상을 입었으나 해결하기 보다는 싸움을 회피하는 단계로, 부부 모두 무시와 축소의 태도를 보이며 갈등이 심화되지만 이혼을 결심한 상태는 아니라고 하였다. 성관계 단절 단계는 적극적 성행위뿐만 아니라 스킨쉽과 같은 광의의 성행위도 거부하고 다른 사람에게 부적절한 정서적 애착을 보이는 단계로, 형식적, 의례적, 사무적인 대화만 유지된다고 하였다. 역할 중단 단계는 부부의 역할이 중단되고 불만, 짜증, 공격성을 표출하며 이혼결심 및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단계라고 하였다. 상호공격 단계는 이혼의 현실을 깨닫고 적극적으로 상대방을 공격하는 단계로 싸움 자체가 목적이 되며 부부 모두 가해자의 입장에 서고 자녀를 상호공격의 수단으로 삼는다고 하였다. 끝으로 단절 단계는 관계가 단절되어 법원의 이혼결정과 상관없이 남남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단계라고 하였다. 김요완(2009)은 성관계 단절의 단계를 정서적 이혼으로 보고

역할중단 단계부터는 법적이혼의 단계에 이르는 과정으로 관계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역할중단 단계 이전에 회복을 위한 시도하는 등 단계별로 부부들을 위한 상담이 구분되어야 함을 언급하였다.

이혼을 과정의 관점으로 보는 관점에는 이혼의 과정을 '이혼을 고려하는 단계'에서부터 '이혼 후 적응을 하는 단계'까지로 보는 입장과 '이혼을 고려하는 단계'에서부터 '법적 이혼의 단계까지'로 보는 입장이 있어 이혼 과정의 마지막 단계에 대한 다소의 견해 차이가 있다. 그러나 두 입장 모두 공통적으로 이혼에 대해 심각하게 고려하게 되는 시점을 이혼의 첫 단계로 보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부부 갈등이 법적 이혼 결정에 이르는 변화과정과 그 과정에서의 부부들의 경험을 탐색하고, 이혼결정의 근본적 원인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이혼의 과정을 '이혼을 고려하고 이혼 의사'를 갖게 된 시점부터 '법적 이혼을 실행하는 단계'까지로 보는 관점을 갖고자 한다. 즉 본 연구에서도 Bohannan(1970), Gottman(1993) 등의 입장과 같이 한쪽 배우자가 결혼생활에 만족하지 못하고 이혼을 고려하게 되는 '정서적 이혼' 단계에서부터 '법적 이혼' 단계에 이르는 단계까지를 이혼으로 보고 이 단계에서의 부부들의 경험을 연구하는데 초점을 두고자 한다.

Ⅲ. 연구 방법

본 연구는 부부갈등경험과 이혼결정과정을 탐색하고 이혼의 근본적인 원인을 밝히고자 하는 목적으로 실제 부부들을 심층적으로 면담하여 그들의 삶의 맥락에서 결혼생활의 실체를 연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질적 연구방법 가운데 Strauss와 Corbin(1998)이 제시한 근거이론 방법을 적용하고자 한다. 질적 연구방법은 알려진 것이 거의 없거나 새로운 이해를 얻기 위해 많은 것을 알아야 하는 실제적 분야를 탐색하는데 사용될 수 있으며(Stern, 1980), 느낌, 사고 과정, 감정과 같이 기존의 연구방법을 통해서는 추출하거나 알기 어려운 현상에 대해 복잡한 세부 사항을 얻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질적 연구에 있어 다양한 유형과 접근법이 있는데 내러티브 연구, 현상학, 근거이론, 문화기술지, 사례연구가 대표적이다. 내러티브 연구(Narrative Research)는 개인적인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분석 자료로 하며 개인이 자신의 삶에 대해 말한 이야기들에 표현된 경험들에 초점을 두고, 현상학적 연구(Phenomenological Research)는 하나의 개념이나 현상에 대한 여러 개인들의 체험적 의미를 기술하며, 문화기술지 연구(Ethnographic Research)는 전체 문화집단에 초점을 두고 문화의 공유된 패턴을 기술하고 해석하고자 하며, 사례연구(Case Study Research)는 하나의 현상이나 맥락 내에서 하나 이상의 사례를 통해 탐색된 이슈에 대해 연구한다(Creswell, 2010).

1. Strauss와 Corbin(1998)의 근거이론방법

근거이론방법(Grounded Theory: GT)은 현장에서 나온 자료를 근거로 이론을 개발하기 위한 것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이론을 생성하는 질적 연구방법이다. 근거이론방법은 이론을 생성하기 위해 자료

자체에 근거(grounded)를 두어 질적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데 필요한 체계적인 지침을 제공한다. 근거이론방법은 현장 연구의 한 형태로 연구 현장에 존재하는 현상, 대상, 사건, 경험 등으로부터 귀납적인 방식으로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함으로써 개념을 정리하고 이론을 출현(emerging)시키는 방법이다. 즉, 근거이론방법은 특별한 사회, 심리적 현상을 이론적으로 설명하고 인간 행동의 본질을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다(신경림, 조명옥, 양진향, 2015).

근거이론 방법은 기존 질적 연구방법들이 비체계적인 분석과 단순한 서술 연구에 불과하다는 한계에 근거하여 보다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현상을 추상적이고 개념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목적과 이론의 검증에 치우친 연구의 패러다임에서 탈피하여 자료를 통한 이론의 출현과 생성이 가능하다는데 초점을 두고 등장하였다. 근거이론은 Glaser와 Strauss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이는 (a)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기 위해 현장으로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 (b) 학문의 발전 및 사회적 활동의 기초로서 자료에 근거한 이론의 관련성 및 적절성, (c) 현상 및 인간 행동의 복잡성 및 다양성, (d) 개인은 문제적 상황에 대응하여 적극적 역할을 배운다는 사실, (e) 개인은 의미라는 기초 위에 행동한다는 깨달음, (f) 의미는 상호작용을 통해 정의되고 재정의 된다는 이해, (g) 사건(과정)이 가진 발전, 전개되는 본질에 대한 민감성, (h) 조건(구조), 행동(과정), 그리고 결과 간의 상호관계에 대한 인식이라는 배경에서 개발되었다.

근거이론방법은 상징적 상호작용론(symbolic interactionism)에 철학적 근거를 두고 있는데 이는 상징적 의사소통을 통해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설명하는 이론이다. 상징적 상호작용론에 의하면 인간은 서로의 행동에 단순히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과 관련된 의미에 근거하여 반응한다고 본다. 또한 의미는 개인이 독자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만들어지며, 그 의미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행동을 해석하거나 정의함으로써 반응하므로(Blumer, 1969: 신경림 외, 2001 재인용), 결국 인간은 이러한 상호작용과 해석의 과정을 통하여 새로운 의미와 행위가 과정 속에서 형성되는 것이다. 즉 개인의 행동은 타인의 행동과 별개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태도를 추정하고 반응에 대한 다른 사람의 반응을 정신적으로 예측하여 행동하는 등 인간의 상호작용은 복잡하게 형성된다. 상징적 상호작용론은 개인이 어떻게 느끼고, 경험하고, 사회적 구조에 의미를 부여하는가를 조사하고, 가족, 집단, 조직, 지역사회가 독특한 상황에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는가에 관심이 있다. 근거이론방법은 이러한 상징적 상호작용론에 근거하여 타인의 세계를 정확하게 나타내고 지각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개발되었다(Glaser & Strauss, 1967).

근거이론 방법은 이론적 민감성을 가지고 이론적 표본을 추출하여 지속적으로 비교해가는 체계적 방법이며, 포화의 원칙에 따라 자료의 수집과 분석을 동시에 수행하는 방법으로(Creswell, 2007), 다음과 같은 주요 특징을 지닌다.

첫째, 이론적 표집(theoretical sampling)으로, 이는 이론이 스스로 출현하도록 발전시키기 위해 분석자는 자료 수집과 코딩화 작업을 동시에 실시하여 다음에 어느 곳에서 어떤 자료를 수집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다. 즉, 생성되는 이론에 의해 유도되는 표집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이론적 민감성(theoretical sensitivity)으로, 이는 개념의 발견과 범주화에 대한 연구자의 감각 또는 통찰력을 말한다. 대개 연구가 진행됨에 따라 민감성은 지속적으로 발전되지만, 연구자의 개인적, 기질적 취향을 성찰하고 이론적 편향성 및 편견 등을 의식적으로 경계하고 배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반복적 비교분석(constant comparison)으로, 이는 분석의 대상인 사건과 사건, 사건에서 코딩 된 개념 또는 범주와 다른 개념 또는 범주들, 범주와

범주들 간의 지속적인 비교를 통한 정교화 작업을 말한다.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현상, 개념, 범주 간을 비교하여 이론적 표본 추출 및 자료 수집상에 있어서의 포화상태를 판단하고, 현상, 개념, 범주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명확히 하고 각각의 관계를 이해함으로써 추상적인 범주를 형성하여 이론을 형성해가는 과정이다.

넷째, 메모(memo)로, 이는 연구를 진행하는 동안 연구자가 분석적인 개념 및 자신의 생각과 느낌, 질문과 해석을 기록하는 것으로, 개방 코딩, 축 코딩, 선택 코딩의 단계의 결과들을 담고 있는 매우 전문화된 유형의 서면 기록을 의미한다. 이는 이론적 표본추출의 방향을 제시하고 분석자로 하여금 마음속에서 사고를 정리하도록 이끈다.

다섯째, 코딩(coding)으로, 어떠한 자료나 대상에 대하여 의미있는 기호나 단어, 어귀 등으로 이름을 붙이는(labeling) 과정을 말한다. 원자료를 줄 단뒤로 분석하면서 분류하고 개념화시킨 자료를 보다 추상적인 의미 단위로 범주화하는 개방코딩과 이를 개념 범주 간을 서로 비교하면 핵심 범주를 중심으로 패러다임 틀의 구조로 기술하는 축 코딩과 선택 코딩의 3단계 코딩 과정에 따른다.

본 연구는 결혼생활 중 부부들이 갈등상황에서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어떠한 과정과 계기를 통하여 이혼을 결심하고 실행하게 되는지 그 과정과 경험을 밝힘으로써 이혼의 근본적인 원인을 밝히고, 부부문제의 본질을 이해하고자 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근거이론방법의 적용은 적절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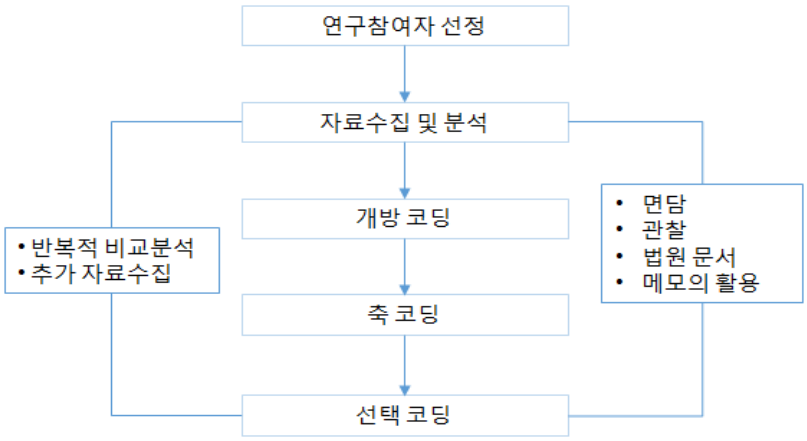
첫째, 근거이론방법은 실제로 법적 이혼 절차를 통하여 이혼을 준비하는 부부들을 대상으로 한 면담을 통하여 경험적 자료를 얻고 실제적이고 설명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고자 하는 본 연구에 적합한 방법이다.

둘째, 근거이론방법은 부부갈등과 이혼결정이라는 잘 알려지지 않은 현상들이 일어나는 구조와 과정의 관점에서 연구하는데 적합한 방법이다.

셋째, 근거이론방법은 결혼생활 중 겪는 갈등 상황들에서 부부가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동일한 사건을 부부 각자가 어떻게 경험하는지, 그 차이는 무엇인지 등 부부의 역동성과 부부문제의 실체를 밝히는데 유용한 방법이다.

2. 연구 과정

본 연구의 과정은 <도표 1>과 같다.



<도표 1> 근거이론연구 과정

3. 연구 참여자 선정

근거이론연구방법에서는 이론적 표본추출(theoretical sampling)에 따라 연구참여자를 선정한다. 이론적 표본추출은 이론에 대해 입증된 이론적 관련성을 가진 개념들을 근거로 하여 표본을 추출하는 것으로, 이론적 표본 추출을 이끌어 나가는 방법은 질문과 비교하면서 범주들과 속성들 차원을 가리키는 사

건, 우연한 일들을 표본 추출하여 그것들을 발전시키고 개념적으로 연결시키는 것이다. 이론적 표본 추출은 연구자가 다음에 어떤 자료를 수집하고, 어디에서 연구 참여자들을 찾을 것인가에 대한 분석적 근거를 결정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법원에서 법적 이혼절차 중에 있는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 가운데 통계청(2016) 자료를 근거로 하여 결혼지속기간이 20년 이상인 황혼이혼에 해당되는 부부들 다음으로 이혼율이 높은 결혼지속기간에 해당되는 10년 이하인 30-40대 부부 10쌍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법원 현장에서 만나는 부부들은 높은 갈등을 겪어 왔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고 실행하는 대상자들이다. 다년 간 부부갈등을 겪고 결국 이혼을 결심하고 실행하는 법적 이혼 절차 중에 있는 부부들은 부부갈등에서 이혼에 이르는 과정과 실제적 경험에 대해 가장 심도 있는 해답을 줄 수 있는 대상자들이므로 본 연구 대상으로 적합하다.

4. 자료 수집 방법

1) 면담방법

**법원에서 협의이혼 및 재판상이혼을 신청한 당사자들로 결혼지속년수가 10년 이하이면서 연령이 30~40대에 해당되는 부부들 가운데 <부록 5>의 연구 설명서 및 동의서에 대한 안내 후 연구에 동의한 부부들을 연구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자료 수집은 연구자가 근무하고 있는 **정신건강의학과 상담실에서 2017년 11월 29일~2018년 5월 19일에 걸쳐 면대 면의 심층면담으로 이루어졌으며 개별면담으로 남편과 아내를 각각 1시간 30분~2시간, 부부 면담을 1시간 30분~2시간으로 하여 부부 당 평균 총 5~6시간의 면담이 진행되었으며 필요한 경우 30분~1시간 정도의 추가 면담을 실시하였다.

질적 연구방법에서 연구 질문은 아직 해답을 찾지 못한 문제에 대한 대답을 찾고 연구할 현상을 밝혀낼 수 있는 진술을 하도록 하는 유형의 질문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의 질문은 넓게 시작하고, 연구 과정을 통해 개념과 관계가 밝혀짐에 따라 질문은 좁혀지고 초점이 맞추어진다. 이에 면담의 질문은 개방적이고 넓은 것에서부터 시작하는데 본 연구에서도 <부록 1>의 주요면담질문지를 중심으로 면담의 질문은 일반적인 것에서부터 특수한 것으로 진행하고 연구자의 반응이 면담의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인지하여 진지하면서도 절제된 감정표현으로 중립성을 유지하며 자연스럽게 질문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면담을 진행하였다. 모든 면담의 내용은 휴대용 녹음기로 녹취되었고 면담이 끝난 뒤에 녹취된 파일을 전사하였다.

2) 분석자료

분석의 자료는 녹음한 면담내용이나 관찰내용, 면담 과정에 작성한 면담 노트와 분석 과정에서 연구자의 생각이나 느낌을 작성한 메모를 중심으로 하여 <부록 2>의 인적사항질문지, <부록 3>의 심리도식 질문지, <부록 4>의 의사소통패턴 질문지뿐만 아니라 가사상담위원이 가사상담을 의뢰받을 때 받게 되는 간단한 사건관련 내용(법원 조사관의 조사 의뢰서 혹은 판사의 의뢰사항)과 협의이혼 의무상담 시 이루어지는 간단한 설문지 그리고 연구 대상자들이 제공하는 일기나 편지, 휴대전화 메시지 등 대상자들의 경험을 설명할 수 있는 부가적인 자료들도 분석의 자료로 활용하였다.

근거이론 방법에서 자료의 수집은 이론적 포화에 따른다. 이론적 포화(theoretical saturation)는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범주의 속성을 발달시키는데 있어 더 이상의 새로운 자료가 발견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 범주가 변화를 보여주는 속성과 차원에 따라 충분히 발견될 때, 범주 간의 관계

가 잘 설정되고 검증되었을 때를 의미한다. 연구자는 모든 범주가 이론적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될 때 자료의 수집과 분석을 중지한다.

3) 측정도구

심리도식 질문지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심리도식 질문지는 Jeffrey E. Young(1990)이 개발한 Young Schema Questionnaire(YSQ)의 단축형을 최영희와 이동우(2017)가 번안한 한국판 Young 심리도식 질문지(YSQ-S3-K)이다. YSQ-S3-K는 총 90문항으로 유기/불안정, 불신/학대, 정서적 결핍, 결함/수치심, 사회적 고립/소외, 의존/무능감, 위험/질병에 대한 취약성, 융합/미발달된 자기, 실패, 특권의식/과대성, 부족한 자기통제/자기훈련, 복종, 자기희생, 승인-추구/인정-추구, 부정성/비관주의, 정서적 억제, 엄격한 기준/과잉비판, 처벌의 18개 도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문항의 내용이 얼마나 자신을 잘 나타내는지에 따라 '전혀 아니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6점)까지 6점 Likert 척도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조성호(2002)의 연구에서 각 요인의 Cronbach' α 계수는 .75~.95(평균 .88)이었으며, 김희연, 채규만(2010)의 연구에서는 .90으로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의사소통 패턴 질문지

본 연구에서 부부들의 의사소통 패턴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된 설문지는 Christensen과 Sullaway(1984)가 개발한 Communication Pattern Questionnaire(CPQ)를 임승락(1998)이 번안한 것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CPQ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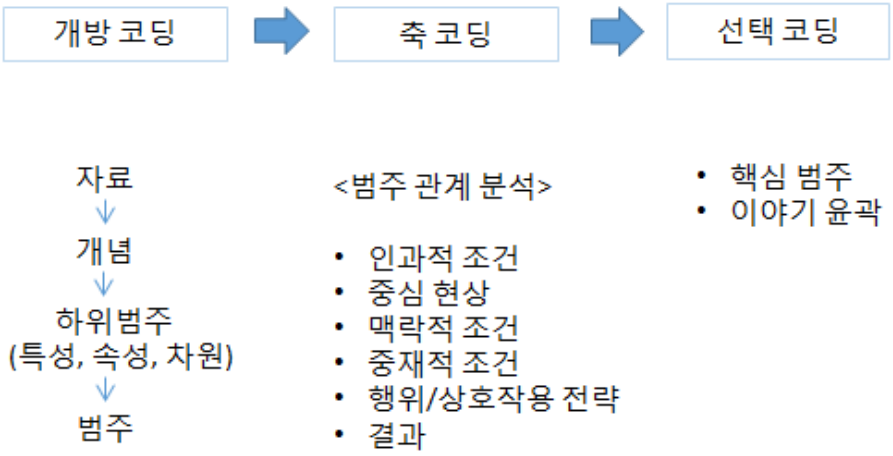
는 총 22문항으로 '상호 건설적 의사소통 패턴', '상호 손상적 의사소통 패턴', '상호 회피적 의사소통 패턴', '요구-철회 의사소통 패턴(남편요구-아내철회/아내요구-남편철회)'의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부관계에서 문제가 처음 생길 때, 문제를 의논할 때, 문제에 대한 의논이 끝난 후의 3단계 상황으로 나누어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각 문항은 자신과 배우자의 의사소통 행동에 대해 지각한 것을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9점)까지의 9점 Likert 척도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하위척도의 Cronbach' α 계수는 임승락(1998)의 연구에서 건설적 의사소통 .88, 회피적 의사소통 .70, 남편요구-아내철수 .79, 아내요구-남편철수 .84, 전체 요구-철수 .87, 손상적 의사소통 .90으로 나타났으며, 이정은과 이영호(2000)의 연구에서는 건설적 의사소통 .79, 손상적 의사소통 .85, 요구-철회 의사소통 .71, 회피적 의사소통 .67로 나타났으며, 장문선, 김영환(2002)의 연구에서는 건설 .80, 손상 .82, 요구-철회 .76, 회피 .79로 나타났다.

5.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Strauss와 Corbin(1998)이 제시한 근거이론의 절차에 따라 개방코딩, 축코딩, 선택코딩의 3단계 순서대로 진행한다.

근거이론에서는 자료의 수집과 분석이 동시에 진행되므로, 첫 연구 대상자와의 면담을 마침과 동시에 자료수집, 코딩, 분석을 진행하고 분석한 자료를 기반으로 다음 면담을 위한 추가 질문을 구성한다. 이때 면담의 내용은 지속적 비교분석(constant comparative analysis) 방법을 통해 분석하는데, 지속적 비교를 통한 분석은 자료 분석의 기본적인 방법으로, 복잡하게 흩어져 있는 원자료(raw data)를 줄 단위(line by line)로 읽고 계속적으로 비교 분석하여 보다 추상적인 개념과 범주 등으로 형성해가는 과정이다. 즉,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현상, 개념, 범주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명확히 하고 각각의 관계를 이해함으로써 추상적인 범주를 형성하여 이론을 형성해가는 과정이다.



<도표 2> 자료 분석 절차

1) 개방코딩

개방코딩(open coding)은 수집된 자료(data)를 구체적으로 오픈, 해체하고 검토 및 비교하여 의미있는 개념(concept)을 찾아내고, 개념적으로 유사하거나 의미 상 관련이 있다고 여겨지는 것들을 범주화(category)하는 최초의 과정이다. 이를 위해 대상자와의 심층 면담 이후 녹음한 파일을 녹취록으로 작성하고, 작성한 내용을 2~3차례 반복해서 읽으면서, 한 줄 한 줄 읽어가는 줄 단위 분석(line by line)을 함으로써 여러 개의 코드(code)로 분할한다. 이를 통해 개념과 하위범주, 범주를 도출하고자 한다. 이렇게 도출한 개념-하위범주-범주를 표로 작성하여 지도교수, 임상심리전문가 및 부부 상담전문가에게 논리적 적절성을 점검받고 수정하는 과정을 거침으로써 더 적절한 자료수집과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를 포화될 때까지 반복하고자 한다.

2) 축 코딩

축 코딩(axial coding)은 개방 코딩을 통해 출현된 범주들을 재조합하는 과정으로, 범주들을 속성과 차원에 따라 하위범주들과 연결시키는 작업이다. 이 과정을 통해 자료들은 더 추상적인 수준으로 발전하게 되며 이론을 구축하는데 실마리를 제공한다. 범주들이 서로 어떻게 연관되어 있으며 교차되는지를 구조적으로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고 현상에 대한 핵심 범주(core category, 중심 범주central category)를 도출하고, 이를 중심으로 여러 범주들을 하나의 축(axial)에 연결시켜 범주의 관계를 밝힌다.

축 코딩에서 핵심 범주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선택된다. 1) 모든 주요 범주와 관련이 될 수 있을 만큼 반드시 중심적이어야 한다. 2) 자료에 자주 등장해야 한다. 3) 범주들을 연결시키는데 논리적, 일관성 있는 설명이 가능해야 한다. 4) 핵심 범주는 일반적 이론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추상적인 어구로 표현되어야 한다. 5) 이론적 깊이와 설명적 힘을 가진다. 6) 모순되는 사례나 대체 사례에 대해서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어떠한 현상의 복잡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는 구조와 조건, 그리고 과정을 연결하여 이해해야 한다. 즉, 어떠한 현상과 연관된 문제, 사건, 쟁점은 구조 혹은 조건에서 일어나고, 특정한 문제나 쟁점에 반응하는 사람 기관, 지역사회의 행위/상호작용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과정을 나타내게 된다. 즉, 구조는 어떠한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를 설명해준다면, 과정은 어떠한 현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돕기 때문에 구조와 과정을 밝힘으로써 역동적인 현상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축 코딩에서는 구조를 과정과 통합시키도록 돕기 위해 고안된 분석 도구인 패러다임(paradigm)을 활용하여 구조와 과정을 체계적으로

통합할 수 있도록 자료를 수집하고 정돈한다. 패러다임의 구성요소는 조건, 행위/상호작용, 결과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조건(conditions)은 왜, 어디서, 어떻게,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들의 개념적 방식으로, 현상이 포함되어 있는 일련의 상황이나 상태를 형성하는 것이며, 행위/상호작용(action/interaction)은 개인이나 집단이 조건 하에서 일어나는 쟁점, 문제, 사건에 대해 취하는 전략적 혹은 일상적 반응을 의미하는 것으로,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라는 질문들로 제시된다. 끝으로, 결과는 행위/상호작용의 결과물로, 무엇이 일어났는가 혹은 사람이나 집단이 행위/상호작용에 의해 상황에 반응함으로써 무엇이 일어났는가에 관한 질문으로 제시된다. 또한 조건(conditions)간 혹은 행위/상호작용과 맺게 되는 이후의 관계 중에서 나타나는 복잡한 관계를 정돈하고자 인과적 조건(causal condition: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나 일)과 중재적 조건(intervening conditions: 현상을 매개하거나 변화시키는 조건), 맥락적 조건(contextual conditions: 인과적 조건과 중재적 조건에서 나오는 것으로, 차원적으로 시간과 장소에서 교차하여 사람들이 행위/상호작용을 통해 반응해야하는 상황이나 특수한 구조적 조건)으로 조건들을 구분한다.

패러다임 모형을 분석한 후에 과정분석을 실시하는데, 과정분석이란 행위/상호작용(action/interaction)을 시간의 흐름과 공간에 따라서 추적하여 일련의 변화하는 과정(process)을 순차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이다. 과정은 시간의 흐름과 공간, 상황이나 맥락에 따라서 변화하거나 때로는 그 상태로 남아있게 되는 행위/상호작용이 이루는 일련의 발전하는 순차적 순서를 의미한다. 행위/상호작용은 문제 상황에 대응해서 이루어지는 전략적인 것일 수도 있고, 특별한 생각 없이 이루어지는 일상적인 것일 수도 있다. 즉, 연구하고자 하는 특정한 사건 또는 경험의 본질은 역동적이고 변화하는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이러한 과정을 단계로 나누어 제시하는 과정을 거친다.

3) 선택코딩

선택코딩(selective coding)은 핵심 범주(core category)를 선택하고, 선택한 핵심범주를 다른 범주들과 연관 지어 이들 간의 관련성을 확인하여 이론을 통합시키고 정교화하는 과정이다. 핵심범주는 모든 개념과 모든 범주를 대변하는 연구 전체의 중심 범주에 해당된다. 즉 연구자는 자료에 빈번하게 등장하고, 논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설명이 가능하며, 실체적인 이론으로 형성될 만큼 충분히 추상적이며 이론적 깊이와 설명적 힘이 있는 핵심범주를 선정한다. 핵심범주를 선정한 후에는 이를 중심으로 하나의 스토리를 제시하는 이야기 윤곽(storyline)을 제시함으로써 연구의 핵심현상에 대한 서술적 묘사를 실시한다.

6. 연구자의 준비

질적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는 민감성과 객관성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민감성은 자료 안의 미묘한 뉘앙스와 의미를 감지하고 개념 간의 관계를 깨닫기 위해 필요하며, 객관성은 사건에 대해 공정하고 정확한 해석을 하는데 필요하다.

민감성은 자료 안의 사건에 대해 통찰력을 가지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새로운 것을 발견하기 위해 겉으로 나타난 명백한 것 뒤에 잠재된 측면을 볼 수 있는 연구자의 능력을 의미한다. 어떠한 현상이나 사건들이 암시하고 있는 미묘한 차이와 유사점 등을 통찰력을 가지고 판단하기 위한 민감성은 자료의 수집과 분석, 비교, 질문, 추가 자료 수집의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생성되기도 하고, 문헌고찰과 전문가로서 직업적 및 개인적 경험, 그리고 의도적인 노력을 통해 생성되기도 한다.

객관성은 가능한 한 정확하게 대상자들의 경험을 재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연구자는 완벽한 객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주관성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연구 기간 동안 의식적, 반성적 성찰을 통하여 개인의 경험이나 지식, 선입견과 편견 등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될 가능성을 최대한 줄이고자 의식적 깨어있기에 힘쓴다.

본 연구자는 **질적연구 학회의 평생회원으로서, 다년 간 정기적으로 학회의 학술대회 뿐만 아니라 그 외 기관의 질적 연구방법론에 관한 워크숍에 참석하여 질적연구 및 근거이론방법에 대한 교육 및 실습을 이수하였다. 또한 **정신건강의학과에서 다년 간 갈등을 겪고 있는 부부를 대상으로 부부 상담을 하고 있으며, **법원에서 2015년부터 현재까지 가사상담위원 및 자녀양육안내위원으로 위촉되어 재판상 이혼 및 협의 이혼 과정에 있는 부부들을 대상으로 가사상담 및 부모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7. 연구의 신뢰성 및 타당성 확보

질적 연구에서의 타당도는 이론을 생성하는 과정에 대한 입증을 통해 귀납적으로 유도된다(More, Hutchinson & Penrod, 1998). 질적으로 유도된 이론은 실체의 대표를 목적으로 하고, 이론 검증은 지속적인 자료 수집과 분석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질적 연구의 타당도는 통계적 타당도가 아니라 분석적인 타당도이다. Glaser와 Strauss(1967)는 적합성(fit), 이해(understanding), 일반성(generality), 통제(control)의 4가지 기준으로 근거이론의 평가기준을 분류하였다. 즉, 근거이론의 결과가 적용할 실제 영역에 적합한지, 해당영역과 관련하여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지, 실제 영역 내에서 다양한 일상 상황에 적용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일반적인지, 일상 상황의 구조와 과정에 대한 부분적인 통제력이 허용되는가 하는 4가지 속성이 충족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첫째, 자료들을 반복적으로 비교하여 생각하고 비

판적으로 성찰하며, 둘째, 지도교수와 임상심리전문가와 부부 상담전문가 등 동료집단의 점검(peer/colleague examination)과 연구 참여자 확인(member check)을 통하여 연구자가 추출한 개념이 참여자들의 경험을 잘 반영하는지 확인하고, 셋째, 면접, 관찰, 서면 보고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료의 수집 및 관찰에 있어 복수의 관점(triangulation)을 가지도록 노력하며, 끝으로, 문헌을 활용함으로써 연구의 결과가 공정하고 정확하게 표현되었는지, 연구자가 잘못 생각하고 오해한 것은 없는지를 검토하여 연구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자는 심층면담 내용을 전사하고 이론적 표본추출을 하는 과정에서부터 분석 후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까지 임상심리전문가 1인과 부부 전문가 1인의 검토를 받았으며, 연구 대상 부부 1, 2, 3, 4, 6으로부터 연구자가 부부들의 경험을 잘 반영하였는지 확인을 받았다.

8. 연구윤리 확보

본 연구는 성신여자대학교 기관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의 승인을 받았으며, 승인 번호는 SSWUIRB 2017-023이다. 참여자들의 개인 신상과 면담 내용에 대한 비밀보장을 위해 모든 자료를 기록하고 저장할 때는 연구 참여 순서에 따라 각 개인에게 식별번호를 부여하여 이를 사용하며, 연구자 외에는 접근할 수 없는 개인 컴퓨터에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자료를 안전하게 보관한다. 더불어 참여자들이 법적 이혼 절차 중에 있는 **법원의 전자시스템 상에는 개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의 세 항목만 기록되어 있으며, 세 항목의 개인정보에 접속할 수 있는 사람은 접속권한이 부여된 해당 사건 재판부의 소속 법원 직원으로 한정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법원 전자시스템은 법원 외부의 어떠한 장소에서도 인터넷 접속이 불가하도록 되어 있어 사법 기관의 철저한 관리 아래 개인정보가 보호되고 있다. 더불어 지도교수 및 동료 연구자, 그리

고 전문가 집단에게 점검을 받을 시에는 연구대상자의 동의하에 수행하며, 녹음된 파일과 녹취록은 5년간 보관하며 이후 파일삭제와 파지의 방식으로 모두 폐기한다.

Ⅳ. 연구결과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 <표 5>와 같다.

<표 5>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		나이	학력	직업	결혼 형태	결혼 지속년수	가계 월수입 (만원)	자녀
1	남편	30대중	전문대졸	기술직	연애	7년	300 ~400	1남 (7세)
	아내	30대중	고졸	생산직				
2	남편	30대초	전문대졸	생산직	연애	6년	400 ~500	1녀 (4세)
	아내	30대초	전문대졸	생산직				
3	남편	40대초	대졸	회사원	혼합	10년	400 ~500	1남 1녀 (8세, 5세)
	아내	30대후	대졸	주부				
4	남편	30대초	고졸 (대중퇴)	서비스직	연애	4년	300 ~400	2남 (4세, 2세)
	아내	30대초	전문대졸	주부				
5	남편	30대초	고졸 (대중퇴)	회사원	연애	4년	300 ~400	1녀 (4세)
	아내	30대초	대학원졸	아르바이트				
6	남편	30대초	고졸	개인사업	연애	10년	500 ~600	1남 1녀 (6세, 4세)
	아	30대초	고졸	주부				

	내							
7	남편	30대초	고졸	기술직	연애	1년	100 ~200	1녀 (2세)
	아내	30대초	고졸	주부				
8	남편	30대후	전문대졸	서비스직	연애	5년	300 ~400	2남 (5세, 4세)
	아내	30대초	고졸 (대중퇴)	판매직				
9	남편	30대후	전문대졸	관리직	연애	6년	500 ~600	1녀 1남 (5세, 3세)
	아내	30대초	고졸	주부				
10	남편	30대중	전문대졸	관리직	연애	6년	300 ~400	2남 (6세)
	아내	30대초	전문대졸	판매직				

본 연구 대상자의 개인적인 정보가 지나치게 개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부들에게 심층면담에 참석한 순서에 따라 식별번호를 부여하였다. 남편들의 평균 나이는 35세였으며, 부부 3의 남편이 40대 초반인 것을 제외하고 모든 남편들은 30대에 해당되었다. 또한 아내들의 평균 나이는 32.2세였으며, 모두 30대에 해당되었다. 이들 부부들의 결혼 지속년수는 최대 10년에서 최소 1년으로 평균 결혼 지속년수는 5.9년이었으며, 첫 자녀들의 나이는 많게는 8세에서 적게는 2세로 자녀들의 평균나이는 4.6세였다. 부부 3을 제외하고는 모두 연애결혼을 하였으며, 6쌍의 부부(부부 1, 2, 4, 5, 8, 10)는 맞벌이 부부로 결혼생활을 하였다.

부부 1, 2, 3은 재판상 이혼을 신청하였고, 부부 1은 아내가 먼저 소송을 제기하여 아내가 원고였으며 부부 2와 3은 남편이 먼저 소송을 제기하여 남편이 원고였으나 부부 2와 3의 남편 모두 아내가 이혼을 원하여 별거가 시작되었고 이후 남편이 이혼소송을 시작한 것이라고 하였다. 나머지 부부 4~10은 모두

협의이혼을 신청하였으며 모두 아내가 이혼을 완강하게 요구하여 이혼에 응하였다고 하여 결국 부부 1~10 모두 아내가 먼저 이혼을 요구한 경우였다.

2. 질적 연구 결과

2-1. 개방코딩에 의한 범주분석

본 연구는 대상자들과의 심층면담을 통해 얻은 자료들로부터 지속적인 질문과 비교분석을 통해 개념들을 발견하고 그 개념들을 무리지어 범주화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개념보다 더 추상적인 하위범주와 범주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기존의 결혼에 관한 양적연구들에서 나타난 성별의 차이를 고려하여 남편과 아내를 각각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표 6>과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편들은 83개의 개념과 40개의 하위범주 그리고 16개의 범주를 도출하였고, 아내들은 93개의 개념과 42개의 하위범주 그리고 18개의 범주를 도출하였다.

1) 개방코딩: 근거자료의 범주화

<표 6> 개념-하위범주-범주와의 관계(남편)

범주 category	하위범주 subcategory	개념 concept
준비 없는 결혼	상황에 떠밀림	혼전 동거함(H1, H2, H10), 혼전임신으로 결혼함(H4, H5, H6, H7, H8, H9), 결혼적령기가 됨(H3, H8), 본가에서 결혼을 원함(H10)
	좋은 감정만 생각함	챙겨주고 의지하고 싶음(H1, H6), 모든 면이 좋음(H2, H3, H4, H5, H6,

		H7, H8, H9), 결혼상대로 적당함(H3, H10)
	서두른 결혼	이른 나이에 결혼함(H1, H2, H4, H5, H6, H7, H9, H10), 짧은 연애를 함(H1, H2, H3, H4, H5, H6, H7, H8, H9, H10), 사회, 경제적 기반이 없음(H4, H5)
원가족 경험에 의한 개인요인	정서요인	우울 및 공허함(H3, H4, H5), 정서억제 및 회피함(H1, H2, H3), 관심 및 인정에 대한 갈망이 높음(H3, H5, H6, H8, H10), 화 및 충동 조절의 어려움(H5, H6, H7)
	결혼관	온화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 원함(H1, H4, H7, H9), 경제적 기반을 갖추는데 집중함(H1, H2)
	심리도식	처벌(H6, H7, H8), 유기도식(H5, H10), 정서적 결핍(H4), 정서적 억제(H2, H3),승인/인정추구(H7, H8, H10), 자기희생도식(H1, H2, H5, H9), 질병/피해 취약성(H3, H4), 부족한 자기통제/자기훈련(H6), 엄격한 기준/과잉비판(H9), 정서적 박탈(H10)
경제적 문제	경제관념의 차이	경제관이 다름(H1, H2, H3, H4, H5, H6)
	경제적 부담/압박감	경제적 여유가 없고 압박이 큼(H1, H2, H4, H5, H6, H7, H8, H9, H10)
일-가사-육아의 다중 역할갈등	육아, 가사에 대한 불평, 불만이 많음	육아, 가사를 힘들어 함(H1, H2, H3, H4, H5, H6, H8), 아내에게 산후우울증이 옴(H4, H5, H7, H8)
	퇴근 후 육아, 가사에 대한 요구가 많음	육아, 가사에 대한 요구가 늘어남(H1, H2, H3, H4, H6, H7), 육아, 가사문제로 자주 다툼(H1, H4, H5, H9)
	내 일에 대한 지원이 없음	다중 역할 요구로 마음 편히 일 할 수 없음(H2, H2, H8), 직장 일로 힘든 것에 대한 배려가 없음(H1, H4, H5, H6, H9, H10)

상황에 의한 별침	출산 후 각방을 사용함	출산 후 아이 때문에 각방을 사용함(H1, H4, H5, H6, H7, H9, H10), 생활 패턴이 달라 각방을 사용함(H2, H4)
지속하는 부부문제	갈등 무시/묵인	문제가 표면화되는 것을 피함(H1, H5, H6, H10), 해결의 방법이 없어 묵인함(H1, H2, H3, H8)
	대화 회피/단절	감정싸움이 싫어 대화를 피함(H1, H2, H3, H4, H6, H7, H9, H10)
	몸과 마음이 지침	사소한 일에 싸인 감정이 폭발함(H1, H4, H5, H9, H10), 마음과 몸이 지침(H2, H3, H5, H6, H7, H8)
공유하는 시간의 부재	부부 시간의 부재	부부 둘만의 시간이 없음(H1, H2, H3, H4, H5, H6, H7, H8, H9, H10)
	부부공동 목표의 부재	경제상황을 공유하지 않음(H1, H2, H4), 추구하는 삶이 다름(H3, H6), 결혼생활, 미래에 대해 공유한 경험이 없음(H5, H7, H8, H9, H10)
원가족과의 문제	배우자-원가족 관계 갈등	시댁의 경조사를 챙기지 않음(H1, H9), 고부갈등이 심함(H3, H4, H6, H8, H9, H10),
	자신-원가족 관계갈등	가족의 정서적 지원이 없음(H4, H5, H6, H7, H8)
배우자 외 다른 관심	개인 활동에 몰입	개인 취미활동에 빠짐(H1, H6, H7, H8, H10), 사람들과 어울림(H2, H5, H10), 회사 일에 몰두함(H6, H8)
	다른 관계에 몰입	외도함(H5, H8, H10), 지인과 소통함(H1, H2, H3, H5, H6, H7, H9, H10), 아내가 아이에게만 몰입함(H5, H7, H10)
변화 불가능성 인지	변하지 않음	갈등의 반복과 악화를 확신함(H3, H4, H6, H8, H9, H10), 천성은 변하지 않음(H1, H2, H3, H5, H7, H8, H9)
	상황을 돌이킬 수 없음	부모가 개입되어 돌이킬 수 없음(H2, H4, H7, H9)
	아내의 지속적 이혼요구	이혼하려는 의지가 완강함(H1, H2, H4, H5, H7, H8, H9, H10), 이혼 시도를 여러 차례 반복함(H5, H6)

이혼 억제요인의 약화	이혼이 자녀에게 더 좋다는 생각	이혼이 아이들에게 더 좋다고 생각함(H2, H3, H4, H5)
	사회적 낙인으로부터 자유로움	사회적 낙인으로부터 자유로움(H3)
	주변의 이혼지지	가족, 지인이 이혼을 지지함(H2, H3, H4, H7, H9)
부부 성생활	성관계 거부/단절	성관계를 회피 및 거부함(H1, H3, H4, H5, H6, H7, H8, H9, H10)
	성욕저하	성욕이 저하됨(H1, H2, H3, H4, H5, H6, H8)
의사소통방식	대화 회피/단절	대화 회피 및 단절됨(H1, H2, H3, H5, H6, H7, H8, H9, H10), 메신저로 대화함(H4)
	비난/상처 주는 대화	무시, 비난, 욕설, 모욕적인 말, 폭언함(H1, H2, H3, H4, H5, H6, H7, H8, H9, H10)
	지지 /공감적 소통의 부재	공감, 따뜻한 말을 하지 않음(H1, H2, H3, H4, H5, H6, H7, H9)
갈등해결방식	임시방편의 해결	나아질 거라는 기대로 넘김(H4, H6, H7), 순간을 모면하려함(H1, H3, H5, H6, H7, H9, H10)
	극단적 행동 /폭력적 다툼	점점 극단적으로 싸움(H1, H2, H3, H4, H5, H6, H7, H8, H9), 부부싸움 후 내쫓거나 가출함(H1, H7, H10), 제3자가 갈등에 개입함(H2, H7, H8)
	주변의 도움요청	전문기관의 상담이 여의치 않음(H2, H3, H6, H7, H8, H10)
삶의 의미상실	대우/인정받지 못함	가장, 아빠, 남편으로 인정받지 못함(H1, H2, H3, H4, H5, H6, H7, H8, H9 H10)
	보살핌/사랑받지 못함	챙기고 살펴주지 않음(H1, H3, H4, H5, H6, H7, H9, H10), 사랑받는 느낌이 없음(H3, H4, H5, H7, H8, H9, H10)
	배우자로서의 의미상실	좋은 엄마가 아니라 판단함(H1, H2, H3, H5, H6, H8), 부부의 유대가 없음(H2, H3, H5, H7, H9, H10), 아내가

		의지대상이 못됨(H4, H5, H7, H8, H9, H10)
법적 이혼실행	의도적 별침/별거	가출 후 별거함(H1, H2, H3, H4, H6, H7, H8, H10), 싸운 후 각방을 사용함(H5, H9)
	법적 이혼절차를 밟음	법적 이혼 절차를 밟음(H1, H2, H3, H4, H5, H6, H7, H8, H9, H10)

<표 7> 개념-하위범주-범주와의 관계(아내)

범주 category	하위범주 subcategory	개념 concept
준비 없는 결혼	상황에 떠밀림	혼전 동거함(W1, W2, W6, W10), 중매로 결혼함(W3), 혼전 임신으로 결혼함(W4, W5, W6, W7, W8), 남편이 결혼적령기라 결혼함(W9)
	좋은 감정만 생각함	결혼상대로 적당함(W1, W3, W4, W8), 모든 면이 좋음(W1, W2, W3, W4, W5, W6, W10), 나를 아껴준다고 느낌(W1, W5), 듬직해서 기댈 수 있을 것 같음(W8, W9)
	서두른 결혼	짧은 연애를 함(W1, W2, W5, W7), 이른 나이에 결혼함(W1, W2, W4, W5, W6, W7, W8, W10), 부모가 반대하는 결혼을 서두름(W8, W9)
원가족 경험에 의한 개인요인	정서요인	관심과 사랑의 결핍(W1, W2, W3, W7, W10), 우울 및 공허함(W3, W6, W7, W8), 화 및 충동조절의 어려움(W4, W5, W6), 대인관계에 대한 불신 및 피해의식을 느낌(W3, W4, W5, W6, W7, W8)
	도피심리	부모로부터 독립하기 원함(W3, W6, W8, W9), 힘든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음(W1, W2, W3, W4, W5, W6, W8, W10), 연인과의 이별 후 힘든 마음을 잊고 싶음(W5, W7)

	심리도식	자기희생(W1), 융합/미발달된 자기(W2, W3), 엄격한 기준/과잉비판(W1, W5, W10), 부족한 자기통제/자기훈련(W5), 정서적 박탈(W6, W8), 사회적 고립/소외(W6), 불신/학대(W4, W6, W7, W8, W10), 승인/인정추구(W7), 특권의식/과대성(W7), 유기(W8), 부정성/비관주의(W9)
경제적 문제	경제관념의 차이	경제관이 다름(W1, W2, W4, W5, W6, W7, W10)
	경제적 부담/압박감	경제적 여유가 없고 압박이 큼(W1, W2, W4, W5, W6, W7, W8, W10)
다중 역할갈등	남편과의 역할갈등	남편이 육아에 협조하지 않아 자주 다툼(W1, W2, W3, W4, W5, W6, W7, W8, W9, W10)
	일, 육아, 가사일의 고충	다중역할 스트레스가 한 번에 몰려옴(W1, W2, W3, W4, W5, W6, W8, W9, W10), 참고 살아보려는 노력이 출산 후 힘에 부침(W1, W2, W5, W10), 출산 후 개인 생활, 부부의 시간이 없음(W1, W2, W9, W10), 산후우울증이 옴(W4, W5, W6, W7, W8, W10), 양가부모의 육아지원이 없음(W3, W4, W8, W10)
상황에 의한 별침	출산 후 각방을 사용함	출산 후 아이 때문에 각방을 사용함(W1, W2, W3, W4, W5, W6, W7, W8, W9, W10), 생활패턴이 달라 각방을 사용함(W1, W2, W4, W5)
지속하는 부부문제	갈등 무시/묵인	문제가 표면화되는 것을 피함(W4, W6), 해결의 방법이 없어 묵인함(W8)
	대화 회피/단절	감정싸움이 싫어 대화를 피함(W1, W2, W3, W4, W5, W6, W7, W8, W9, W10)
	몸과 마음이 지침	사소한 일로 싸인 감정이 터짐(W1, W3, W4, W5, W6, W7), 몸과 마음이

		지침(W1, W2, W4, W6, W10)
공유하는 시간의 부재	부부 시간의 부재	부부 둘만의 시간이 없음(W1, W2, W3, W4, W5, W6, W7, W8, W9, W10)
	부부공동 목표의 부재	경제 상황을 공유하지 않음(W1), 추구하는 삶이 다름(W2), 결혼생활, 미래에 대해 공유한 경험이 없음(W1, W2, W3, W4, W5, W6, W7, W8, W9, W10)
배우자 가족과의 관계	고부갈등	고부갈등이 심함(W4, W6, W8, W9, W10), 남편이 중간역할을 못함(W4, W8, W9, W10)
	소속감 없음/소외	일 때문에 자주 왕래 못함(W2), 배려, 공감 받지 못함(W3, W4, W5), 내 편이 없고 마음 둘 데가 없음(W6, W7, W8, W10)
배우자 외 다른 관심에 몰입	개인 활동에 몰입	남편이 취미, 일에 몰입함(W1, W3, W6, W8, W10), 사람들과 어울림(W1, W2, W5)
	다른 관계에 몰입	남편 외 사람을 의지함(W1, W2, W4, W5, W6, W8, W9), 육아에 몰두하며 아이를 의지함(W3, W5, W10), 외도함(W5, W10)
변화불가능성 인지	변하지 않음	갈등의 반복과 악화를 확신함(W2, W4, W10), 천성은 변하지 않음(W1, W3, W5, W6, W7, W8, W9, W10)
이혼 억제요인의 약화	이혼이 자녀에게 더 좋다는 생각	아이들에게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 주고 싶음(W3, W4, W5, W6, W7, W9, W10), 아이를 혼자 키울 자신이 생김(W5, W7, W10),
	사회적 낙인으로부터 자유로움	사회적 편견과 시선이 신경 쓰이지 않음(W1, W2, W3, W4), 이혼한 사람들의 삶이 좋아 보임(W1, W2, W10)
	주변의 이혼지지	가족, 지인이 이혼을 지지함(W1, W2, W3, W4, W5, W6, W7, W8)
새로운 삶에 대한 갈망	나를 찾고 싶음	나 자신, 내 삶을 찾고 싶음(W1, W2, W3, W4, W5, W6, W7, W8, W9,

		W10)
	개인 시간을 갖고 싶음	혼자만의 시간, 휴식이 필요함(W1, W3, W5, W6, W7, W9, W10)
마음이 떠남(정서적 이혼)	감정의 변화	모든 정이 떨어짐(W1, W2, W3, W4, W6, W7, W8, W10), 남편에 대한 두려움(W8, W9, W10)
	결혼의 의미 상실	함께 살 의미가 없음(W1, W2, W3, W4, W5, W6, W8), 미래에 희망이 없음(W2, W6, W7, W8, W9, W10)
부부 성생활	성관계 거부/단절	성관계를 회피 및 거부함(W1, W2, W3, W4, W5, W6, W7, W8, W9, W10)
	성욕저하	성욕이 저하됨(W1, W2, W3, W4, W6, W7, W8, W9, W10)
	일방적 성관계	컨디션에 상관없이 성관계를 원함(W1, W7, W10), 성관계 시 분위기가 없음(W1, W2, W3)
의사소통방식	대화 회피/단절	대화 회피 및 단절됨(W1, W2, W3, W5, W6, W7, W8, W9, W10), 메신저로 대화함(W4)
	비난/상처 주는 대화	무시, 비난, 욕설, 모욕적인 말, 폭언함(W1, W2, W5, W6, W7, W8, W9, W10)
	지지/공감적 소통의 부재	공감, 따뜻한 말을 하지 않음(W1, W2, W3, W4, W5, W6, W7, W8, W9, W10)
갈등해결방식	임시방편의 해결	나아질 거라는 기대로 넘김(W1, W2, W7, W8, W9), 순간을 모면하려함(W6, W10)
	극단적 행동/폭력적 다툼	점점 극단적으로 싸움(W1, W2, W4, W5, W6, W7, W8, W9, W10), 부부싸움 후 내쫓거나 가출함(W1, W2, W3, W4, W5, W6, W7, W8, W10), 제 3자가 갈등에 개입함(W2, W4, W5, W7, W8, W10)
	원가족의 갈등 개입	전문기관의 상담이 여의치 않음(W3, W5, W6, W7, W8), 주변의 조언을 들

		음(W1, W2, W10)
혼자라는 생각/느낌 (외로움)	신뢰를 잃음	믿음과 신뢰가 사라짐(W1, W2, W3, W4, W5, W6, W7, W8, W10)
	부부애가 없음	부부의 의리와 정이 없음(W1, W3, W4, W5, W6, W7, W8, W9, W10), 여자로서 대우받지 못함(W1, W2, W3, W5, W6, W8)
	의지되지 않음	내 편, 내 사람으로 의지되지 않음(W1, W2, W3, W4, W5, W6, W7, W8, W9, W10)
법적 이혼실행	의도적 별침/별거	가출 후 별거함(W1, W2, W3, W4, W7, W8, W10), 싸운 후 각방을 사용함(W2, W5, W6, W9)
	법적 이혼절차를 밟음	법적 이혼 절차를 밟음(W1, W2, W3, W4, W5, W6, W7, W8, W9, W10)

(1) 준비 없는 결혼

본 연구의 대상자 부부들 중 5쌍(부부 1, 2, 6, 8, 10)은 결혼 전 동거를 먼저 시작하여 자연스럽게 결혼을 하게 된 경우이고 부부 5쌍(부부 4, 5, 6, 7, 8)은 연애 중 혼전 임신을 하여 결혼을 하게 된 경우였다. 이들 부부들의 대부분은 '혼전 임신'이라는 상황에 떠밀려 결혼을 하거나 '혼전동거'를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결혼으로 이어진 경우로 연애 중 결혼을 약속하고 구체적으로 결혼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과정이 생략된 특징을 보인다. 또한 이들 부부들의 동거 혹은 혼전임신의 시기는 연애 초기에 이루어진 경우로 좋은 감정에만 이끌려 배우자를 선택하였고, 감정에 따라 서둘러 결혼에 이르렀다. 남편들의 경우 본 범주는 '혼전 동거함', '혼전임신으로 결혼함', '결혼적령기가 됨', '본가에서 결혼을 원함', '챙겨주고 의지하고 싶음', '모든 면이 좋음', '결혼상대로 적당함', '이른 나이에 결혼함', '짧은 연애를 함', '사회, 경제적 기반이 준비되지 않음'의 개념에서 더 추상적인 '상황에 떠밀림', '좋은

감정만 생각함', '서두른 결혼'이라는 하위범주로 도출된 후 '준비 없는 결혼'으로 범주화하였다. 아내들의 경우 본 범주는 '혼전 동거함', '혼전 임신으로 결혼함', '남편이 결혼적령기라 결혼함', '결혼상대로 적당함', '모든 면이 좋음', '나를 아껴준다고 느낌', '듬직해서 기댈 수 있을 것 같음', '짧은 연애를 함', '이른 나이에 결혼함', '부모가 반대하는 결혼을 서두름'의 개념에서 더 추상적인 '상황에 떠밀림', '좋은 감정만 생각함', '서두른 결혼'이라는 하위범주로 도출된 후 '준비 없는 결혼'으로 범주화하였다.

◉ 혼전 동거함

연애는 6개월도 안하고 빨리 결혼했어요. 혼자 살고 있으니까...연애를 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동거처럼 되고. 그리고 사람들 구설수에 오르는 게 싫더라구요. 그런 게 좀 싫고 뭐 미친 듯이 좋아서 했나보죠 뭐.(아내 1)

연애한지 5개월 만에 동거한 거 같아요. 동거를 10개월 정도 하고 결혼했어요. 그때는 좋은 마음에 동거했고 결혼을 했는데...그때도 동거하면서 남편과 사는 걸 힘들어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주변에서 그러더라구요.(아내 2)

결혼 전에 동거를 좀 했어요. 거의 만나고 바로. 아내가 혼자 살고 있어서 같이 있다가 점점 거기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고 같이 살게 됐어요.(남편 10)

◉ 혼전임신으로 결혼함

사귄지 한 4개월 만에 임신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좋은 감정을 갖고 있고 했으니까 아버지가 반대하는 결혼을 했어요.(아내 8)

사귄지 100일 만에 애가 생겨서 지우자고 했는데 아내가 절대 못 지운다고 했어요. 그때 당시에 와이프가 나이도 좀 있고 저도 와이프가 좋은 사람같고 해서 결혼을 했어요.(남편 6)

◉ 결혼적령기가 됨

일 년 연애를 하다가 자연스럽게....저희 집에서는 반대를 하기는 했는데...상대방이 나이가 많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결혼 얘기로 흘러 간 거 같아요.(아내 9)

◉ 본가에서 결혼을 원함

집에서 아버지 정년 퇴임식 전에 결혼하라고 했어요. 그때 아내랑 동거하고 있었는데 둘이서 언제 결혼하자 그런 이야기를 한 건 아니었는데...집에서 결혼하라고 하니까 그때 당시 여자 친구였던 아내에게 물었죠. 결혼할 생각 있냐. 그래서 그냥 하게 됐어요.(남편 10)

◉ 챙겨주고 의지하고 싶음

제가 부족한 거를 많이 채워줄 수 있을 거 같았어요. 제가 다 케어해 준다고 생각하고 결혼했죠.(남편 1)

와이프가 저를 좀 많이 잡아주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게 매력 있었어요. 정신적으로 잡아주고 경험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거요.(남편 6)

◉ 모든 면이 좋음

우선 외모가 날씬하기도 하고 예뻤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힘들 때였는데 그런 상황인 나를 좋다고 해주고, 제가 보기에 과분했어요.(남편 5)

남편이 돈을 잘 버는 것도 아니고, 외모가 막 그렇게 뛰어난 것도 아니고, 그냥 모르겠어요. 제가 일방적으로 좋아했던 것 같아요. 어떤 딱히 뭐가 좋았다 그렇게 말하기가 그래요.(아내 2)

남편이 말을 잘 해요. 그냥 웃기고 제가 또 한 번 마음 주면 다 주는 스타일이라 그냥 다 좋았어요.(아내 10)

◉ 결혼상대로 적당함

결혼조건이 서로 평범한 집안에 평범한 그런 사회적 조건이라던 지...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죠.(남편 3)

남편이 결혼 준비가 다 되어 있다고 했어요. 집도 있고 가게도 있고 뭐...차도 있고. 그런 거는 걱정하지 말라고 했거든요.(아내 8)

◉ 나를 아껴준다고 느낌

저한테 잘해주니까...저한테 무조건적으로 헌신했었거든요. 그래서 아이 사람이면 나를 사랑해주고 아껴주겠구나 생각했는데..(아내 5)

◉ 듬직해서 기댈 수 있을 것 같음

좀 듬직해 보였어요. 뭔가...이 사람이 나를 되게 잘 책임져서 결혼을

하더라도 듬직하고 이 사람한테 기대서 잘 살 수 있겠구나. 그렇게 멋져 보였어요.(아내 8)

의지가 되고 나이 차이가 있다 보니까 남자답고 오빠답고 그런 사람을 원해서 만나게 된 거 같아요.(아내 9)

◉ 이른 나이에 결혼함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1년 만에 남편 만나서 연애하고 동거하고 결혼을 했어요. 연애는 거의 처음이었어요.(아내 2)

◉ 짧은 연애를 함

와이를 만난 지 100일 만에 아이가 생겼어요.(남편 5)

만나고 사귄지 4개월 만에 임신을 해서 연애 기간이 짧았어요.(남편 8)

◉ 사회, 경제적 기반이 없음

외벌이에 사회 초년생이었어요. 월세로 시작했다가 애 낳고 나니까 월급에서 월세내고 나면 생활비가 빠듯했어요.(남편 4)

아버지 때문에 진 빚 갚느라 남는 게 없는 생활 중에 와이프를 만난 거에요. 회사에서는 겨우 무기 계약직이 됐고. 그래서 처음에는 와이프를 도망 다녔어요. 돈도 없고. 내 사정을 생각하면 와이를 만날 수가 없었어요.(남편 5)

◉ 부모가 반대하는 결혼을 서두름

> 부모님 허락을 받으러 갔는데 아빠는 안 된다고 반대를 많이 하셨어요. 그냥 이 사람을 봤는데 아니라고 느끼셨대요. 근데 제가 애 가졌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아빠랑 저랑 엄청 안 좋았어요. 엄마도 아닌 것 같다고 하고.(아내 8)

(2) 원가족 경험에 의한 개인요인

본 연구에서 남편들과 아내들 대부분이 결혼 전 우울, 화, 외로움, 불안, 혼란스러움 등 여러 정서적인 어려움들을 겪고 있었다고 보고하였으며 특히 아내들의 상당수에서 외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함이나 과거 원가족 경험과 관련하여 불안정하고 힘든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도피심리로 결혼을 선택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아내들이 도피심리로 결혼을 선택한 것에 비해 남편들은 원가족 경험에 따라 경제적 기반을 중심으로 어떤 가정을 이루어야 하는지, 어떤 가장이 되어야하는지에 관한 결혼관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를 위해 아내와의 감정적 교류보다는 경제적 기반을 이루는데 집중하느라 마음의 여유가 없이 결혼생활을 했다고 하였다. 더 나아가 본 연구에서 측정도구로 사용한 Young의 심리도식질문지에서 나타난 부부 각자의 심리도식은 실제로 부부들의 결혼생활에서 배우자에 대한 지각이나 태도, 결혼생활에 대한 주관적 경험에 상당한 원인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범주는 남편의 경우 '우울 및 공허함', '정서억제 및 회피함', '관심 및 인정에 대한 갈망이 높음', '화 및 충동 조절의 어려움', '온화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 원함', '경제적 기반을 갖추는데 집중함', '처벌, 유기도식, 정서적 결핍, 정서적 억제, 승인/인정추구, 자기희생도식, 질병/피해 취약성, 부족한 자기통제/자기훈련, 엄격한 기준/과잉비판, 정서적 박탈 도식'의 개념에서 더 추상적인

‘정서요인’, ‘결혼관’, ‘심리도식’이라는 하위범주로 도출되었다. 아내의 경우에는 ‘관심과 사랑이 고픔’, ‘우울 및 공허함’, ‘화 및 충동조절의 어려움’, ‘대인관계에 대한 불신 및 피해의식을 느낌’, ‘부모로부터 독립하기 원함’, ‘힘든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음’, ‘연인과의 이별 후 힘든 마음을 잊고 싶음’, ‘자기희생, 융합/미발달된 자기, 엄격한 기준/과잉비판, 부족한 자기통제/자기훈련, 정서적 박탈, 사회적 고립/소외, 불신/학대, 승인/인정추구, 특권의식/과대성, 유기, 부정성/비관주의 도식’의 개념에서 더 추상적인 ‘정서요인’, ‘도피심리’, ‘심리도식’이라는 하위범주로 도출된 후 원가족 경험에 의한 개인요인으로 범주화하였다.

◉ 우울 및 공허함

> 그때 어린 나이에 타지에서 와서 혼자 살면서 외로웠어요. 제가 외로움을 많이 탔거든요. 그래서 남편이랑 동거하고 결혼한 것도 있어요.(아내 1)

> 집에서 자랄 때 집이 답답했어요. 불편하고. 아빠는 폭력적이지 엄마는 차갑지. 못하게 하는 건 많지. 집에 있으면 우울하고 답답하고 화나고 그래서 빨리 독립하려고 외국으로 갔어요. 거기서 신랑을 만났어요.(아내 6)

◉ 정서 억제 및 회피함

> 저는 일부러 힘든 얘기를 안 해요.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면 더 힘들어질 거 같고. 힘들어지면 다 놓을 것 같아서요.(남편 1)

여태까지 제 마음은 다 누르고 참고 살았던 게 너무 억울해요. 감정을 말하면 뭐해요. 해결을 해야지. 와이프는 항상 감정을 얘기하고 싶어하는데 저는 결론, 답을 찾으려고 하죠.(남편 2)

◉ 관심 및 인정에 대한 갈망이 높음

어릴 때부터 자신감이 없었는데 커서 이성의 관심을 좀 받기 시작하면서 자신감을 회복했다고 해야 되나...저는 스킨십도 좋아하고 보듬어주고 관심가져주고 인정해주는 걸 원하는 데 아내는 그러지를 못해요. 그래서 누구라도 저한테 챙겨주고 관심 가져주면 제가 좀 넘어가는 거 같아요.(남편 10)

◉ 화 및 충동조절의 어려움

자라면서 기숙사 생활을 했어요. 그때 선배들이랑 선생님한테 많이 맞았어요. 너무 힘들어서 뛰쳐나오고 싶다고 뛰쳐나오기도 했고. 그런데 부모님은 모른 척 했어요. 다시 학교로 들어갔을 때부터 방황을 했어요. 사고도 많이 치고. 안 맞으려고 내가 강해져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많이 싸우고 때리고 방황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화를 못 참겠고. 와이프한테든 어머니한테든 화를 폭발하는 것 같아요.(남편 6)

◉ 온화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 원함

부모님이 열심히 일해서 돈 모으고 우리를 키우셔서 자수성가하셨거든요. 부모님의 영향을 받아서 경제적 기반을 닦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빚으로 시작하다 보니까 거기에 집중하느라고 아내의 마음의 살필 여유가 없었고 내 마음을 돌아볼 여유도 없었어요.(남편 1)

◉ 경제적 기반을 갖추는데 집중함

양가에서 경제적으로 지원을 받은 것도 아니고 젊은 나이에 아이는 낳았고 하니까. 주변에서 경제적 기반을 빨리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하고. 또 부모님이 자수성가 하셔서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사신 경우라 경제적인 기반을 갖추려고 노력했어요. 제가 하고 싶은 건 참고 그래도 아내가 원하는 것 정도는 해주려고 노력하면서요.(남편 2)

◉ 대인관계에 대한 불신 및 피해의식을 느낌

제가 학창시절에 친구들에게 배신당한 경험이 있어서 좀 힘들었어요. 그리고 선생님한테도 크게 맞고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 상처도 있고요. 그래서 방황을 많이 했었는데...남편도 그래서 못 믿나 싶기도 하고.(아내 4)

학창시절, 사회생활할 때도 남자에게 인기가 많아서 여자 애들과 사이가 멀어졌어요. 그래서 항상 나를 떠나지 않을까 버리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관계가 두렵고 귀찮고 피곤한 일로 느껴졌어요.(아내 7)

◉ 부모로부터 독립하기 원함

우리 집이 너무 보수적이고 아빠가 너무 요구하는 게 많고 기대도 높아서 커서부터 아빠랑 계속 부딪혔어요. 그래서 결혼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아빠랑 독립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메너리즘에 빠져서 혼란스럽고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아내 3)

사춘기 때 방황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부모님과도 사이가 안 좋았고. 특히 아빠는 욱하고 그래서 집에 있으면 불편했어요. 엄마도 그때 아빠랑 힘들게 살았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그것도 잘 안되고 의지도 별로 없었던 것 같고. 그래서 집을 나오고 싶었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된 것도 있는 것 같아요.(아내 4)

◉ 힘든 생활에서 벗어나고 싶음

어디를 가나 항상 외롭고 혼란스러웠어요. 아는 사람도 없고. 혼자 붕 떠 있는 느낌이고 존재감도 없고. 그때 남편을 만났는데 주변에 친구도 없고 혼자여서 처음에는 친구처럼 만나다 보니 임신을 해서 결혼하게 됐어요.(아내 8)

엄마가 결혼생활 내내 능력 없고 책임감 없는 아빠 때문에 힘들게 살았고 결국 이혼했어요. 경제적인 것 때문에 제가 빨리 독립해서 돈을 벌고 엄마도 도와드리고 했는데...남편이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굶어 죽지는 않겠다는 생각을 했고, 빨리 안정될 수 있을 것 같았어요.(아내 9)

◉ 연인과의 이별 후 힘든 마음을 잊고 싶음

전에 사귀던 남자친구랑 에어져가지고 제가 많이 마음이 안 좋았던 상태에서 만나가지고. 그때 이 사람 저사람 막 만나고 그랬거든요.(아내 5)

남편이 처음에 마음에 든 건 아니었고 그때 당시에 이전 남자친구랑 헤어진 지 얼마 안 됐었어요. 그 전 남자친구 전에도 사실 연애를 많이 안 해봤었기 때문에 그냥 뭐 아무나 만나보자 이런 생각이었어요.(아내 7)

◉ 심리도식

와이프가 저를 조금만 더 신경을 써 주는 티를 냈더라면 (서운함을) 금방 풀고 잘 할 수 있었는데. 와이프는 내 감정을 살펴주지 않고 안중에도 없어요. (중략) 나는 힘들 때 누구한테 기댈까...와이프는 아닌 거죠. 힘든 마음을 하소연 하고 싶은데 받아주기는 커녕 내쳐요. 쉬는 날 만이라도 날 신경써줬으면 하는데 속마음을 말할 사람도 없고. (중략) 제가 엄청 힘들 때도 친구들을 저를 걱정하는 문자를 보내는데 와이프는 아무 것도 없더라고요. 와이프랑 이렇게는 못 살겠다 싶더라고요. 딱 죽고 싶었어요. 우울하고 살 희망이 없어서요.(남편 4: 정서적 결핍, 질병/피해에 대한 취약성 도식)

결혼 전에 아버지가 사업을 하다가 망해서 신용불량자가 되니까 제 이름으로 또 빚을 진 거에요. 어린 나이에 직업도 마땅치 않고 빚을 변제하는 게 너무 버거워서 어머니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돈을 빌려준 제가 잘못이라고 오히려 (저를) 탓하더라고요. 그때 혹시나 했던 믿음이 깨지더라고요. 세상에 버려진 느낌이 들고 살 희망이 없더라고요. 정말 나를 보호해줄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구나 싶더라고요.(남편 5: 유기도식)

나를 무시하고 비아냥거리는 말투, 행동, 표정을 보면 순간 욱해서 욕하고 언성을 높이게 돼요. 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 해서는 안 될, 도가 지나친 그런 대우를 나에게 하는 유일한 사람이에요. (그런 행동을) 하지 말아야 가장 중요한 사람이 그런 대우를 하니까 이제는 겁을 줘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잘못한 것을 깨닫게 해야겠다. 똑같이 수모를 겪게 해야겠다 싶고. 또 한 번 욱하면 자제가 안 되고. 와이프는 저를 꼭 건드리고 폭발하도록 자극해요.(남편 6: 처벌도식)

결혼 전 방황하던 시기에 고립되어 지냈어요. 나보다 나를 더 존중해주는 사람, 자존감을 살려주는 사람 같아서 남편에 대한 신뢰가 높았어요. 그런데 살면서 저는 희생을 강요당하는 느낌이 들고 고립되고 외로운 느낌이 많았어요. 남편이 냉소적인 표정을 하면 자존감이 무너지고 우울해지죠. 마치 나와 상관없다는 듯이...발을 빼고 뒤로 물러나는 것 같은. 삼자처럼 얘기해요. 혼자 울고 있는 나를 거들떠보지도 않으니까 버려진 느낌이 들고 비참하죠. 저는 남편에게 매달려서 함께 웃을 수 있고 함께 의지하고 가까이 있는 그런 관계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히려 버림받았어요.(W3: 융합/미발달된 자기)"

남편이 저랑 싸운 뒤에 시어머니랑 문자를 주고받았더라고요. 저한테는 편드는 아닌 척 하더니 또 둘이 붙어먹었구나. 역시 그렇구나. 나만 내 쫓긴 기분이 드니까 열이 받는 거예요. 또 겉으로 쇼했구나. 저는 그래도 남편이 제 편에서 좀 희생을 해줬다고 생각해서 고부 갈등을 버텼는데 그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겉으로 쇼한 거였어요. 내편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아내 4: 불신/학대도식)

남편의 말투에서 (나를) 비난하고 구박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하나...자존감이 내려가고, 화나고 용서가 안 되고. 그래서 그만 살자. 못 살겠다 생각했죠. 호강하고 살려고 큰 기대를 하고 한 결혼이 아니라 그냥 서로 이해하면서 함께 해쳐나가면서 그렇게 살고 싶었는데 이제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져서 너무 상실감이 크고 슬프고 공허하고 허탈해요. 나는 두고 친구랑 붙어먹으면서 술만 먹는 거예요. 안 들어오고 연락도 않고.(아내 6: 정서적 박탈, 불신/학대도식)

(3) 경제적 문제

경제적 문제는 결혼생활 동안 부부들이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힘들었던

상황과 부부 간의 경제관념의 차이로 인한 갈등 경험을 의미한다. 부부들에게서 본 범주는 '경제관이 다름', '경제적 압박이 큼'의 개념에서 더 추상적인 '경제관념의 차이', '경제적 부담/압박감'이라는 하위범주로 도출된 후 경제적 문제로 범주화하였다.

◉ 경제관이 다름

와이프는 우리 형편에 맞지 않은 것들을 자꾸 사요. 고가의 가전제품이나 아이들 용품 같은 것들이요. 그러면 저는 할부금을 메우느라 또 너무 힘든 거죠.(남편 4)

남편은 푼돈을 너무 잘 쓰는 거예요. 지갑에 현금을 넣고 다니면 이래저래 나도 모르게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저한테 자꾸 돈을 쓴다고 그러는 거에요.(아내 4)

◉ 경제적 여유가 없고 압박이 큼

결혼하고 바로 집을 사느라 대출금 때문에 힘들었어요. 원금 갚아야되지 이자 내야하지...그래서 육아, 집안일, 회사일하며 빚 갚느라 열심히 했죠. 근데 그런 고생을 제일 알아줘야하는 남편이 제가 집을 사자고 했기 때문에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내가 사자고 했지...내가 책임지자 그러면서 혼자서 꾸역꾸역 버틴 거예요.(아내 1)

결혼할 때 반 지하 월세에서 시작했어요. 임신해서 반 지하에 있는 와이프가 불쌍해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았는데 와이프가 그 돈을 상의없이 써버렸어요. 그때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아무 것도 하기 싫더라고요. 그때부터 와이프한테 함부로 했어요.(남편 6)

남편이 사업이 잘 안 되서 빚을 크게 졌을 때 애들도 힘들고 먹을 것도 없고 장을 볼 돈도 없고...여기 저기 돈을 빌려야 될 형편이었는데...경제적으로 제가 일을 해야 되는 데 애들 둘 데리고 어떻게 일을 하나 싶기도 하고 앞이 막막했어요. 그때 이혼할까 했는데 남편을 한 번 더 믿어 보기로 했어요.(아내 8)

(4) 일-가정의 다중 역할갈등

본 연구의 부부들은 1쌍을 제외한 9쌍이 학령 전기 자녀를 두고 있으면서 6쌍이 맞벌이 부부였다. 일-가정의 다중 역할갈등은 6쌍의 맞벌이 부부 뿐만 아니라 나머지 4쌍의 부부들에게서도 나타났는데, 이들 부부는 맞벌이든 아니든 주변에 정기적으로 자녀양육을 보조해줄 대상이 없는 부부들이었다. 이에 남편들은 퇴근 후 아내들의 다중역할에 대한 불평, 불만을 들으면서 역할을 요구받는 상황을 스트레스로 경험하였으며 육아 및 가정 일에 대한 도움요청이 있는데 비해 자신의 직장 일에 대해서 지원은 부족한 것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한편 맞벌이를 하는 아내들은 남편과 역할갈등을 호소하였으며 오롯이 혼자서 육아, 일, 가사를 하면서 육체적 지원을 떠나 정신적인 지원도 없는 것에 대해 지친 마음을 토로하였다. 본 범주는 남편의 경우 '육아, 가사를 힘들어 함', '아내에게 산후우울증이 옴', '육아, 가사에 대한 요구가 늘어남', '육아, 가사 문제로 자주 다툼', '다중 역할 요구로 마음 편히 일을 할 수 없음', '직장 일로 힘든 것에 대한 배려가 없음'의 개념에서 더 추상적인 '육아, 가사에 대한 불평, 불만이 많음', '퇴근 후 육아, 가사에 대한 요구가 늘어남', '내 일에 대한 지원 없음'이라는 하위범주로 도출되었고, 아내는 개념에서 '남편의 육아협조 부족으로 자주 다툼', '다중역할 스트레스가 한 번에 몰려옴', '참고 살아보려는 노력이 출산 후 힘에 부침',

‘출산 후 개인생활, 부부시간이 없음’, ‘산후우울증이 옴’, ‘양가 부모의 육아 지원이 없음’의 개념에서 더 추상적인 ‘남편과의 역할갈등’, ‘다중역할로 인한 고충’이라는 하위범주로 도출된 후 일-가정의 다중 역할갈등으로 범주화하였다.

◉ 육아, 가사를 힘들어함

> 와이프는 아침부터 얼굴에 짜증이 가득해요. 애들 옷 입히면서 소리지르고 설거지 하면서 쿵쿵대고. 그러면 아침부터 얼마나 눈치가 보이는지...아침부터 예민하고 안 좋은 기분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힘든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저도 해봤거든요. 저는 그렇게 안 힘들던데.(남편 6)

◉ 육아, 가사에 대한 요구가 늘어남

> 저는 집에서는 화장실에 있는 시간이 제일 편해요. 그리고 출근길이 제일 편하고요. 오로지 나만을 위한 시간이에요. 집에 가면 해야 할 일이 쌓여있거든요. 저를 반기기보다 할 일을 먼저 말해요. 마치 갈아야 할 밭이 저만큼인데 니가 쉬려고 하냐 뭐 그런 느낌이에요.(남편 3)

> 퇴근하면 반기지도 않아요. 벌써부터 뭘 시킬까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들어오자마자 다다다다 요구하는 거예요.(남편 6)

◉ 마음 편히 일을 할 수 없음

> 제가 아이 픽업하는 거나 가사 일을 많이 돕고 있었는데 하루는 진급 시험이 다 되어서 휴가 내고 공부를 하러 가는데 또 일을 시킬 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일하러 나가는 것처럼 나왔는데 그걸 와이프가 알게 된 거에요. 그래서 엄청 화를 내는데...아...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하나...섭섭하고 화나고 힘이 쫙 빠지는 거예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하는 것도 아닌데.(남편 2)

◉ 직장일로 힘든 것에 대한 배려가 없음

와이프는 애한테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일하고 오면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은 일도 이야기하고 싶고. 풀고 싶고 그런데 애한테만 매달려서 저한테는 관심도 없는 거죠. 자기도 힘들다고 이야기도 못 꺼내게 하더라고요.(남편 9)

◉ 다중역할 스트레스가 한 번에 몰려옴

결혼하고 바로 집을 사고 애가 생기고 그래서 대출이며 육아며 힘든 게 빨리 한꺼번에 확 몰려 온 거 같아요. 경제적인 부분도 그렇고 육아도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육아도 힘들고 돈이 없으니까 맞벌이도 해야 되고 애 데려와서 씻기고 청소하고 밥하고 빨래하고...그런 거 있잖아요.(아내 1)

어쨌든 남편이 벌어오는 걸로는 생활이 안 되니까 일을 해야 했어요. 제가 일을 함으로써 내가 조금 편해지거나 이런 거는 아니고 애 키우는 것도 혼자 해야 하고 집안일도 해야 하고 그렇잖아요. 그냥 포기하고 살았어요. 아이 낳고 나서 힘들어진 거 같아요.(아내 10)

◉ 남편의 육아협조 부족으로 자주 다툼

남편이랑 제가 근무 시간이 좀 달라서 자다가도 일어나서 남편 밥 차려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가면 갈수록 점점 힘이 부치는 것에요. 그래서 나중에 밥 해놓고 나서 챙겨서 먹으라고 했는데 그것도 불만을 가지고 그래서 다시 반항적으로 차려주고 그랬더니 나중에는 밖에서 사와서 먹더라고요. 육아를 잘 도와주지도 않고. 그런 걸로 엄청 싸웠어요.(아내 1)

◉ 참고 살아보려는 노력이 출산 후 힘에 부침

예전에는 힘들어도 참아지던 것들이 출산을 하고 나니까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요. 참아지지가 않아요.(아내 1, 2,)

◉ 출산 후 개인생활, 부부의 시간이 없음

혼자만의 휴식이 필요했어요. 아무래도 애기 봐 줄 사람도 없고 저 혼자 다 했으니까. 혼자 애 키우면서 힘들었어요. 남편은 주말에도 늦잠 자느라 생활패턴이 맞지 않아서 자는 동안 저는 애기랑 둘이서 나가서 밖에 야외활동하고 남편은 집에서 혼자 계속 자고.(아내 5)

◉ 산후우울증을 겪음

집안 생활도 그렇고 사회생활도 그렇고 애기 문제도 그렇고...문제가 많아서 힘도 듣고 불만도 많았는데...그 사람이랑 얘기하고 있으면 진짜 죽고 싶을 정도로 답답하고. 그냥 그랬구나 그러면 되는데...위로도 안 되지 힘도 들지. 정말 창문으로 뛰어내려 죽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아내 2)

그때 산후우울증이 온 거 같았어요. 남편한테 산후우울증인 것 같다고 했더니 정신병자 취급이나 하고. 그래도 어떻게 해보자고 도와 줄거라 기대했는데...남들 다 하는 육아를 왜 혼자 힘들어하냐고 하니까. 저 스스로도 육아 하나 제대로 못하고 힘들어 하는 저를 자책하고 있고.(아내 7)

출산 후에 산후우울증이 왔는데 아무도 안 알아줬어요. 원래 제가 성관계를 싫어하지는 않았는데 그때는 살이 닿는 것도 싫더라고요.(아내 10)

◉ 양가부모의 육아지원이 없음

친정은 멀리 있지 가까이에 있는 시부모님이 아이들 등, 하원만 도와주셔도 일도 하면서 아이도 볼 수 있는데 우리 형편에 일을 안 할 수는 없고 일을 하긴 해야 되는데...그래서 부탁을 드렸더니 한 달도 못하고는 허리가 아프니 다리가 아프니 하면서 못 하겠다고 하는 거에요. 그래서 일을 그만뒀어요.(아내 10)

(5) 상황에 의한 별침

연구 대상자 부부들은 대부분 결혼 후 짧은 기간 내에 출산한 경험이 있었다. 출산 후 처음에는 아이를 위해서, 일하는 남편을 위해서 각방을 사용하였지만 육아, 가사일로부터 단기간에 벗어날 수 없었던 부부들은 각방을 사용하는 시간들이 지속되면서 어느새 각방을 쓰는 상황이 익숙해졌다고 하였다. 부부들에게서 본 범주는 '출산 후 아이 때문에 각방을 사용함', '생활패턴이 달라 각방을 사용함'의 개념에서 더 추상적인 '출산 후 각방을 사용함'이라는 하위범주를 도출한 뒤 상황에 의한 별침으로 범주화하였다.

◉ 출산 후 아이 때문에 각방을 사용함

아이 낳고 각방을 썼어요. 아이도 재워야 하고 남편은 늦게 들어오고 또 술 먹고 들어올 때도 있고 하니까 아이 때매 따로 잤죠.(아내 5)

와이프는 애들이랑 자고 저는 혼자 거실에서 자던 가 작은 방에서 자던가 했어요.(남편 6)

◉ 생활 패턴이 달라 각방을 사용함

와이프가 출산하고 나서 허리가 아팠어요. 허리가 아프니까 침대 방을 써야한다고 해서 방을 따로 썼죠.(남편 1)

아이도 재워야하고 신랑이랑 제가 근무시간이 다르기도 해서 각방을 썼어요.(아내 2)

남편은 퇴근하고 오면 개인 시간 가져야 되고 저는 애도 재워야 하고 해서 따로 잤어요.(아내 5, 아내 7)

(6) 지속하는 부부문제

지속하는 부부문제는 결혼생활 동안 크든 작든 장기간 잔존해온 부부 문제를 의미한다. 부부들은 지속적으로 부부 사이의 갈등을 무시하고 묵인해 왔으며 갈등을 무시하고 묵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대화를 회피하였으며 결국 대화가 단절된 상태가 지속되었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면서 부부들은 몸과 마음이 지쳐 갈등회복에 대한 의지가 상실되는 양상을 보였다. 본 범주는 ‘문제가 표면화되는 것을 피함’, ‘해결 방법이 없어 묵인함’, ‘감정싸움이

싫어 대화를 피함', '사소한 일에 싸인 감정이 폭발함', '몸과 마음이 지침'의 개념에서 더 추상적인 '갈등 무시/묵인', '대화 회피/단절', '몸과 마음이 지침'이 하위범주로 도출된 후 지속하는 부부문제로 범주화하였다.

◉ 문제가 표면화되는 것을 피함

> 얘기 해봐야 싸움만 되니까 그냥 참고 넘기는 거죠. 힘든 거 얘기해봐야 마음만 더 힘들어지니까요.(남편 1)

> 남편은 두루뭉술, 얼렁뚱땅 넘기려 하는 타입이에요. 복잡한 거 싫으니까 바로 바로 잊어버려요. 아주 단순하게. 습관이 됐어요.(아내 6)

◉ 해결 방법이 없어 묵인함

> 항상 말로는 져요. 울면 지는 거니까. 참고 살았죠. 그냥 모른 척 했어요. 좋게 생각하고 넘기고요. 기분이 안 좋아도 방법이 없으니까. 와이프가 하는 행동이 못 마땅하고 안 그랬으면 좋겠지만 그냥 두는 거죠.(남편 1)

> 해결이 안 되고 반복되는 상황이 오래되다 보니까 덮어두고 가는 느낌이 있어요. 그냥 넘어가는 거지 풀려서 종결되는 게 아니죠.(아내 6)

◉ 감정싸움이 싫어 대화를 피함

> 언쟁하기 싫으니까 또 두고 보고 또 이제는 말을 안 해요. 싸우면 크게 싸우니까 피곤해지죠. 그냥 피하게 되는 거죠.(아내 6)

◉ 사소한 일에 싸인 감정이 폭발함

아이 밥 먹이는 문제로 싸워서 폭언하고 별거를 했어요.(아내 1)

큰 것보다는 이제 사소한 걸로 싸우고 점점 욕설이 심해지고 고쳐지지 않았어요.(아내 6)

어느 순간 사소한 잘못까지도 화를 내는 거예요.(남편 7)

서로 감정을 풀지 않고 참고 쌓아두다 보니까 이제는 행동 하나하나가 못 마땅해서 화를 내게 되더라구요.(남편 10)

◉ 몸과 마음이 지침

너무 힘들어져서 스스로 조절할 수 없는 상태가 됐어요. 정신적으로 너무 피폐해 져서 일상생활도 제대로 잘 안되고 시시 때때로 자꾸 울게 되고 화가 갑자기 북 받쳐 와서 아이들한테도 화를 내게 되고 기력이 너무 떨어져서 아무 것도 못하게 됐어요.(아내 3)

상대의 이야기, 마음을 들어줄 수 없을 만큼 지치고 벅차고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는 거예요.(아내 4)

사실 그렇게까지 싸울 일은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동안 제가 참고 버텨오면서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싶었던 거죠. 함께 살면 서로 더 힘들어지고 더 조절이 안 돼서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아내 7)

너무 지쳐서 이제 더 버티다가 내가 죽을 것 같다 싶었어요. 살 길을

찾아가야겠다. 이혼이 살 길이다 싶었어요.(남편 3)

결혼 생활 전반에 안정된 느낌이 없었어요. 실패다. 너무 힘들어서 모든 걸 놓고 싶었어요.(남편 5)

이렇게 살아도 행복하지 않구나. 미래에도 행복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로 감정이 터져서 얼굴만 봐도 기분이 상하고 회복하기도 힘들고요.(남편 9)

(7) 공유하는 시간의 부재

공유하는 시간의 부재는 결혼생활 동안 여가를 포함한 부부 둘 만의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과 부부 만의 유대를 느낄 만한 공동된 삶의 목표나 가치 공유를 한 경험이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연구 대상자 부부들을 부부가 함께 최소한의 시간을 보낸 경우라 하더라도 주로 그 시간을 육아나 가사 일을 하는데 집중했기 때문에 부부 만의 유대를 느낄 시간이 부족했다고 보고하였다. 특히 연구 대상자 부부들은 앞서도 언급하였듯 대부분이 동거 혹은 혼전임신으로 이른 결혼을 한 경우가 많아 결혼생활에 대한 부부 공동의 목표나 가치 공유를 할 만한 여유가 없었다고 보고하였으며, 결혼과 동시에 출산을 경험한 경우가 많아 부부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경험이 극히 부족했던 상황적 한계가 많았다고 하였다. 본 범주는 '부부 둘만의 시간이 없음', '경제상황을 공유하지 않음', '추구하는 삶이 다름', '결혼생활, 미래에 대해 공유한 경험이 없음'의 개념에서 더 추상적인 '부부 시간의 부재', '부부 공동 목표의 부재'가 하위범주로 도출된 후 공유하는 시간의 부재로 범주화하였다.

◉ 부부 둘만의 시간이 없음

육아, 집안일 할 때조차도 각자 맡은 일을 하느라 이야기를 한다든지 같이 뭔가를 한다든지 그렇게 함께 하는 시간은 없었어요.(아내 1)

공감대 형성이 안 되니까.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관심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달라서 같이 뭔가를 할 수가 없어요.(남편 9)

◉ 경제상황을 공유하지 않음

남편은 제가 돈이 얼마가 부족하다 돈이 있냐 뭐 그런 이야기를 해도 관심이 없어요. 자기는 걱정없이 쓰기만 하면 되는 건지, 나 혼자 다 책임을 지라는 건지...그러고 나서 나중에 돈 어떻게 됐냐고 묻지도 않아요. 자기 쓸 돈만 있으면 되는 거죠.(아내 1)

저는 경제적 기반을 먼저 쌓아야 된다는 생각에 계획을 하고 사는데 와이프는 그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남편 2)

◉ 추구하는 삶이 다름

저는 여행도 좀 하면서 추억도 쌓고 그러자는 쪽이거든요. 그래야 그런 추억으로 힘든 생활을 또 버티고 그러죠. 그럴 때마다 남편은 싫다고 갈 거면 혼자 가라고 하고 안 가려고 해요. 돈 아낀다고요.(아내 1)

여러 사람들과 어울리고 가족들 모임도 하고 저는 그런 걸 좋아하는데 와이프는 우리 가족만의 뭔가 틀을 만들려고 하고 다른 가족들과 어울리는 걸 싫어해요. 좀 패쇄적으로. 그러다 보니 저랑 같이 뭘 하는 게 잘 안 되

는 거예요.(남편 6)

◉ 결혼생활, 미래에 대해 공유한 경험이 없음

사실 얘기를 많이 안 해봐서 속마음은 어떤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는 잘 몰라요. 어떻게 살고 싶은지도 얘기해 본 적도 없고. 서로 잘 모르는 거죠.(남편 6)

(8) 원가족과의 문제

원가족과의 문제는 남편들에게서 발견된 범주로 자신의 원가족과 자신의 관계갈등과 아내와 자신의 원가족과의 관계갈등 문제를 의미한다. 즉 본 연구의 남편들은 결혼생활 동안 아내가 시댁에 자주 왕래하고 경조사를 챙기지 않는 것으로 인한 불만과 고부 간의 갈등을 유연하게 넘기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였다. 또한 몇몇의 남편들(남편 5, 6, 7, 8)은 자신의 원가족과 자신의 관계가 결혼 전부터 갈등 관계였으며 결혼 후에도 그러한 관계가 지속됨으로써 겪게 되는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본 범주는 '시댁의 경조사를 챙기지 않음', '고부갈등이 심함', '가족의 정서적 지원이 없음'의 개념에서 '배우자-원가족 관계갈등', '자신-원가족 관계갈등'의 하위범주를 도출한 후 원가족과의 문제로 범주화하였다.

◉ 시댁의 경조사를 챙기지 않음

와이프는 저희 엄마 생신 때도 본가에 안 갔어요. 가끔 가도 일을 전혀 안하고 시어머니가 다 해야 하고 하니까 이제는 제가 가자고도 안 해요. 어머니 눈치 보이고 미안해서요.(남편 1)

한 달에 한 번씩 가족들끼리 식사하는 자리가 있는데 와이프가 너무 안 가니까 저도 섭섭하더라고요. 물론 다 이유야 있지만 평소에는 아프지도 않던게 그럴 때는 꼭 아프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죠. 마음이 없는 것 같고.(남편 8)

◉ 고부갈등이 심함

어머니가 직설적으로 말하는 성향이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사람에 대해서 성향을 알 수 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좋아질지 알았는데 그게 안됐어요 그래도 어른인데 예의를 좀 갖춰야 되는데 어머니 계신데도 화를 내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불편하시죠.(남편 9).

와이프도 부모님이 원래 그런 분이다 마음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좀 넘기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고. 부모님은 와이프한테 상처 되는 말을 좀 안 하고 조심하면 좋겠는데 그걸 못하시더라고요. 제가 중간에서 역할을 잘 못했죠.(남편 10)

◉ 가족의 정서적 지원이 없음

저랑 와이프랑 힘들 게 사는데. 그리고 헤어지니 마니 하다가 다시 잘 살겠다고 노력하고 있는데 옆에서 뻔히 힘든 거 보면서도 아이 하나 안 봐주고 너무 신경을 안 쓰니까 저도 와이프처럼 섭섭하고 미운 마음이 들고 그렇더라고요. 어머니가 너무 하는 거 아닌가 싶고.(남편 4)

(9) 배우자 가족과의 관계

남편들과 달리 아내들에게서는 원가족보다 배우자 가족과의 관계가 새로운 범주로 발견되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이는 고부갈등뿐만 아니라 결혼 초부터 시댁관계에서 적응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가족으로 소속되지 못하고 혼자서 이질적이라는 느낌과 그에 따른 소외감을 경험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내 1, 2를 제외한 연구 대상자 아내들은 결혼 초 남편에 대한 좋은 감정으로 시댁과의 관계에서도 잘 적응하기 위해 노력하였지만 너무 다른 가족문화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경험함과 동시에 고부갈등을 비롯한 시댁과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중재하지 못하는 남편과 남편만을 감싸고 편드는 시댁 가족과의 관계에서 상처를 받고 소외되는 경험을 하였다. 본 범주는 '고부갈등이 심함', '남편이 중간역할을 못함', '일 때문에 자주 왕래 못함', '배려, 공감 받지 못함', '내 편이 없고 마음 둘 데가 없음'의 개념에서 더 추상적인 '고부갈등', '소속감 없음/소외'라는 하위범주를 도출한 뒤 배우자 가족과의 관계로 범주화하였다.

◉ 고부갈등이 심함

> 시어머니 생각만 해도 열이 받아서 악몽을 꿀 정도에요. 어른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싶고. 남편있을 때랑 없을 때 행동이 달라지는 거 있죠. 아들 편만 들고 감싸고. 저한테 그냥 이혼해주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요.(아내 4)

> 시어머니가 저한테 욕을 하고 저 때문에 아들이 변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남편이 없을 때는 더 심했어요. 남편이 있을 때랑 없을 때 말하는 게 달랐어요. 자주 싫은 소리를 했어요.(아내 9)

◉ 남편이 중간역할을 못함

시부모님이 쉬운 성격이 아니었어요. 예단 과정에서부터 너무 많이 요구해서 힘들었는데 결혼 하고 나서도 마치 맡겨 놓은 마냥 돈 적으로 바라는 게 많았어요. 게다가 말도 얼마나 함부로 하지는 매번 상처 되는 말을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아버지를 무서워했어요. 그래서 한 마디도 못하고. 시어머니는 남편만 감싸고. 남편은 내 탓만 하고.(아내 10)

◉ 일 때문에 자주 왕래 못함

일 때문에 시댁에 자주 못 가봤어요. 명절 때도 못 갈 때가 많았고. 별 말씀을 안 하셨지만 아무래도 정이 없죠.(아내 1)

◉ 배려, 공감 받지 못함

시어머니도 여자로, 아내로, 엄마로 사셨으면서 어떻게 저를 그렇게까지 이해 못해주나 하는 생각에 너무 섭섭하고 서운하더라고요.(아내 4)

집이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 때였는데 시어머니가 나 몰라라 하고 도와주지 않더라고요. 자기도 아이 키워봤으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아내 8)

자기 아들이 돈을 잘 못 벌어서 빠듯한 살림에 제가 나가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잠깐씩이라도 아이를 못 봐준다고 하니까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어떻게 자기들만 생각하나 싶으니까 너무 이해가 안 되죠.(아내 10)

◉ 내 편이 없고 마음 둘 데가 없음

> 시댁에서 남편이랑 보내는 시간도 없고 시댁에는 제 편이 하나도 없는 것 같고. 혼자 있는 것 같았어요. 마음 둘 데가 없더라고요.(아내 8)

> 남편은 제 말을 잘 들어주지 않아요. 엄마, 동생 이런 가족들 얘기는 잘 듣는데 제가 느끼기에 저는 (남편의) 가족이 아니라 그냥 동거인 이런 느낌. 그 집안에 소속되지 못하는 그냥 겉도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아내 9)

(10) 배우자 외 다른 관심에 몰입

연구 대상 부부들은 결혼과 함께 육아, 일, 가사일로 인한 고충을 겪으면서 힘든 결혼생활에 적응하느라 서로의 감정이나 마음을 살필 여유가 없었다. 남편들은 육아하느라 힘든 상황에 있는 아내들을 이해하면서도 육아에만 몰입하느라 퇴근 후 자기를 반겨주지 않는 아내들에게 서운함, 외로움, 소외를 느꼈다고 하였다. 한편 아내들은 하루 종일 혼자서 육아하며 힘들었던 하루를 남편들과 나누고 위로받고 싶었지만 남편들의 반응은 오히려 상처가 되었다. 이에 어떤 경우는 스트레스를 해소할 취미활동에 몰입함으로써, 어떤 경우에는 자신과 따뜻한 대화를 나누고 위로와 지지를 해주는 또 다른 관계를 찾아서, 어떤 경우에는 퇴근 후 술한잔하며 사람들과의 어울림을 찾게 되었다고 하였다. 본 범주는 남편들의 경우 '개인 취미활동에 빠짐', '사람들과 어울림', '회사 일에 몰두함', '외도함', '지인과 소통함', '아내가 아이에게만 몰입함'의 개념에서 더 추상적인 '개인 활동에 몰입', '다른 관계에 몰입'의 하위범주를 도출하였고, 아내들의 경우에는 '남편이 취미, 일에 몰입함', '사람들과 어울림', '육아에 몰두하며 아이를 의지함', '남편 외 사람을 의지함',

‘외도함’의 개념에서 더 추상적인 ‘개인 활동에 몰입’, ‘다른 관계에 몰입’이라는 하위범주를 도출한 후 배우자 외 다른 관심으로 범주화하였다.

◉ 개인 취미활동에 빠짐

남편이 틈만 나면 낚시를 하러 갔어요. 낚시에 빠져서 다닐 때 저는 왠만하면 나뒀어요.(아내 1, 아내 6)

금요일 밤에는 늦게 술 먹고 와서 늦게까지 TV보고 늦잠자고 혼자 만 좋은 시간을 보내는 거죠.(아내 5)

남편은 퇴근하고 집에 와서 방에 들어가서 게임만 하고 저는 육아의 연속이고 힘들었어요.(아내 7)

◉ 사람들과 어울림

퇴근하건 쉬는 날이면 저랑 애랑 지내려고 하기 보다는 친구들과 놀러 가는데 가끔 클럽도 가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좋은 남자를 만났다고 이야기하는데 정신 나갔구나 싶었어요.(남편 1)

와이프가 퇴근 하면 평판이 좋지 않은 직장 동료들과 만나서 술 마시고 늦게 오고 자제가 안됐어요.(남편 2)

사람 좋아하고 술 좋아하니까 사람들 하고 만나서 술 마시고 어울리더라고요.(아내 5)

직원들하고 술 한 잔 하면서 이야기 나누는데 물론 집안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냥 한 잔 하면서 이런 저런 그냥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풀죠. 우리나라 돈 벌어야 되는 아버지들 다 그렇지 않나요.(남편 9)

◉ 회사 일에 몰두함

회사 일에 확 몰입을 해버려요.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해서 우리 집 생활에 더 도움 되기 때문에 열심히 일 하는 거죠.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제 자신의 여유는 없어요.(남편 9)

◉ 외도함

남편이 외도한 거, 외도의 정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 혼자 애 다 케어하고 힘들 때 자기는 혼자 바람피우고 놀 거 다 놀고 그렇게 했다는 게 용서가 안 되는 거에요. 양심이 없는 거죠. 사실 외도가 직접적 문제가 됐다기 보다는 싸인 상태에서 외도 때문에 터진 거죠.(아내 10)

◉ 지인과 소통함

누나같이 대화 잘 통하고 이해잘 하는 친구가 있어요. 어릴 때부터 친한데 그 친구랑 이야기하고 나면 풀리고 해서 자주 만나서 이야기를 했어요.(남편 7)

동창 중에 잘 통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 자주 만나서 이야기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선을 넘게 됐어요.(남편 10)

직장 동료 언니들하고 자주 만나서 이야기했어요. 비교도 되고 조언도 듣고 다들 애 낳고 일하면서 비슷한 상황이라 잘 통해요. 마음도 터놓고

속도 풀리고요.(아내 2)

◉ 아내가 아이에게만 몰입함

아내는 애한테만 매달려 있어요. 육아가 힘든 건 알죠. 할 것도 많고...그래도 쉬는 날 만이라도 저를 좀 살펴줬으면 하는데...밥도 좀 챙겨주고. 그게 잘 안 되더라구요.(남편 4)

저는 왕따 같은 느낌을 받아요. 와이프랑 애랑 딱 붙어서 저는 소외감을 느끼고 외로울 때도 있죠.(남편 5)

◉ 육아에 몰두하며 아이를 의지함

남편은 제 감정을 알아주지도 않고 소통도 안 되고. 그런데 어느 날 아이가 제 감정을 알아주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의지가 되는지. 그렇게 아이를 의지해서 버텼어요. 아이가 의지되는 유일한 대상이었어요.(아내 3)

◉ 남편 외 사람을 의지함

시댁에 있으면서 답답하고 지옥 같을 때마다 친정에 자주 갔어요. 육아 도움도 받을 수 있고, 답답한 마음도 풀 수 있어서 가다 보니까 친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났어요.(아내 4)

주변에 이혼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서 이야기 하고 풀어요. 그 사람들이 남편을 아니까 이야기하면 말도 통하고 힘들게 산다고 위로도 해주고 그렇죠.(아내 9)

(11) 변화 불가능성 인지

변화 불가능성 인지는 부부 사이의 반복적인 갈등 요소들에 대해서는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였지만 개선되기 보다는 결국 악화되는 경험을 하면서 배우자의 성향, 성품, 천성, 습관은 변화지 않고 고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10쌍의 부부 모두 아내들의 이혼의사 및 요구가 완고하였던바 아내들과 달리 남편들의 경우에는 아내들의 이혼의사 및 이혼요구 의지가 더 이상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지한 경험도 포함된다. 본 범주는 남편들의 경우 '갈등의 반복과 악화를 확신함', '천성은 변하지 않음', '부모가 개입되어 돌이킬 수 없음', '이혼하려는 의지가 완강함', '이혼 시도를 여러 차례 반복함'의 개념에서 '변하지 않음', '상황을 돌이킬 수 없음', '아내의 지속적 이혼요구'로 하위범주를 도출하였고, 아내들의 경우에는 '갈등의 반복과 악화를 확신함', '천성은 변하지 않음'의 개념에서 더 추상적인 '변하지 않음'으로 하위범주를 도출한 후 변화 불가능성 인지로 범주화하였다.

◉ 갈등의 반복과 악화를 확신함

> 한 번 때리면 또 때린다고 생각해요. 부부는 때리면 끝이다. 그래서 이혼을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싶어요.(남편 6)

> 걱정이 되는 건 또 똑같은 일이 다시 반복이 됐을 때 지금은 그래도 애들 생각해서 같이 이야기하기도 하고 하는데 다시 반복이 되고 했을 때는 쉽지 않을 거 같아요. 지금은 이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을 내려놓고 지내다 보니까 좀 더 나아졌거든요. 이게 계속 유지 되지는 않을 것 같

아요.(남편 9)

◉ 천성은 변하지 않음

사람은 안 변해요. 저도 안변하고 이 사람도 안변하고. 그냥 서로 자꾸 더 힘들어지는 거 밖에 없어요.(남편 3)

남편이 외도했을 때 생각했죠. 남편 집안에 그런 문제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들었는데...그래서 이 집을 못 믿겠는 거에요. 씨가 틀려먹은 거 같은 거죠.(아내 10)

◉ 부모가 개입되어 돌이킬 수 없음

결혼 생활은 우리 둘이 하는 건데 처가에서 간섭하고 개입하니까 이제 와서 우리 둘이 잘 해보려고 해도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저는 처가에 신뢰를 잃었어요.(남편 7)

◉ 이혼하려는 의지가 완강함

애가 너무 밀쳐내니까 저도 너무 상처받는데...이걸 꼭 지켜야 할까 하는 생각도 들어서 이번에는 각오를 단단히 하고 저도 이혼을 할 마음으로...(남편 5)

◉ 이혼 시도를 여러 차례 반복함

둘째 임신 중일 때 이혼하려고 별거 하면서 지냈다가 다시 잘 해보자고 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번에 또 이혼하자고 해서 이번에는 실제로

법원까지 오게 됐어요. 더 이상은 어쩔 수 없을 거 같아요. 저도 이제 마음이 없고요.(남편 4)

제가 와이프한테 이혼한다는 소리는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싸우면서 또 하는 거예요. 싸우기만 하면 입버릇처럼 이혼하자고 해요. 실제로 하려고 간 적도 있었고요.(남편 6)

(12) 이혼 억제요인의 약화

연구 대상 부부들은 연구자와의 면담 당시에 진행 중인 법적 이혼절차 이전에도 이혼을 신청하고 절차를 밟았지만 완수하지 못한 경험이 있었다. 10쌍의 부부 중 1쌍(부부 5)은 3회의 이혼신청을 한 경험이 있으며 1쌍(부부 6)은 1회의 이혼신청을 한 경험이 있었다. 그 외 사례들은 평균 1-2회 정도의 이혼 고려와 시도 경험을 보고하였다. 이전의 이혼 고려와 이혼 시도는 법적 이혼실행으로 마무리하지 못했지만 본 연구 면담 당시에는 법적 이혼실행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하였고 연구자와 협의서 작성도 마무리하였다. 이들은 부부가 싸우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보다 이혼을 하는 것이 자녀들에게 더 좋을 수 있다는 생각과 함께 사회적 시선과 편견보다 자신의 삶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사회적 낙인으로부터 벗어나면서 이혼을 실행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이전에는 이혼을 만류하던 부모, 가족, 지인들의 이혼 만류 포기, 이혼 지지, 이혼 방관 등의 태도 변화로 이혼을 더욱 적극적으로 준비하게 되었으며, 특히 아내들의 경우에는 구직 및 양육비 협의 등 경제적 자립에 대한 계획이 준비되면서 법적 이혼을 실행할 수 있었다. 본 범주는 남편들의 경우 '이혼이 자녀들에게 더 좋다는 생각, 부부싸움을 보여주고 싶지 않음', '사회적 낙인으로부터 자유로움', '가족 및 지인이 이혼을 지지함'의 개념에서 더 추상적인 '이혼이 자녀에게 더 좋다는 생각',

‘사회적 낙인으로부터 자유로움’, ‘주변의 이혼지지’라는 하위범주로 도출되었으며, 아내들의 경우에는 ‘이혼이 자녀에게 더 좋을 수 있다는 생각’, ‘아이를 혼자 키울 자신이 생김’, ‘사회적 낙인으로부터 자유로움’, ‘이혼한 사람들의 삶이 좋아 보임’, ‘주변의 이혼지지’의 개념에서 더 추상적인 ‘이혼이 자녀에게 더 좋다는 생각’, ‘사회적 낙인으로부터 자유로움’, ‘주변의 이혼지지’라는 하위범주를 도출한 후 이혼 억제요인의 약화로 범주화하였다.

◉ 이혼이 자녀에게 더 좋다는 생각

> 아빠가 엄한 게 너무 싫었어요. 자라면서 아빠랑 친한 애들이 부러웠고...우리 애도 저처럼 집에서 눈치보고 자라게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리고 저는 엄마가 좀 불쌍했거든요. 참고 사는 엄마가. 제가 만약 이혼을 안 하면 우리 애들도 저랑 똑같이 엄마를 불쌍하게 볼 것 같고. 그럴 바에야 아빠 없이 제가 사랑으로 키우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요.(아내 7)

◉ 가족 및 지인이 이혼을 지지함

> 친정 부모님은 니가 행복해야 되는 거라고 신경쓰지 말라고 하시죠.(아내 1)

> 부모님은 니가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우리는 신경 쓰지 말라고 하세요.(남편 3)

> 아이도 키워주실 수 있다고 필요하면 이야기 하라고 하세요.(아내 2, 남편 9)

◉ 아이를 혼자 키울 자신이 생김

애 때문에 계속 참았는데 이제는 혼자 키울 수 있을 거 같아요.(아내 7)

아이를 혼자 키울 자신이 생겼어요. 일하면서 돈도 조금씩 벌면 되고 어차피 지금까지 혼자 키웠으니까 못 할 건 없죠.(아내 10)

◉ 사회적 편견과 시선이 신경 쓰이지 않음

그런 걸 의식하고 살기에는 제 나이가 너무 어리다고 생각해요. 시선을 의식해서 쇼윈도우 부부로 살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아내 1)

사회적 시선, 낙인찍힐 게 좀 신경이 쓰였는데 이제는 그것 보다 제가 행복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괜찮더라고요.(남편 3)

◉ 이혼한 사람들의 삶이 좋아 보임

친정 엄마가 아빠랑 힘들게 살다가 이혼을 했는데 이혼을 하고 엄마가 너무 행복해져서 보기 좋아요.(아내 9)

(13) 새로운 삶에 대한 갈망

새로운 삶에 대한 갈망은 연구 대상 아내들에게서 도출된 범주로 아내들은 육아, 가사, 일로 정신없이 살아오면서 많이 지쳐 있었으며 나만을 위한 개인적인 시간이 없었다고 하였다. 자녀들을 어느 정도 키우고 나면 상황이 달라질 거라 막연히 기대하며 정신없는 삶을 보냈지만 자녀들이 어느 정도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나와 내 삶은 없었다고 느끼며 이제는 나를 위한 시간을 보내면서 내 삶과 나 자신을 찾고 싶다고 하였다. 본 범주는 '나 자신, 내 삶을 찾고 싶음', '혼자만의 시간과 휴식이 필요함'의 개념에서 더 추상적인 '나를 찾고 싶음', '개인 시간을 갖고 싶음'의 하위범주를 도출한 후 새로운 삶에 대한 갈망으로 범주화하였다.

◉ 나 자신과 내 삶을 찾고 싶음

저를 빨리 찾고 싶어요. 시댁, 육아에서 벗어나서 제 삶이요. 우선 심적으로 편하잖아요.(아내 9)

◉ 내 일을 찾아 사회생활을 하고 싶음

원래 하고 싶은 꿈이 있었는데 그걸 해보고 싶어요.(아내 2)

저도 이 일을 하면서 돈도 벌고 모아서 엄마한테 양육비도 좀 드리고 그러면서 아이 키우고 제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살고 싶어요. 자신감도 회복하고 여자로서 그렇게...(아내 8)

좀 더 저를 빨리 찾고 싶어요. 집안 일, 시댁에서 벗어나서 아이 키우면서 일하고 싶어요.(아내 9)

◉ 혼자만의 시간과 휴식이 필요함

애 키우느라 집안일 하느라 돈 버느라 힘들었는데 이제는 아이도 없고 집안일도 많지 않고 혼자 나와서 사니까 진짜 쉬는 거 같더라고요. 이렇게 살고 싶어요.(아내 1)

혼자 보내는 시간이 제일 행복했던 거 같아요. 저를 위해 저 혼자 만의 시간이요.(아내 5)

개인적인 생활을 마음 편히 하고 싶어요. 눈치 보지 않고...언제 연락 올지 몰라서 조바심 내면서 들어가고 했는데...(아내 9)

(14) 마음이 떠남(정서적 이혼)

마음이 떠남은 연구 대상 아내들에게서 도출된 범주로 이는 법적 이혼을 실행하기 전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지만 정서적으로는 이미 이혼한 상태와 같은 남편에 대한 마음의 변화를 의미한다. 아내들은 남편에 대한 '서운한 마음'에서 '화'로, '화'에서 '우울함'으로, '우울함'에서 '포기'로, '포기'에서 '무관심'한 상태로의 마음의 변화가 있었음을 보고하였다. 이에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지만 남편에 대해서는 어떠한 마음도 들지 않는 마음의 상태로 결혼이 의미가 없는, 정서적으로는 이미 이혼한 상태였다. 본 범주는 '모든 정이 떨어짐', '남편에 대한 두려움', '함께 살 의미가 없음', '미래에 희망이 없음'의 개념에서 더 추상적인 '감정의 변화', '결혼의 의미상실'이라는 하위범주를 도출한 후 마음이 떠남(정서적 이혼)으로 범주화하였다.

◉ 모든 정이 떨어짐

신랑의 마음이 궁금하지 않아요. 그 단계를 넘었어요. 사람이 밉다가 어느 순간 무관심지죠. 미운 정도 없고 아무런 마음이 안 드는 거에요.(아내 1)

남편이 우선이었던 적이 있어요. 나랑 같이 있을 사람은 남편이니까. 근데 그게 없어지더라구요. 없어질 때의 상실감이 너무 힘들었어요. 남편을 사랑한다는 마음이 없어진다는 그 슬픔 있잖아요.(아내 6)

남편에 대한 마음은 진작부터 없었어요. 근데 항상 안쓰러움이 남아 있기는 했어요. 뭔가...모성애 같기도 하고. 근데 이제는 미운 것도 아니고 싫은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고 아무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정리를 해야겠다. 진짜로...(아내 10)

◉ 남편에 대한 두려움

별거하고 나서 그 사람이랑 술먹고 한 번 늦게 들어오고 해서 싸웠어요. 근데 몸싸움을 한 거예요. 그게 너무 질렸어요. 예전 남자친구도 술 문제가 있어서 난폭해지고 몸싸움해서 질렸는데 예전에 아빠도 술 먹고 난폭하게 해서 엄마가 힘들었거든요. 저도 그 부분에서 아...내가 혼자 있다가 이 사람한테 어떻게 되겠다는 느낌이 오더라구요. 너무 무서웠어요. 혼자 있으니까.(아내 8)

남편이 무서워요. 뭔가 심적으로 조이는 느낌이라고 해야 하나...집에 있으면 제 자신이 안절부절 못해요. 눈치가 보이니까 집에 있기 싫고 남편이 잘 때 집에 들어오고 싶고. 술 먹고 폭력적인 모습을 본 후부터 그러는 것 같아요.(아내 9)

요즘 집에 갈 때마다 너무 무서운 거에요. 이혼 하게 된 게 남편 입장에서는 다 제 탓이니까. 제가 이혼하자고 해서. 자기 집에서도 다 알게 될 거고. 그 원망이 다 저한테 오는 거죠. 그러다가 집 앞에서 나를 죽일까봐 길게 서 있나 살피게 되고...한 번은 너무 무서워서 집에 없는 척하느라 불을 꺼놓고 있기도 했어요.(아내 10)

◉ 함께 살 의미가 없음

이렇게 사는 거는 둘 다 마이너스인 거 같아요. 서로 힘드니까 서로 의지가 안 되니까. 별로 부부라는 생각이 안 들어서 이렇게 사는 건 의미가 없는 것 같다고 헤어지자고 하니까 동의하더라고요.(아내 5)

둘이 같이 밑바닥으로 추락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서로 맞지 않고, 어떻게 해볼 힘도 없고. 점점 거울 보듯이 서로 안 좋은 점을 닮아가고. 함께 사는 시너지가 없어요.(아내 6)

◉ 미래에 희망이 없음

남편과의 미래를 생각하면 진짜 어둡고 답이 보이지 않아요. 결국 미래에도 저는 또 혼자일 것 같고, 결국 결혼은 깨질 거 같아요.(아내 6)

남편보다 더 어려운 처지에 열심히 사는 직장 동료를 보면서 남편이랑 비교가 되더라구요. 그때부터 마음이 좀 많이 굳어졌죠. 이 사람이랑은 정말 앞으로 미래를 본다면 애들도 배울게 없을 거 같다. 그냥 막막했어요. 계속 안 좋은 일이 생길 거 같고 내가 너무 불쌍해질 것 같은 거예요.(아내 8)

(15) 부부 성생활

연구 대상 부부들의 대부분은 출산을 하면서 밤, 낮 구분이 없는 영아들을 키우고 남편의 출근에 방해가 되지 않으려는 상황적 이유로 각방을 사용하였다. 또한 상당수의 아내들이 산후우울증을 겪어 각방 사용은 자연스럽

게 부부 성생활 문제를 가져왔다. 육아로 지쳐있고 산후우울증을 겪고 있는 아내들은 출산 후 성욕이 저하되고 육체적으로 피로하여 남편들의 성관계 요구를 적극적 혹은 소극적으로 거부하였고, 남편들은 반복적 거절에 상처를 받으면서 점차 성욕이 저하되어 결국 성관계가 단절되었다. 한편 아내들은 육체적 피로와 산후우울증으로 인해 성욕이 저하된 상황에서 처음에는 소극적으로 성관계를 거부하였지만 남편들이 일방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하거나 성관계 전후의 따뜻한 대화와 같은 사전, 사후의 정서적 관계가 없는 성관계 경험으로 인해 성욕이 더욱 저하되어 결국에는 적극적인 성관계 거부 및 단절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여 부부성생활 단절에 이르는 과정에서 남편들과 아내들의 경험차이를 이해할 수 있었다. 본 범주는 남편들의 경우 '성관계를 회피 및 거부함', '성욕이 저하됨'의 개념에서 더 추상적인 '성관계 거부/단절', '성욕저하'라는 하위범주를 도출하였고, 아내들의 경우에는 '성관계 거부/단절', '성욕저하', '일방적 성관계'라는 하위범주를 도출한 후 부부성생활로 범주화하였다.

◉ 성관계를 회피 및 거부함

> 와이프가 둘째를 낳고 나 이제 당신이랑 성욕구가 없다고 했을 때 크게 충격이었어요.(남편 4)

> 성관계가 없는 것도 부부 사이를 멀어지게 한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한두 달에 한번 할까 말까였는데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느낌이 없죠. 스킨십도 없으니까 남처럼 느껴지고.(아내 7)

◉ 성욕이 저하됨

출산하고 나서 성욕이 사라졌어요.(아내 1, 5)

와이프가 계속 거부하고 피하다 보니까 저도 점점 욕구가 사라지더라고요. 지금은 뭐 불만도 없고 그래요.(남편 4, 5, 6, 8)

◉ 컨디션에 상관없이 성관계를 원함

내 컨디션과 상관없이 자기 내키는 대로 하려고 하거나 술 먹고 와서 하려고 해요. 제가 힘들다고 거부하면 그때부터 화를 내고 내 상황은 개의치 않아요.(아내 9)

◉ 성관계 시 분위기가 없음

남편은 성관계를 하기 전이나 후에 뭐가 있어야 하는데 아무 것도 없어요. 그냥 저는 방에, 자기는 거실에 누워 있다가 하자 하면 하는 거에요. 좀 대화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자기 할 거만 딱 하고 끝. 누가 하고 싶겠어요.(아내 1)

(16) 의사소통방식

의사소통방식은 결혼생활 중 발생하는 갈등 상황에서의 대화방식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상호작용 시의 대화방식도 포함되는 범주이다. 연구 대상 부부들은 갈등 상황이 아닌 일상적인 상황에서 조차 원활한 소통이 잘 되지 않았다고 하였다. 부부 간의 갈등 상황이 아닌 일상적인 상황에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기 보다는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 급급하고 특히 배우자가

힘든 마음을 표현할 때 배우자의 마음을 공감해주고 풀어주기 보다는 자신의 어려움을 늘어놓는 공허한 대화가 오고가면서 의미없게 느껴지는 대화를 피하게 되고 결국에는 대화가 단절되기에 이르렀다고 하였다. 한편 부부가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는 서로를 탓하고 비난하며 욕설이나 모욕적인 말로 상처를 주었으며 또 상처받을까 두려운 마음에 대화를 피하고 방어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본 범주는 '대화 회피 및 단절됨', '메신저로 대화함', '무시, 비난, 욕설, 모욕적인 말, 폭언함', '공감, 따뜻한 말을 하지 않음'의 개념에서 더 추상적인 '대화 회피/단절', '비난/상처주는 대화', '지지/공감적 소통의 부재'라는 하위범주를 도출한 후 의사소통방식으로 범주화하였다.

◉ 대화 회피 및 단절됨

> 항상 대화를 하다가 언성이 높아져서 싸우잖아요. 싸우고 기본이 2주를 이야기를 안 해요. 대화를 안 해요. 그럼 저는 이 상황을 풀어야하는데 불편하잖아요. 남편은 제가 하는 이야기에 대답도 안하고 그냥 퇴근하고 오면 방에 들어가고. 저는 계속 거실에 있고. 왜 이 사람이랑 살아야겠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 때 4개월 동안 말을 안 해서.(아내 2)

> 뭔가 소통하면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듣고 이렇게 된다는 의도가 다르게 전달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점점 말을 안 하게 되고.(남편 9)

◉ 메신저로 대화함

> 마주칠 시간이 잘 없다보니까 톡으로 대화를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 뭐 항상 톡으로만 대화를 했네요. 싸울 때도 톡으로 막 얘기하고. 오해가 되더라고요.(아내 4, 남편 4)

◉ 무시, 비난, 욕설, 모욕적인 말, 폭언함

와이프한테 너무 화가 나서 맨날 시비 걸고, '**~'이라고 욕하고 그랬어요.(남편 5)

도가 지나치면 무시하고 비아냥대고...'니가 그렇지 머', '정신병자냐' 부터 시작해서 별의 별 욕을 다해요.(남편 6)

◉ 공감, 따뜻한 말을 하지 않음

대화라는 게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되는데 저는 저대로 이야기하고 그 사람은 그사람 대로 이야기하고. 듣고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저는 어떤 해결보다 마음의 공유를 원했는데 같이 한다는 느낌을 갖지를 못했어요.(아내 2)

한 번은 제가 너무 우울하고 힘들어서 상담치료 같은 거 받고 싶다고 했는데 남편이 그냥 흘려버렸어요. 제가 힘든 걸 제일 많이 느꼈을 사람인데 제일 많이 느끼고 살펴줘야 할 남편이 그냥 내버려둔 거에 충격을 받았어요.(아내 9)

(17) 갈등해결방식

갈등해결방식은 결혼생활 중 부부 사이에 갈등이 발생할 경우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연구 대상 부부들의 갈등해결방식은 결혼생활 동안 변화를 보이는데 초반에는 배우자의 마음을 풀어주고 회복하려는 의지로 과도한 약속을 하거나 단순한 사과 등의 즉각적인 해결방식을 취하였다. 하

지만 실제적인 해결이 되지 않고 문제가 반복되자 욕설, 모욕적 언어, 폭언 등으로 싸우다가 이혼요구와 시도라는 극단적 행동으로 갈등을 해결하려는 시도를 보였다. 하지만 이 또한 일시적인 효과일 뿐 문제 상황이 반복되자 폭력적 다툼으로 이어지고 경찰이 개입되어 갈등이 중재되는 경험을 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폭력적 다툼의 끝에 양가 부모님이 개입되어 부부의 문제가 가족의 문제로 확대되는 돌이킬 수 없는 양상을 보였다. 한편 과반수이상의 부부들(부부 2, 3, 5, 6, 7, 8)은 부부갈등이 반복되자 전문기관에서 부부 상담과 같은 도움을 받기를 원했고 시도하려는 등 건설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모습도 보였으나 비용부담으로 진행할 수 없었다고 하였다. 본 범주는 남편의 경우 '나아질 거라는 기대로 넘김', '순간을 모면하려 함', '점점 극단적으로 싸움', '부부싸움 후 내쫓거나 가출함', '제 3자가 갈등에 개입됨', '전문기관의 상담이 여의치 않음'의 개념에서 더 추상적인 '임시방편의 해결', '극단적 행동/폭력적 다툼', '주변의 도움요청'이라는 하위범주를 도출하였고, 아내의 경우 '나아질 거라는 기대로 넘김', '순간을 모면하려 함', '점점 극단적으로 싸움', '부부싸움 후 내쫓거나 가출함', '제 3자가 갈등에 개입됨', '전문기관의 상담이 여의치 않음"주변의 조언을 들음'의 개념에서 더 추상적인 '임시방편의 해결', '극단적 행동/폭력적 다툼', '주변의 도움요청'의 하위범주를 도출한 후 갈등해결방식으로 범주화하였다.

◉ 나아질 거라는 기대로 넘김

> 술을 먹고 저한테 욕을 하고 저를 비난해도 속은 상하지만 완전한 진심은 아니겠지 생각하고 넘기려고 했어요. 항상 반성하고 후회한다고 했었으니까. 맨 정신으로 욕한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아내 7)

◉ 순간을 모면하려함

와이프가 또 화내면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려고 했어요. 그래야 그만 할 테니까요.(남편 3)

남편은 순간을 모면하려고 지키지도 못할 과한 거짓말을 했어요. 한두 번은 넘어가 줬지만 말만 했지 지킨 적이 없어요.(아내 10)

◉ 점점 극단적으로 싸움

싸울 때마다 폭언, 폭행하고 그거 때문에 또 상처받고...서로 극과 극으로, 모 아니면 도로 끝을 봐야 하는 상황이 됐어요.(아내 6)

말실수가 꼬투리가 되어 또 싸우고 싸운 후에 과음해서 대판 싸웠어요. 그렇게 부수고 깨지고 그래서 그날 경찰이 와서 끝났어요.(남편 7)

둘 다 강성이라서 굽히지 않고 끝을 봐야 되는 거예요. 남편은 제 탓하면서 뭐라고 하고 또 저는 그걸 방어하느라고 더 극단적으로 과격하게 반응하게 되는 거죠.(아내 9)

◉ 부부싸움 후 내쫓거나 가출함

남편이 저를 쫓아냈어요. 싸울 때마다 자기네 집이라고 자기 이름으로 된 집이라고. 애 데리고 친정으로 가라고 쫓아내서 매번 친정으로 갔어요. 안 나가고 버티면 더 괴롭혀서 버틸 수가 없어요.(아내 7)

와이프는 싸우고 나면 꼭 현관 비밀번호를 바꿔서 못 들어오게 해요. 그

래서 어쩔 수 없이 밖에서 자고 차에서 잘 때도 있고 며칠씩 집에 못 들어가죠.(남편 10)

◉ 제 3자가 갈등에 개입됨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양가 부모님이 오셔서 우리 이야기를 듣고 판단을 하라고 했어요. 부모님이 별거를 권해서 별거를 시작했어요.(아내 2)

이제는 서로 막말하고 치고 박고 때리는 거 폭행. 그래서 경찰이 출동한 적도 있어요. 와이프가 습관적으로 때리는 경우가 많아요.(남편 5)

◉ 전문기관의 상담이 여의치 않음

전에 그랬어요. 부부상담 한 번 받아보자고. 존중해주고 다독여주고 위로되는 그럼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집안 일 하는 여자 취급받는 것 같아서. 제 3자가 들어본다면 대화방법이 틀렸을 수도 있고 해서 제가 좀 알아봤거든요. 근데 비용이 좀 들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한테 얘기했더니 자기는 그런 것까지 받아야할 만큼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해서 못했어요.(아내 2)

상담을 받고 싶었는데 그 비용이 너무 부담이 돼서 1~2번 하고 못했어요. 그때 상담사 선생님이 벼랑 끝에 와 있다고 했는데...그걸 못 했어요.(아내 6)

◉ 주변의 조언을 들음

회사에 친하게 지내는 언니들과 퇴근 후에 술자리를 하면서 내 이야

기, 힘든 것, 소소한 갈등들을 이야기했어요. 언니들이 그거 별거 아니라고 얘기해주면 또 넘기고, 방법을 알려주면 노력해보기 했어요. 조언을 듣고 집에 와서 이야기하면 제가 얘기하는 데로 남편이 와줘야 하는데 그게 또 안 되니까...(아내 2)

주변에 남편과 저를 다 알아서 이야기 해주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저를 안쓰러워하죠. 사는 거 보고.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꼭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서가 아닌데 그 사람들 말처럼 이혼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아내 10)

(18) 삶의 의미상실

삶의 의미상실은 연구 대상 남편들에게서 도출된 범주로 부부갈등이 반복되고 아내들이 지속적으로 이혼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경험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경제활동에 대한 스트레스와 고된 삶을 살면서도 가장으로서 역할을 하려는 책임감과 의지로 버텨왔는데 아내들의 이혼요구는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가장으로서 적절한 배려와 인정, 존중을 받지 못한 경험들과 함께 육아에 몰입하는 아내들에게 사랑받지 못한 경험을 상기시키는 사건이 되었다. 이로 인해 남편들은 고되게 살아온 삶이 결국 가족, 돈, 내 삶 그 어떤 것도 남는 것이 없는 삶,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삶이 되어 버렸다고 하였다. 본 범주는 '가장, 아빠, 남편으로서 인정받지 못함', '챙기고 살펴주지 않음', '사랑받는 느낌이 없음', '좋은 엄마가 아니라 판단함', '부부의 유대가 없음', '아내가 의지대상이 되지 못함'의 개념에서 더 추상적인 '대우/인정받지 못함', '보살핌/사랑받지 못함', '배우자로서의 의미상실'이라는 하위범주를 도출한 후 삶의 의미상실로 범주화하였다.

◉ 가장, 아빠, 남편으로서 인정받지 못함

돈도 안 모아지고 애들하고 시간도 같이 못 보내고 가장으로서 반겨주는 느낌도 없고 성관계도 없어요.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왔어요. 내 존재는 뭔가...삶의 의미가 없었어요.(남편 4)

돈을 많이 벌어도 행복하지 않다고 느낄 때마다 이혼을 생각했어요. 돈을 많이 벌어도 나 자신을 위해 할 수 있는 게 없고. 아내에게 사랑받는 느낌도 없고. 아버지와 달리 행복한 가정, 온화한 가정을 꾸리고 싶었는데 그러질 못했던 것 같아요. 점점 아버지처럼 아내를 행복하게 못 해준 거 같아요. 이제는 좋은 부모로라도 남고 싶어요.(남편 9)

◉ 챙기고 살펴주지 않음

저는 계속 모았던 돈도 꺼내서 메꿔야 되고 점점 모아두는 건 더 줄어들고 애는 커가고 저도 미치겠는 거예요. 그런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상황에 일 끝나고 집에 가면 반겨주는 사람이 없어요. 힘들 때 기댈 사람이 누가 있지 하는 생각이 들고...힘든 마음을 하소연하고 싶은데 와이프는 내치고. 쉬는 날 만이라도 나를 챙겨줬으면 좋겠는데...와이프랑 이렇게 살 바에는 못 살겠다 싶더라고요.(남편 4)

◉ 사랑받는 느낌이 없음

그냥 잠자리만 피하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 자체를 피하는 걸 보고 남만도 못하지 그러니까 혼란스럽더라구요. 애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남편 7)

나를 좀 따뜻하게 챙겨주고 예뻐해 주고 이러기를 원하는데...대화도 통하고 사랑해주고 그랬으면 좋겠는데...서로 같이 사랑하고 사랑받는 그런 상황이 안 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남편 9)

◉ 좋은 엄마가 아니라 판단함

와이프는 애보다 일을 선택했어요. 애보는 것도 힘들어 하고 저한테 떠 넘기려고 해요. 애는 어린이집에 엄마가 데리러 왔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엄마는 아빠가 가라고 하지. 그러니 애한테 정이 없는 거 같아요.(남편 1)

화가 난다고 아이를 안 살피고 자기감정을 다 푸는 걸 보고 아 안 되겠구나. 도저히 못 살겠다. 아이한테 애정이 없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얘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들었어요.(남편 2)

얘는 자기 욕정을 채우려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자기 욕정이 먼저지 애가 먼저겠어요. 얘는 애도 두고 다닐 애에요.(남편 8)

◉ 부부의 유대가 없음

내 얘기를 믿어주고 나도 와이프 얘기를 믿어주고 그렇게 했어야 했는데...이해심, 배려 그런 게 없었어요. 우리만의 뭔가가 없었어요.(남편 9)

◉ 아내가 의지대상이 되지 못함

의지할 사람이 부부가 아니라 따로 있다 보니까. 나쁜 건 아니지만 서로 의지하려고 하지 않죠. 제가 의지할 만큼 그런 대상이 못 돼서 그랬

겠지만 저도 아내한테 힘든 걸 얘기해서 풀고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못 됐어요.(남편 9)

(19) 혼자라는 생각/느낌(외로움)

혼자라는 생각과 느낌은 연구 대상 아내들에게 도출된 범주로 아내들은 대부분 남편과의 관계에서 남편을 의지하고 사랑받는 관계를 원하여 결혼을 하였지만 정작 결혼생활은 남편에게 육체적, 정신적 어떤 면에서도 의지가 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남편은 자신을 여자로 보기보다는 아이의 엄마로만 보는 듯 했고 부부는 아이의 아빠와 엄마로서만 존재했던 것 같다고 하였다. 이에 결혼생활 동안 육아도 혼자, 가사도 혼자, 걱정도 혼자 하면서 내내 외로웠으며 사랑해주고 의지되는 남편으로서의 신뢰가 사라졌다고 하였다. 본 범주는 '믿음과 신뢰가 사라짐', '부부의 의리와 정이 없음', '여자로서 대우받지 못함', '내 편, 내 사람으로 의지되지 않음'의 개념에서 더 추상적인 '신뢰를 잃음', '부부애가 없음', '의지되지 않음'이라는 하위범주를 도출한 후 혼자라는 생각/느낌(외로움)으로 범주화하였다.

◉ 믿음과 신뢰가 사라짐

저는 모든 걸 혼자 알아서 해야하는. 아...이럴 때 나는 누구한테 연락해야 하지...딴 사람을 막 찾고 있어요 기댈만한 사람을. 바람을 피고 싶고 이런 게 아니라 나한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연락하면 빨리 와 줄 수 있는 사람. 그게 당연히 신랑이어야 되는데 저는 다른 누군가를 찾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더라고요.(아내 1)

시어머니랑 갈등이 심해서 말도 안 하고 지내는데 남편이 빨리 경제적

으로 독립할 수 있겠다는 믿음이 없더라고요. 남편이 참 한심해 보이고 신뢰가 안 갔어요. 아...나 혼자 어떻게든 살아야겠구나 싶었어요.(아내 4)

함께 헤쳐 나갈 것 만 같은 그런 믿음, 확신이 없어요. 나랑 너와의 믿음. 사람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죠.(아내 6)

◉ 부부의 의리와 정이 없음

혼자도 아닌데 혼자인 것처럼 살게 되니까 원망이 생기는 거에요. 혼자 사는 것도 아니고 옆에 누가 있는데 아무것도 안 도와주고. 남편은 혼자서 할 줄 아는 게 없고 저는 엄마처럼 일처리 해줘야 되고. 아..얘는 진짜 비전없다. 도저히 못하겠다 싶더라고요.(아내 4)

서로 사랑으로 사는 건 아닌 거예요. 그냥 애들이 불쌍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있는 거 뿐이었어요. 집에 같이 있으면 계속 싸우는 시간뿐인 거죠. 살도 부딪히기 싫을 정도니까 대화조차도 하기 싫고. 그냥 사는 거였어요. 5년 동안 저는 혼자라는 생각 밖에 안 들어요.(아내 9)

◉ 여자로서 대우받지 못함

남편은 와이프가 필요한 게 아니였어요. 그냥 애 봐주고 일해주고 밥해주는 종이 필요했어요. 여자로서 사랑받는 느낌이 없어요. 혼자 있는 것 같아요. 기댈 사람 없이 혼자. 허수아비와 사는 것처럼 점점 외로웠어요.(아내 1)

이 사람은 여자 취급 않고 막 대했어요. 날 귀찮아했던 거 같아요. 스킨십 원하고 할 때도 항상 등 돌리고 자고. 여자로서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신감도 많이 떨어지고. 외로워서 누군가 의지할 사람을 많이 찾았어요.(아내 8)

(20) 법적 이혼실행

법적 이혼실행은 이혼에 대한 의도와 시도에 그치지 않고 출산 후 육아를 위한 상황적 별침과 달리 이혼을 결심한 후 의도적으로 별침하거나 별거하고, 실제로 이혼을 위한 법적 절차를 밟는 경우를 의미한다. 본 범주는 '싸운 후 각방을 사용함', '가출 후 별거함', '법적 이혼절차를 밟음'의 개념에서 더 추상적인 '의도적 별침/별거', '법적 이혼실행'이라는 하위범주를 도출한 후 법적 이혼실행으로 범주화하였다.

◉ 싸운 후 각방을 사용함

돈도 없고 마땅히 갈 데가 없으니까 그냥 같이 살고 있는 거죠. 나가고 싶어도 돈 없어서 못 나가고.(아내 5)

◉ 가출 후 별거함

애 밥 먹이는 문제로 싸우다가 남편이 저한테 모욕적인 말을 해서 바로 집을 나왔어요. 나온 뒤로 자연스럽게 별거가 됐어요.(아내 1)

양가 부모님 모시고 부부 문제에 대해서 도움을 받으려고 얘기 했었는데 부모님이 그럼 잠깐 떨어져서 살아보라고 했어요. 그렇게 잠깐 친정에 와 있었는데 별거하는 동안 남편이 전혀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이혼하게 됐어요.(아내 2)

싸운 뒤에 남편이 외박을 했는데 그때 너무 편했어요. 집안 공기가 무겁지도 않고 너무 좋은 거예요. 사람이 없으면 불편하고 허전하고 해야 되는데 더 편한 걸 느끼고는 혼자 살아도 되겠다 싶었어요.(아내 6)

남편이 쫓아내서 친정으로 왔어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별거하고 이혼하게 됐어요. 예전에도 싸우면 친정에 보냈는데 제가 먼저 들어가기도 하고 친정 집에서 보내서 들어가기도 하고 했는데 이번에는 절대 안 들어가야겠다. 그냥 이혼 해야겠다 해서 이혼하게 됐어요.(아내 7)

◉ 법적 이혼절차를 밟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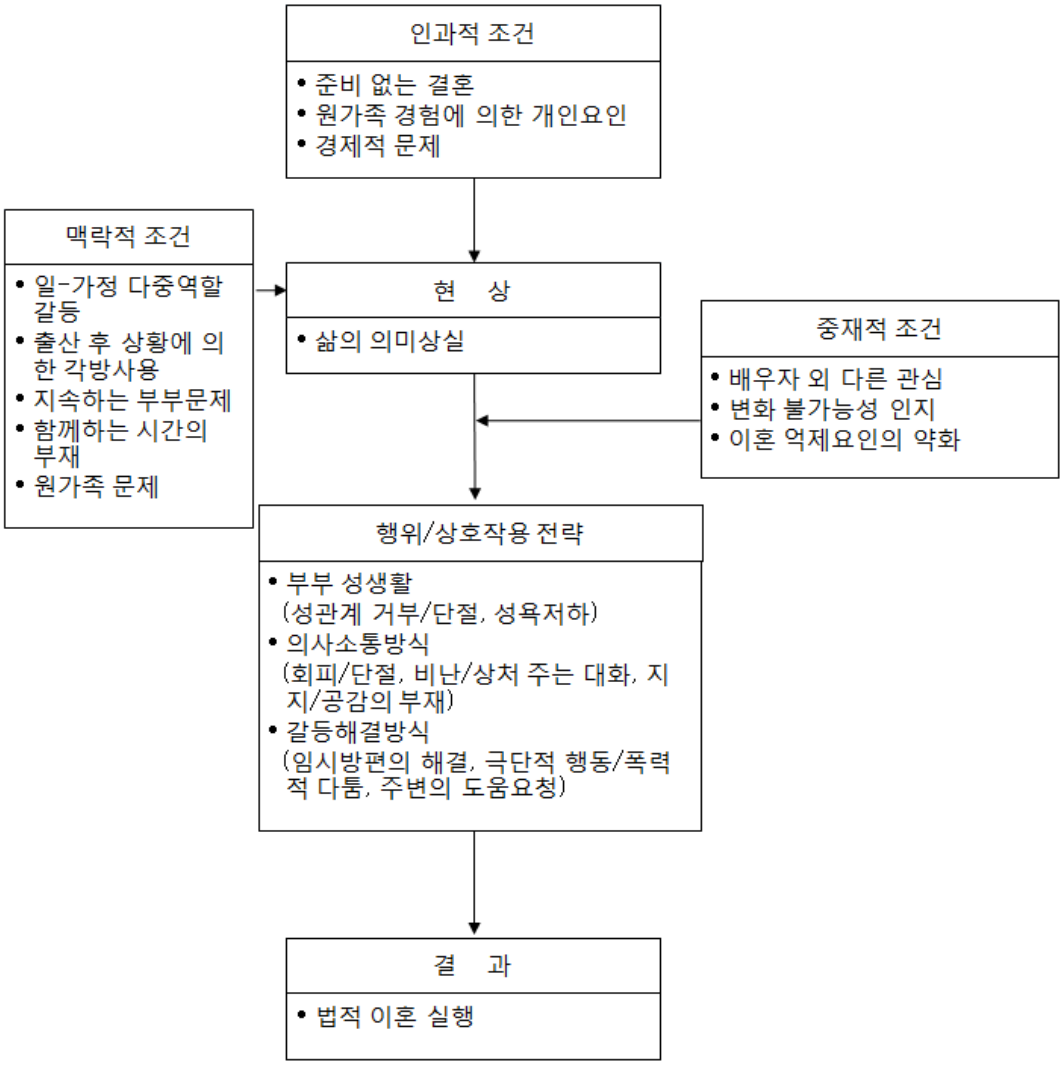
협의이혼을 하려고 이야기가 다 됐었는데 와이프가 시간을 끄는 것 같아서 소송을 했어요.(남편 3)

순간 욱하는 마음에 언성을 높이고 싸우다가 와이프가 또 이혼 소리를 하고 홧김에 그래 한 번 해봐라 싶어서 그날로 바로 법원에 서류 접수를 했어요. 싸울 때마다 입버릇처럼 말해서 해보라는 심정으로 바로 갔어요.(남편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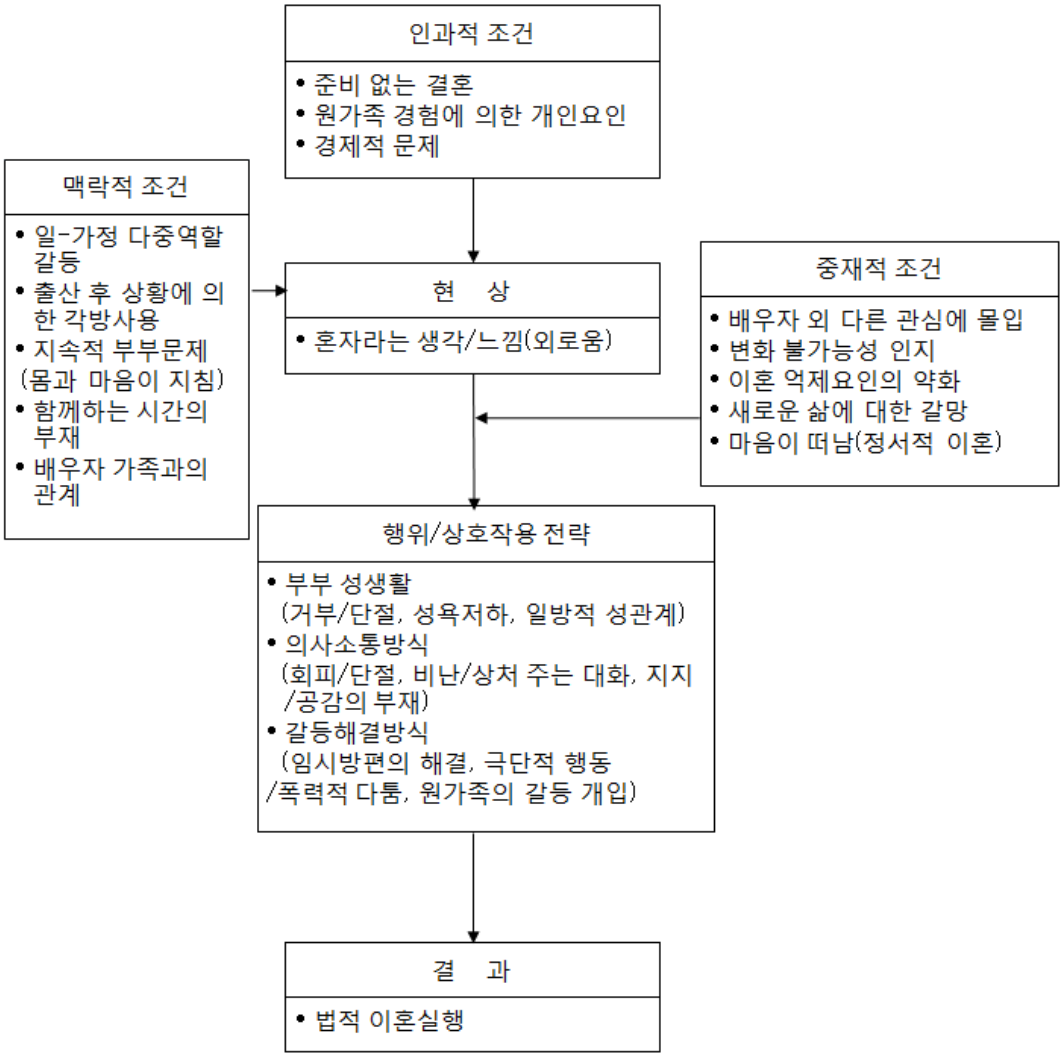
2-2. 축 코딩에 의한 범주분석

Strauss와 Corbin(2001)은 이론 생성을 위한 분석적 틀로서 패러다임(paradigm)을 제안하였는데 이는 각 범주들의 관계를 이해하고 연결하여 전체적인 과정을 구조화시킴으로써 현상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본 연구에서는 남편과 아내 각각의 부부갈등경험과 이혼실행과정이 드러나는 현상에 대해 개방 코딩을 통해 도출한 개념들과 범주들을 패러다임

요소들과 연결시켜 패러다임 모형으로 분석하였으며 패러다임 모형에 근거하여 인과적 조건, 맥락적 조건, 중재적 조건, 행위/상호작용 전략, 결과 간의 관련성은 남편과 아내 각각 다음 <도표 3>, <도표 4>와 같다.



<도표 3> 패러다임 모형(남편)



<도표 4> 패러다임 모형(아내)

1) 패러다임에 의한 범주분석

(1) 인과적 조건(causal conditions)

인과적 조건은 어떤 현상이 발생하거나 현상의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

건이나 일들로(Strauss & Corbin, 1998), '왜', '무엇 때문에' 특정 행위/상호작용의 양상이 나타났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인과적 조건을 확인하는 것은 부부갈등발생하고 이혼실행으로 나타나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부부갈등경험과 이혼실행과정에서의 부부들의 구체적인 상호작용이 나타나는 인과적 조건은 3가지로 분석되었다.

첫 번째 인과적 조건은 준비 없는 결혼으로 연구 대상 부부들은 연애 중 결혼을 약속하고 구체적으로 계획하는 등의 결혼의 준비 과정이 생략되었고, 혼전 임신 및 동거의 상황에 이끌려 결혼을 하거나 부모가 원하거나 결혼적령기가 되었다는 생각, 혹은 짧은 연애 동안의 좋은 감정만을 생각하고 결혼을 하게 되었다. 준비 없는 결혼은 결혼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범위」에 따라 전반적이냐 한정적이냐에 차이를, 혼전임신 및 동거로 결혼하였는지의 유무에 따라「유형」의 속성과 차원으로 나타낼 수 있다.

두 번째 인과적 조건은 원가족 경험에 의한 개인요인으로 이는 부부에게 공통적으로 원가족 경험에 의한 정서요인과 심리도식으로 구별되어 나뉜다. 우선 부부들은 결혼 전 부터 원가족과의 관계 문제와 관련하여 우울, 화, 외로움, 불안, 혼란스러움 등의 정서 문제를 경험하고 있었다. 또한 원가족 경험과 개인의 정서적 기질, 그리고 과거 경험에 의해 형성되는 것으로 알려진 부적응적인 심리도식이 배우자에 대한 지각이나 태도, 결혼생활에 대한 주관적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아내들의 경우에는 원가족으로 부터 벗어나려는 심리로 결혼을 하여 도피심리가 인과적 조건으로 작용한 한편, 남편들의 경우에는 원가족 경험에 따라 특정 결혼관을 가지고 있었는데 주로 경제적 기반을 이루는데 가치를 두고 집중하느라 아내와의 감정적 교류는 등한시하는 양상이 원가족 경험에 의한 개인요인으로 나타나 남편과 아내의 인과적 조건에서의 차이로 작용하였다. 원가족의 경험에 따른 개인요인은 결혼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크고 작음으로

차이를 나타낼 수 있다.

연구 대상 부부들은 대부분 그들의 부모가 높은 부부갈등을 경험하였다고 보고하였고 상당수의 부모가 이혼을 한 경험이 있었다. 즉 연구 대상자 부부들은 성장과정에서부터 정서적 결핍과 가정에서의 혼란을 경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부부들은 부모와 달리 안정적인 결혼생활을 유지하려고 무던히 노력하였지만 부모의 부부갈등이 기혼자녀의 결혼안정성에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들(서정숙, 2010, 황지인, 함경애, 천성문, 2014))과 같이 결국 연구 대상 부부들도 이혼을 경험하였다. 이에 자신들의 부부생활을 준비하기 전에 원가족 부모의 부부경험을 분석함으로써 부모의 부부경험이 자신의 결혼생활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긍적적 요인들을 파악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결혼과 부부관계에 관해 가지고 있는 역기능적인 인지를 개선하는 등 이혼을 예방할 수 있는 보호요인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세 번째 인과적 조건은 경제적 문제로 부부들은 직업적, 사회적으로 안정되기 어려운 어린 나이에 갑작스러운 결혼을 하여 경제적 기반이 갖추어 있지 않았다. 또한 출산 및 육아를 준비하는 기간이 생략된 이른 출산을 경험하여 결혼 초부터 경제적 압박과 부담감이 증폭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편과 아내 간의 경제관념의 차이는 부부갈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문제는 결혼생활 동안 부부에게 영향을 미친 경제적인 측면과 관련한 문제의 「정도」에 따라 크고 작음의 차이를 나타낼 수 있다.

<표 8> 인과적 조건의 속성과 차원

범 주	속 성	차 원
준비 없는 결혼	범위	전반적----------한정적
	유형	유----------무
원가족 경험에 의한 개인요인	영향	크다----------작다

경제적 문제	정도	크다----------작다

(2) 맥락적 조건(contexual conditions)

맥락적 조건은 어떤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나 문제가 발생하도록 하는 특수한 구조적 조건으로 현상이 나타나는 광범위한 배경조건을 말한다(Strauss & Corbin, 1998). 본 연구의 부부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맥락적 조건은 '일-가정 다중 역할갈등', '상황에 의한 별침', '지속하는 부부문제', '함께하는 시간의 부재'로 4가지이며, 남편들과 아내들에게서 각각 '원가족과의 문제'와 '배우자 가족과의 관계'로 추가적으로 나타나 차이를 나타냈다. 이들을 맥락적 조건으로 도출한 이유는 원가족 경험에 의한 개인의 정서적 문제나 심리도식, 그리고 경제문제와 같은 인과적 요인을 해결하지 못하고 심화시키는 배경요인으로 작용하여 인과적 조건들이 어느 방향으로 전개되고 해결되는지에 가변적으로 작용하여 부부갈등이 지속되고 결국 이혼으로 발전되는데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첫 번째 맥락적 조건은 일-가정 다중 역할갈등으로 맞벌이 부부이든 외벌이 부부이든 주변에 자녀양육을 보조해줄 수 있는 대상이 없는 상황에서 자녀양육과 가사, 직장 일 등의 다중 역할을 감당하면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 육체적, 심리적 고충이 누적되고 이로 인해 부부갈등이 반복되는 일상이었다(Medina, 2010). 특히 남편들은 직장에 대한 배려없이 점점 늘어나는 아내들의 자녀양육 및 가사에 요구에 대한 스트레스가 맥락적 조건으로 두드러졌으며, 아내들은 자녀양육과 가사에 더 많은 책임이 주어지는 한편 남편의 육체적, 정서적 지원이 없는 상황이 맥락적 조건으로 두드러졌다. 따라서 결혼과 가족관계에 대해 학습하고 준비하는 것이 더 안전하고 건강하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으며 특히 부모됨에 대한 준비는 건강하고 친밀한 부부

관계에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겠다(Olson, DeFraim, Olson, 2002). 일-가정 다중 역할갈등은 부부 사이에서 역할갈등이 어떠한 「강도」로 나타나느냐에 따라 강함과 약함의 차원으로 차이를 보였다.

두 번째 맥락적 조건은 상황에 의한 별침으로 부부들은 전적으로 육아를 하는 아내들과 직장생활을 하는 남편들의 생활패턴의 차이와 육아의 편의를 위해 자연스럽게 각방을 사용 하였으며, 이러한 시간들이 길어지면서 각방을 쓰는 상황에 익숙해져 결혼생활 동안 지속되었다. 상황에 의한 별침은 출산 후 상황에 따라 부부들이 별침을 하는 「기간」이 지속적이냐 일시적이냐에 따라 지속적과 일시적인 차이로 나타났다.

세 번째 맥락적 조건은 지속하는 부부문제로 부부들의 미숙한 갈등해결방식으로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이 지속되면서 갈등을 무시하고 묵인하며 대화를 회피하고 단절하였으며, 결국 부부들은 몸과 마음이 지쳐 갈등회복에 대한 의지가 상실된 상태로 장기간 결혼생활을 유지하였다. 강희숙과 양정옥(2012)의 연구에서도 부부갈등의 은폐가 맥락적 조건으로 분석된바, 부부 사이에 발생하는 갈등 자체보다는 해결하지 못한 갈등이 지속되어 온 배경이 부부문제를 심화시키는 위험요인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지속하는 부부문제는 결혼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지속되어 온 문제의 「강도」에 따라 강함과 약함으로 차이를 나타냈다.

네 번째 맥락적 조건은 공유하는 시간의 부재로 연구 대상 부부들은 여가를 포함하여 둘 만의 시간을 함께 보내거나 부부 만의 유대를 느낄만한 공동의 활동이나 관심사, 삶의 목표나 가치 등을 공유한 경험이 없었다. 특히 중심현상의 인과적 조건으로 작용하는 경제적 문제를 공유하고 협의하는 시간이 없었으며, 유일하게 육아와 가사는 부부가 함께 하였지만 이마저도 가중된 역할을 끝내는데 집중하여 서로 의미있는 대화를 하고 감정을 교류하는 시간은 극히 부족한 일상을 지속하였다. 함께하는 시간의 부재는 결혼생

활 동안 부부들이 여가 등 공유하는 시간이 얼마나 부족했는지 그「기간」에 따라 지속적과 일시적으로, 함께하는 시간이 부족했던 「영역」이 여가, 양육 등 전반적이었는지 한정적이었는지에 따라 차이를 나타냈다.

끝으로 남편들에게서만 나타난 맥락적 조건은 원가족과의 문제로 남편들은 결혼 전부터 존재했던 원가족과의 관계 갈등이 결혼 후에도 반복되었다. 아내의 고부갈등 경험도 지속되었다. 남편들은 결혼생활이 지속되는 동안 시댁에 왕래하면서 경조사를 챙기고 고부갈등을 유연하게 넘기는 등 시간이 흐름에도 원가족과의 관계에서 유연해지지 못하는 아내들에게 불만과 불평을 갖게 되었으며, 본인과 본인의 결혼생활에 대해 정서적 지원이 없는 원가족에 대한 불만도 쌓여갔다. 원가족과의 문제는 남편들이 자신의 원가족과 아내가 겪는 갈등의 「강도」에 따라 강함과 약함으로, 남편들 자신과 원가족과의 갈등이 지속되어 온 「기간」에 따라서 지속적과 일시적인 차이로 나타났다. 아내들에게서만 나타난 맥락적 조건인 배우자 가족과의 관계는 아내들의 경우에 맥락적 조건으로 작용한 범주로, 아내들은 고부갈등과 시댁문화에 적응하고 소속되지 못하며 소외되는 경험을 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남편들의 배려와 공감, 갈등 중재가 없고 부부갈등 시 시댁에서는 남편만 감싸는 편드는 경험을 하면서 상처받고 소외되었다. 배우자 가족과의 관계는 아내들의 경우에만 도출된 범주로 남편 가족들과의 관계 갈등의「강도」에 따라 강함과 약함으로, 갈등이 지속된 「기간」에 따라 지속적과 일시적인 차이로 나타났다.

<표 9> 맥락적 조건의 속성과 차원

범 주	속 성	차 원
일-가정 다중 역할갈등	강도	강함----------약함
상황에 의한 별침	기간	지속적----------일시적

지속하는 부부문제	강도	강함----------약함
공유하는 시간의 부재	기간	지속적----------일시적
	영역	전반적----------한정적
배우자 가족과의 관계	강도	강함----------약함
	기간	지속적----------일시적
원가족과의 문제	강도	강함----------약함
	기간	지속적----------일시적

(3) 중재적 조건(intervening conditions)

중재적 조건은 중심현상을 매개하거나 변화시키는 조건으로 이는 특정한 맥락적 조건에서 행한 행위/상호작용 전략을 촉진하거나 조절하도록 작용한다(Strauss & Corbin, 1998). 본 연구의 부부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배우자 외 다른 관심에 몰입', '변화 불가능성 인지', '이혼 억제요인의 약화'의 3가지가 이혼실행과정을 중재하는 조건으로 나타났으며, 아내들의 경우에는 이에 더하여 '새로운 삶에 대한 갈망', '마음이 떠남(정서적 이혼)'의 2가지가 추가로 이혼실행과정을 중재하는 조건으로 나타났다.

첫 번째 중재적 요인은 배우자 외 다른 관심에 몰입으로 부부들은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을 가지고 몰입하거나 취미활동을 비롯한 다른 활동에 몰입하였다. 남편들의 경우에는 취미활동에 빠지거나 회사 동료들과의 퇴근 후 술자리 참석이 빈번하였으나, 아내들의 경우에는 육아에 몰두하거나 육아를 중심으로 한 관계에 의지하는 경향이 있었다. 한편, 남편들과 아내들 모두에게서 이성과의 관계에 몰입하여 외도를 하는 경험은 낮았으며, 가족이나 타인에게 의지하고 그 같은 관계에 몰입함으로써 배우자와의 관계에서의 결핍을 채우는 양상이 두드러져 반드시 외도가 아니더라도 배우자 외의 다른

관계 및 활동에의 몰입은 부부갈등이 지속 및 심화에 영향을 주고 이혼실행으로 발전되는 중재적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배우자 외 다른 관심에의 몰입은 배우자 외에 다른 관계나 활동들에 관심을 갖고 몰입한 「정도」에 따라 깊음과 얕음으로, 몰입한 「기간」에 따라 지속적과 일시적으로 차이를 나타냈다.

두 번째 중재적 조건은 변화 불가능성 인지로 부부들은 갈등이 반복되고 악화되면서 자신들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고 배우자의 성격과 천성도 변하지 않으며, 이대로 결혼생활을 유지한다면 부부문제는 더 악화될 것이며 지금까지 악화된 갈등 상황은 돌이킬 수 없다는 확신을 갖게 되는 인지적 변화를 겪었다. 이는 결혼유지집단은 가정이 변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지만 이혼결정집단은 갈등해결에 회피적 태도를 지니며 가정보다는 개인의 행복이 우선으로 생각하는 가치관이 변화를 겪는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노진숙, 함경애, 김미옥, 김환구, 천성문, 2014). 이에 더하여 남편들의 경우에는 특히 아내들의 지속적인 이혼요구가 중재적 조건으로 작용하였다. 변화 불가능성 인지는 배우자의 특성이나 부부 간의 문제가 변화불가능하다고 인지하는 「정도」에 따라 강함과 약함으로 차이를 보였다.

세 번째 중재적 조건은 이혼억제요인의 약화로 자녀에 대한 걱정과 죄책감, 사회적 시선에 대한 두려움, 원가족과 주변 지인들의 이혼만류 등 기존에 이혼실행의 장애요인이었던 요인들이 약화되면서 부부들은 이혼을 실행할 수 있었다. 부부들은 자녀들에게 부부갈등을 보여주는 것보다 이혼하는 것이 더 좋다는 생각과 내 삶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사회적 낙인으로부터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게 되었고 가족 및 지인들이 이혼을 직, 간접적으로 지지하는 것으로 상황이 변하면서 이혼을 적극적으로 실행하게 되었다. 이혼 억제요인의 약화는 결혼생활 중 이혼에 대해 고려하고 시도하려 했으나 이혼을 억제시키는 요인들로 인해 이혼을 유예했던 것에서 이혼 억

제요인들의 억제 영향력이 약화된 「범위」에 따라 일반적과 한정적으로 차이를 나타냈다.

끝으로, 아내들의 경우에 추가로 나타난 2가지 중재조건은 '새로운 삶에 대한 갈망'과 '마음이 떠남'이었다. 아내들은 육아, 가사, 일로 상당히 지친 삶을 살아가면서 어느 순간부터 엄마와 아내로서가 아닌 한 개인으로서의 삶을 찾고 싶은 욕구가 강해지기 시작하였고, 육아와 가사에서 벗어나 혼자만의 쉼을 원하는 등 새로운 삶에 대한 갈망이 나타났으며. 새로운 삶에 대한 갈망은 이혼 후 새로운 삶을 원하는 「정도」에 따라 강함과 약함으로 차이를 보였다. 또한 감정과 인지의 변화도 나타났는데 남편에 대해 어떠한 감정도 들지 않는 정이 없는 상태로 감정이 변화하거나 남편에 대해 애정보다는 무서움의 감정이 경험되었고, 남편과의 결혼생활에 대한 희망과 의미가 상실되는 인지적 경험은 중재 조건으로 작용하였다. 마음이 떠남(정서적 이혼)은 남편에 대한 사랑의 마음에서 아무런 마음이 느껴지지 않는 상태로 변화한 「정도」에 따라 강함과 약함으로, 마음이 떠나 정서적으로 이혼한 것과 같은 상태가 된 「기간」에 따라 지속적과 일시적으로 차이를 나타냈다.

<표 10> 중재적 조건의 속성과 차원

범 주	속 성	차 원
배우자 외 다른 관심에 몰입	정도	깊음----------얕음
	기간	지속적----------일시적
변화 불가능성 인지	정도	강함----------약함
이혼 억제요인의 약화	범위	전반적----------특정적
새로운 삶에 대한 갈망	강도	강함----------약함
마음이 떠남(정서적 이혼)	정도	강함----------약함

기간	지속적----------일시적

(4) 행위/상호작용 전략(actions/interactions)

행위/상호작용 전략은 어떠한 현상, 문제, 상황을 일상적으로 혹은 전략적으로 다루고 조절하고 반응하는 것으로(Strauss & Corbin, 1998), 개인 혹은 집단이 보이는 의도적, 일상적 대응양상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부부들의 부부갈등이 증폭되고 이혼실행에 이르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행위/상호작용은 크게 3가지로 분석된다.

첫 번째 행위/상호작용 양상은 부부의 성생활이다. 부부들은 자녀출산과 양육의 고충이 나타나면서 각방 사용을 선택하였고 각방 사용은 자연스럽게 성생활 회피, 거부, 단절의 과정을 야기하였다. 아내들은 출산 후 피로와 산후우울증 등의 개인적인 고충으로 인하여 소극적으로 성관계를 거부하였다가 남편들이 일방적 성관계 요구나 성관계 전후의 따뜻한 대화 및 성관계 전후의 정서적 관계가 없는 성관계 경험으로 인해 적극적인 성관계 거부 및 단절에 이르는 한편, 남편들은 아내들의 반복적인 성관계 거부에 상처를 받고 성욕이 감퇴하여 결국 성관계 단절에 이르는 과정으로 상호작용하였다. 이 같은 결과는 부부의 성이 부부의 상호관계를 유지하고 성적 만족은 결혼만족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연구들과 맥을 같이 하며(김영기, 한성열, 한민, 2011; 연우석, 채규만, 2014), 더 나아가 본 연구에서는 남편들과 아내들의 성관계 경험과 상호작용의 변화와 차이를 함께 확인하였다. 부부 성생활은 부부 간의 성생활 관계에서 거부 및 단절과 성욕저하 등 성관계 문제가 지속되어 온 「기간」에 따라 지속적과 일시적인 차이를 나타낼 수 있다.

두 번째 행위/상호작용 양상은 의사소통방식에서 나타난다. 부부들은 갈

등상황이 아닌 일상적인 상황에서의 대화에서도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보다는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데 급급한 양상으로 상호작용하였다. 이에 부부는 배우자와의 대화를 공감이 없고 공허하며 의미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대화를 회피하고 단절하는 양상으로 상호작용 하기에 이르렀다. 의사소통방식은 부부 간의 의사소통 방식이 비난, 모욕적 언행, 상처를 주는 대화, 지지 및 공감이 부족한 대화 등 의사소통의 「형태」가 성숙한가 미숙한가의 차이로 나타낼 수 있다.

세 번째 행위/상호작용 양상은 갈등해결방식이다. 부부들은 결혼생활 중 갈등이 발생할 시 상호작용 양상의 변화를 보였다. 갈등 초반에는 배우자의 마음을 풀어주고 갈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배우자가 원하는 것을 즉각적으로 들어주고 사과하거나 지키지 못할 과도한 약속을 하는 식의 임시방편적인 해결을 시도하였으며, 갈등 중반에는 욕설, 모욕적 언어, 폭언으로 싸우고 배우자를 내 쫓거나 가출하는 등의 극단적인 방법으로 갈등을 해결하려는 시도를 보였으며, 갈등 후반에는 폭력적 다툼으로 원가족이 부부갈등의 중재에 나서가나 경찰이 개입되어 갈등이 중재되는 방식으로 행위/상호작용 하였다. 갈등해결방식은 부부 사이에 갈등해결방식이 극단적이고 폭력적인 방식의 「정도」에 따라 강함과 약함으로 차이를 나타내고, 부부갈등을 부부가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원가족이나 경찰 등 외부인의 관여가 있는지의 「관여도」에 따라 적극적과 소극적인 것으로 차이를 나타낼 수 있다.

<표 11> 행위/상호작용 전략의 속성과 차원

범 주	속 성	차 원
부부 성생활	기간	지속적----------일시적
의사소통방식	형태	성숙----------미숙

갈등해결방식	정도	강함----------약함
	관여도	적극적----------소극적

(5) 중심현상(phenomenon)

중심현상은 연구 대상자가 행위/상호작용 전략에 의해 조절되는 중심생각이나 사건으로(Strauss & Corbin, 1998), 본 연구에서 남편들의 이혼실행과정에서의 중심현상은 '삶의 의미상실'이며 아내들의 이혼실행과정에서의 중심현상은 '혼자라는 생각과 느낌(외로움)'으로 나타났다. 남편들에게서의 삶의 의미 상실이란 경제활동에 대한 스트레스와 고된 삶을 살면서도 가장으로서 역할을 하려는 책임감과 의지로 버텨온 결혼생활이 이혼으로 종결되면서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가장으로서 사랑받지 못하고, 적절한 배려와 인정, 존중을 받지 못하였다는 인지적 경험의 의미를 갖는다. 남편들의 중심현상으로 나타난 '삶의 의미상실'은 남편이 결혼생활을 포함한 개인적 삶에 대해 의미상실을 경험하는「정도」에 따라 강함과 약함으로 차이를 나타냈으며 삶의 의미상실을 경험하는 「범위」가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 전반적과 특정적인 차이를 나타냈다. 아내들에게 혼자라는 생각과 느낌은 남편을 의지하고 사랑받는 관계를 원하여 결혼을 하였지만 정작 결혼생활은 남편에게 의지가 되지 않고, 여자로서 보다는 아이의 엄마로만 살아온 인생으로 육아도 혼자, 가사도 혼자, 걱정도 혼자하는 외로운 삶이라는 감정적 경험의 의미를 갖는다. 아내들에게서 나타난 중심현상인 '혼자라는 생각/느낌(외로움)'은 결혼생활 동안 혼자라는 생각과 느낌을 경험한「정도」에 따라 깊음과 얕음으로 차이를 나타냈으며, 혼자라는 생각과 느낌을 얼마나 오랫동안 경험하였는가와 같은 「기간」에 따라 지속적과 일시적으로 차이를 나타냈다.

<표 12> 중심현상의 속성과 차원

범 주	속 성	차 원
삶의 의미상실	정도	강함----------약함
	범위	전반적----------특정적
혼자라는 생각/느낌(외로움)	정도	깊음----------얕음
	기간	지속적----------일시적

(6) 결과(consequences)

결과는 일정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또는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행위/상호작용 전략이 취해져서 나타나는 것이다(Strauss & Corbin, 1998). 즉 행위/상호작용으로 나타나는 결과의 양상을 기술함으로써 현상을 심층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부부들은 다른 행위/상호작용 과정을 통하여 다른 중심현상을 경험하면서 법적 이혼실행이라는 같은 결과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들은 결혼생활 중 경험하는 부부갈등 시 성관계를 회피하고 거부하는 아내들과 성관계에 대한 욕구가 점차 저하되면서 단절하고, 공허하고 의미없는 대화를 회피하며, 반복적 갈등으로 점차 부적응적인 방식의 대처로 아내와 상호작용하면서 '삶의 의미상실'을 경험하고 의도적 별침과 별거에 이어 법적 이혼을 실행하기에 이르렀다. 아내들은 출산 및 육아로 인한 고충으로 피로를 느끼며 성욕이 저하되었고 일방적인 남편과의 성관계를 회피 및 거부하였고, 공감과 위로가 없는 대화를 회피하였으며 갈등이 반복되면서 점차 부적응적인 방식으로 대응하는 남편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혼자라는 생각/느낌(외로움)'을 경험하면서 의도적 별침과 별거에 이어 법적 이혼을 실행하는 결과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도적 별침/별거'는 법적 이혼실행에 앞서 이혼의도 및 의혼시도를 위해

의도적으로 각방을 사용하거나 별거를 한 경험의 「빈도」에 따라 잦음과 드묾으로 차이를 나타냈으며 그 「기간」에 따라 지속적과 일시적으로 차이를 나타냈다. '법적 이혼실행'은 법적으로 이혼을 실행하는 것에 대해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반응하는 가와 같은 「수용」정도에 따라 적극적과 수동적으로 차이를 나타냈다. 본 연구 대상 부부들은 10쌍 모두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고 적극적으로 실행하는데 비해 남편들의 대부분(남편 2, 4, 5, 6, 7, 8, 9, 10)은 아내의 적극인 이혼요구에 수동적으로 반응하면서 법적 이혼에 이르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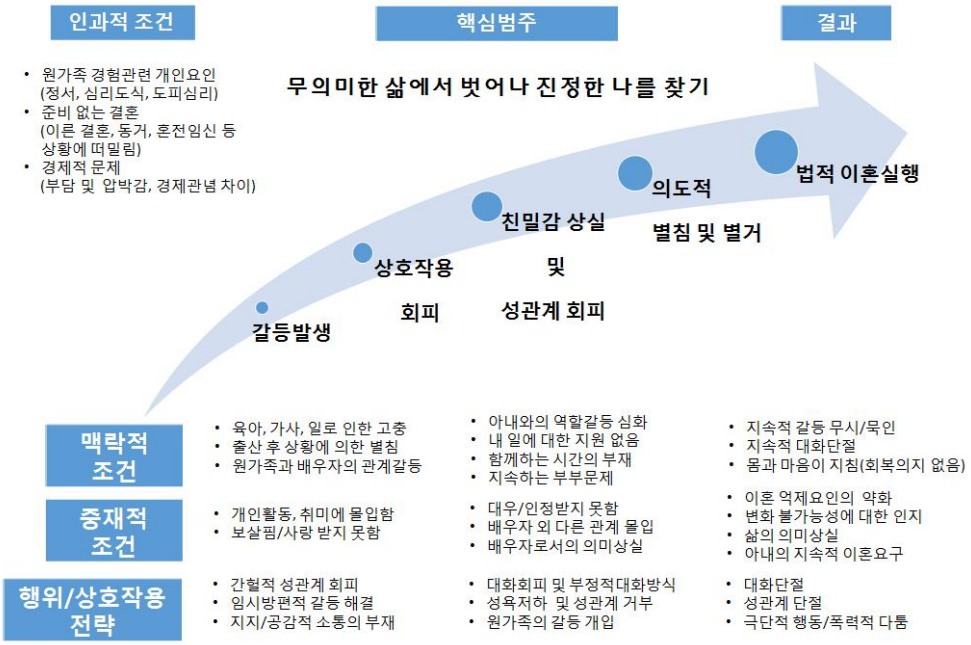
<표 13> 결과의 속성과 차원

범 주	속 성	차 원
의도적 별침/별거	빈도	잦음----------드묾
	기간	지속적----------일시적
법적 이혼실행	수용	적극적----------수동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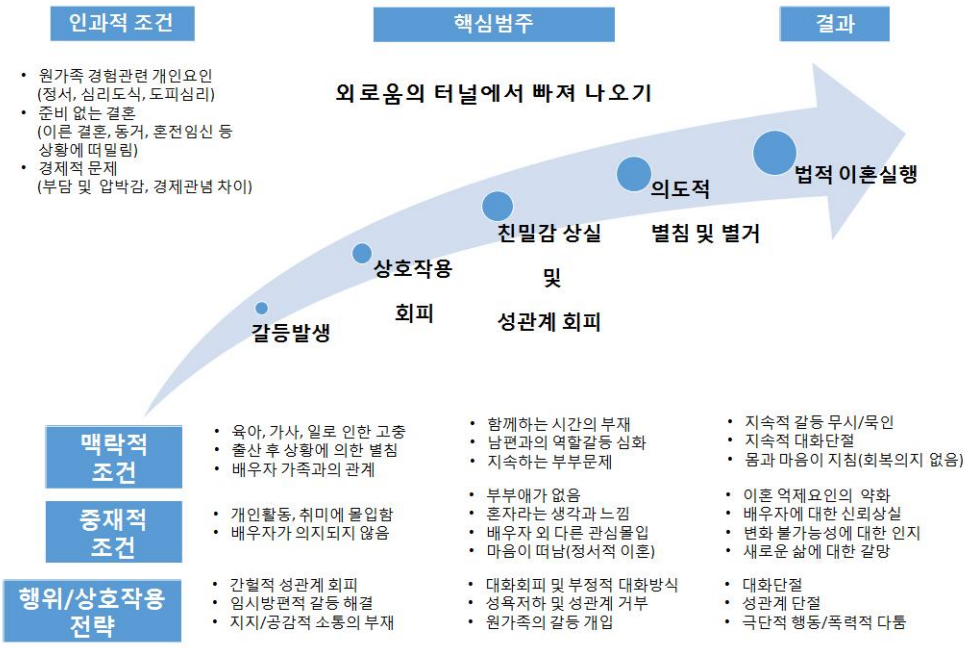
2) 부부갈등 경험 및 이혼과정분석

과정분석은 패러다임의 행위/상호작용(action/interaction)을 시간의 흐름과 공간에 따라서 추적하여 일련의 변화 과정을 순차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부부들이 부부갈등을 경험할 시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반응하는지, 그러한 과정에서 부부갈등이 어떻게 역동적으로 변화하는지, 또 부부갈등의 변화 과정에서 부부들이 본질적으로 어떤 경험을 하여 법적 이혼실행에 이르게 되는지, 남편들과 아내들의 차이는 무엇인지를 범주들의 관련성과 함께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일련의 변화 과정을 순차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을 통하여 부부갈등경험과 이혼에 관한 이론 구축의 실마

리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남편들과 아내들의 이혼과정은 5단계를 거쳐 나타났다(도표 5, 도표 6).



<도표 5> 부부갈등 경험 및 이혼실행과정(남편)



<도표 6> 부부갈등경험 및 이혼실행과정(아내)

1) 갈등발생 단계

갈등발생 단계는 부부갈등경험 및 이혼실행과정의 첫 번째 단계로, 부부가 결혼을 하고 갈등이 시작되는 단계이다.

본 연구 대상 아내들은 시댁과의 관계 갈등을 빈번히 경험하였다. 아내들은 시댁문화에 적응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댁 가족과의 관계에서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고 혼자인 느낌, 소외된 경험을 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고부갈등이 본격화되었고, 고부갈등을 적절히 중재하지 못하는 남편과의 갈등도 동반되었다.

혼전 동거 및 혼전임신에 의해 결혼을 한 부부이든 일반적 과정을 통해 결혼을 한 부부이든 간에 이른 나이에 결혼하여 첫 출산 후 육아, 가사, 일

의 다중역할로 인한 문제가 한 번에 몰려오는 경험을 하였는데, 부부들에게 첫 출산은 말 그대로 아이를 키워본 경험이 없는, 첫 경험이었고 따라서 부부들에게 혼란을 주었다. 출산 후 밤, 낮이 없는 영아를 키우면서 부부들은 하루하루 아이와 그들의 삶에 적응하기에 급급했다. 특히 아내들은 밤, 낮 없는 아이를 잘 양육하기 위해서 그리고 직장생활을 하는 남편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부부의 각방 사용을 선택하였다. 이러한 선택은 아내 주도적인 양육, 즉 아내들에게 자녀양육에 대한 전적인 역할과 책임이 주어지는 양육 환경을 촉진하게 되었다. 이렇게 아내들에게 낯선 출산과 육아 경험, 그리고 끝이 없는 가사 일은 상당한 스트레스로 경험되었고 동시에 산후우울증이라는 기분변화까지 동반하면서 아내들의 삶의 고충은 가중되었다.

이 단계의 아내들은 육아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피로를 남편들에게 토로하였지만 남편들로부터 돌아오는 것은 '나도 힘들다.', '다들 아이 키우고 산다.'와 같은 냉담한 반응이거나 정서적인 공감은 없이 몸으로만 때우는 반응에 욕구가 좌절되었다. 한편, 이 단계의 남편들은 힘든 회사 일을 마무리하고 퇴근하였지만 자신에게는 관심이 없고 아이에게만 몰입하거나 육아로 인한 고충을 토로하기 바쁜 아내들에게 보살핌/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불만이 쌓여간다.

출산 후 육아에 지친 아내들은 점점 성욕이 저하되어 남편이 성관계를 요구할 때 아이를 재운다는 핑계로 수동적, 우회적으로 성관계를 거부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남편들은 어쩔 수 없이 아내들의 반응에 따르거나 때로는 일방적인 성관계를 시도하기도 하였고 아내들은 성관계 전후에 아무런 대화가 없는 일방적 성관계를 더욱 회피하기 시작하였다. 즉 육아, 가사, 성관계, 배우자 가족과의 관계 갈등, 공감적 소통의 부재 등 결혼생활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갈등이 시작되어 배우자에 대한 '미움', '실망', '슬픔', '짜증', '안쓰

러움' 등의 감정을 경험하였다. 하지만 아이가 좀 더 크고 나면 상황이 좋아질 거라는 막연한 기대를 하거나 배우자의 요구에 응해주려는 다짐과 노력으로 하루하루를 버텨가는 「갈등발생」의 단계를 경험하였다.

2) 상호작용 회피 단계

상호작용 회피 단계는 부부갈등경험 및 이혼실행과정의 두 번째 단계로, 이 단계의 부부들은 출산으로 인한 각방 사용이 지속되고, 갈등발생단계의 갈등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반복되면서 점차 감정이 쌓이게 되며 감정싸움이 되는 대화를 비롯한 배우자와의 상호작용을 회피하는 단계이다.

부부관계는 육아, 가사, 경제적 문제에 집중되면서 부부 사이의 갈등은 가중된다. 육아와 가사에 지쳐있는 아내는 남편에게 지친 마음을 지속적으로 토로하고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하고 경제활동으로 지친 남편은 아내의 불평, 불만, 요구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한다. 하루 종일 혼자서 육아하며 힘들었던 아내들은 남편의 귀가와 함께 어려움을 공유하고 도움을 받기 원하고 남편들은 회사 일로 인한 고충을 아내들에게 토로하고 위로 받기를 원한다. 하지만 배우자와의 대화는 욕구가 좌절되고 갈등만 증폭되는 대화이기에 회피하기에 이른다. 이 단계에서는 한 배우자는 요구하고 한 배우자는 회피하는 전형적인 요구-회피 패턴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부부들은 각자 자신의 어려움을 소통하고 위로와 지지를 받으며 스트레스를 풀어낼 채널이 필요하게 된다. 남편들은 개인 취미활동이나 동료들과의 술자리, 친구들과의 잦은 만남 등 개인 활동에 투자하는 시간이 늘어나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들의 육아 지원 없이 전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대부분의 아내들은 개인 활동과 취미생활조차 불가능해 아이들에게 더욱 몰입하거나 가까운 가족들을 의지하게 된다. 한편 부부 만의 여가시간이나 삶

에 대한 의미있는 대화는 없고, 부부가 함께 하는 유일한 시간은 육아나 가사 일을 함께 하는 최소한의 시간뿐이었다. 이렇게 부부문제는 부부 사이에서 직접적으로 해결되지 못하고 누적되어가고 부부관계는 점점 부부 외 다른 관계나 활동에 몰입하는 것으로 와해되어 가는 「상호작용 회피」의 단계를 경험하였다.

3) 친밀감 상실 및 성관계 회피 단계

친밀감 상실 및 성관계 회피 단계는 부부갈등경험 및 이혼실행과정의 세 번째 단계로, 이는 1단계에서 출산 후 부부 간의 친밀감은 존재하지만 육아라는 상황적인 이유로 간헐적 혹은 우회적으로 성관계를 회피하거나 거부했던 양상과는 달리 배우자와의 지속되는 갈등으로 친밀감이 상실되고, 지속적은 갈등으로 인한 부정적인 감정 때문에 배우자와의 성관계에 대한 욕구가 저하 되어 적극적으로 성관계를 회피하거나 거부하는 단계를 의미한다. 많은 연구들에서 친밀감은 부부간의 안정된 결혼생활에 필요한 정서이며 친밀감의 충족은 부부 사이에서 배우자에게 중요한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결혼생활에 만족감을 주고 친밀감이 결여된 부부들은 배우자에게 불만을 갖고 결혼생활에 불만족하게 된다고 한다(Epstein & Baucoam, 2002; Reis, 2000).

이 단계의 부부들은 배우자 외 다른 관계 및 활동에 대한 관심이 점차 증가하여 몰입하기에 이른다. 배우자 외 다른 관계는 일부 부부들(부부 5, 7, 10)에게서는 혼외의 이성 관계와 외도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대부분의 부부들에게서는 동성 친구, 원가족, 직장 동료들과의 잦은 만남과 빈번한 소통으로 나타났다. 즉 부부들은 배우자와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며 의사소통하는 것보다는 배우자 외 다른 의지되는 관계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그

와 같은 관계에 몰입하는 특징을 보인다.

이러한 과정에서 한 배우자가 부부관계 외의 다른 관계에 지나치게 몰입하고 있는 배우자에 대한 불만으로 또 다른 갈등이 발생한다. 이전 단계에서는 속 시원하게 소통되지 않는 대화가 답답하여 배우자와의 대화를 회피하였다면 이 단계에서는 감정적 다툼이 자주 일어나고 다툼 시에 서로 비난, 욕설, 모욕적인 언행을 사용하는 빈도가 늘어나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공격하는 폭력적 다툼과 극단적 행동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특히 남편들의 경우에는 아내가 가장으로서 마음 편히 회사 일에 몰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보다는 불평, 불만을 늘어놓는 것에 대한 '서운함', '실망감', '화'와 같은 감정을 경험하기 시작하였고, 아내들의 경우에는 혼자서 육아하고 일하는 등 오롯이 혼자서 모든 것을 하고 있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부부애가 없고 의지되지 않는 남편, 여자로서 사랑해주지 않는 남편에 대해 '화', '배신감', 자신에 대한 '수치스러움', '창피함'과 함께 '우울감', '외로움'을 경험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아내들은 남편들에 대한 마음이 점차 닫히기 시작한다.

심각한 감정적 다툼 후에는 성관계 회피와 거부가 더욱 심화되었는데, 연구 대상 부부들의 대부분은 잦은 경우에는 1-2개월에 평균 1회 정도의 성관계를 하였고, 심하게 다툰 후에는 반드시 간헐적 별침과 별거가 이어졌으며, 이때에는 3개월~6개월 이상의 장기간 성관계가 단절된 경우도 빈번한 「친밀감 상실 및 성관계 회피」의 단계를 경험하였다.

4) 의도적 별침 및 별거 단계

의도적 별침 및 별거 단계는 부부갈등경험 및 이혼실행과정의 네 번째 단계로, 이는 출산 후 상황적인 이유로 각방을 사용하였던 것과 달리 심각한 갈등 후 배우자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적 이유 혹은 이혼을 고려하고 준비

하려는 이유로 의도적인 별거가 시작되거나 별거가 여의치 않은 경우에서 의도적으로 각방을 사용하며 성관계가 단절되는 단계를 의미한다.

이 단계의 부부들은 배우자 외에 몰입하는 대상이 이성일 경우에는 외도 사실이 알려져 갈등이 더욱 증폭되거나 부부문제 및 갈등이 반복되면서 한쪽 배우자의 강력한 이혼요구가 시작된다. 본 연구 대상 부부들의 경우에는 10쌍 모두 결혼생활 중 아내들의 이혼요구가 빈번하였고 아내들의 이혼에 대한 의지가 완고하였다. 이전 단계인 친밀감 상실 및 성관계 회피 단계에서 시작된 극단적 행동과 폭력적 다툼은 더욱 빈번해지고 그 강도가 더욱 심화되면서 급기야 원가족이 부부갈등에 개입되거나 경찰 등 제 3자의 개입으로 갈등이 중재되고 더 장기간의 별침 혹은 별거의 단계로 진입하였다.

부부들은 점차 배우자의 성향과 천성은 변하지 않으며 고칠 수 없다는 변화 불가능성을 인지하기 시작하였고 대부분의 상황에서 문제해결에 대한 무력감으로 갈등을 무시하고 묵인하며 대화를 비롯한 긍정적인 상호작용은 지속적으로 단절되었다. 반복되는 갈등과 변하지 않는 상황으로 인해 부부들은 몸과 마음이 지쳐갔고 관계 회복에 대한 의지 또한 상실되었다. 남편은 이혼의지가 완고하고 지속적으로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에 대해 배우자로서, 양육자로서 존재의미를 상실해 가고 이혼요구 앞에 지금까지 고생한 자신의 삶이 의미 없었음을 통감하였다. 아내는 남편에 대해 무관심하고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는 상태가 되고 완전한 '남남'의 관계로 부부관계를 인식하였다. 남편과 함께 있지만 혼자 있는 것과 같은 생각과 느낌이 드는 한편 이혼을 통해 새로운 삶을 살아보고자 하는 갈망이 솟구치는 이미 정서적으로는 이혼한 상태인「의도적 별침 및 별거」의 단계를 경험하였다.

5) 법적 이혼실행 단계

법적 이혼실행 단계는 부부갈등경험 및 이혼실행과정의 마지막 단계로, 부부가 이혼을 결심하고 완전한 별침과 별거에 들어가며 정서적 이혼 상태에서 법적이혼상태를 위해 법적인 이혼절차를 밟는 단계를 의미한다.

이 단계의 부부들은 결혼생활 동안 여러 차례 고민해 온 이혼고려와 시도를 실제적으로 완수하게 되었다. 지금까지 이혼유예에 영향을 준 사회적 편견과 시선에서도 상당부분 자유로워지고 이혼이 자녀들에게 더 좋은 선택일 수 있다는 생각의 변화를 갖게 되었다. 또한 주변에서도 부부들의 이혼을 지지하거나 더 이상 이혼을 만류하지 않는 상황의 변화도 동반되었다. 연구대상 부부들의 경우에는 아내들은 더욱 적극적이고 완고하게 이혼을 요구하기 시작하였고, 남편들의 경우에는 아내들의 강력한 이혼요구를 적극적 혹은 수동적으로 수용함으로써 법적 이혼절차가 가속화되었다.

먼저 이혼을 결심한 아내들은 결혼생활 동안도 혼자였다고 느꼈기 때문에 이혼 후 실제로 혼자가 되는 상황에 대한 염려와 걱정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혼자서도 자녀를 키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으며, 양육협의와 함께 경제적으로 자립할 마음의 준비도 진행하였다. 지금까지 포기했던 개인적인 시간을 가지며 여자로서, 한 개인으로서 새로운 삶을 꿈꾸기 시작하였다. 남편들은 아내의 이혼요구에 반응하며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에 눌려 포기했던 자신의 욕구를 떠올리며 의미 있는 삶을 찾고자 다짐 하였다. 결국 부부는 부부갈등으로 인한 상처를 종결하고 자녀의 부모로서의 관계만을 유지하기 위한 협의에 이르는 「법적 이혼실행」의 단계를 경험하였다.

2-3. 선택 코딩

선택 코딩은 핵심 범주를 선택하고 선택한 핵심 범주(core category)를 다른 범주들과 연관 지어 이들 간의 관련성을 확인하여 이론을 통합시키고 정교화 하는 과정이다(Strauss & Corbin, 1998). 우선 각 범주와 하위범주를 연결시키면서 연구 대상자들에게서 관찰된 중요한 상호작용의 실체를 핵심 범주를 중심으로 하나의 스토리로 제시하는 이야기 윤곽(storyline)을 전개한다.

1) 핵심범주

핵심범주(core category)란 연구의 중점주제를 드러내는 것으로 분석을 통해서 도출된 결과들을 추상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Strauss & Corbin, 1998). 이는 같은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위한 중심적인 현상이나 주요 관심사로 다른 모든 범주가 통합된 중심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범주 간의 관계가 분명해지고 범주와 개념의 속성과 차원이 통합되면서 부부갈등경험 및 이혼실행과정은 남편들에게는 '무의미한 삶에서 벗어나 진정한 나를 찾기' 과정이었고, 아내들에게는 '외로움의 터널에서 빠져나가기' 과정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1) 남편들의 핵심범주: "무의미한 삶에서 벗어나 진정한 나를 찾기"

본 연구의 남편들에게 결혼이란 경제적 기반을 닦고 든든한 가정을 이루는 것을 기초로 하여 내 부모와는 달리 아내와 자식에게 충실하고 온화하고 온전한 가정을 꾸리고자 하는 책임감을 느끼게 되는 희망적이지만 무거운

출발이었다.

동거 및 혼전임신의 경험이 있는 8명의 남편 중 대부분의 남편은 아내의 중절수술 요구에도 불구하고 혼전 동거 및 임신에 대한 책임감으로 결혼을 선택하였다. 물론 사랑하는 사람과 가족을 지키겠다는 희망적인 선택이었다. 하지만 결혼과 동시에 출산은 경제적, 사회적 기반이 없는 젊은 청년에게 너무 고된 삶의 무게로 경험되었다.

고된 젊은 남편들은 아내에게 투정을 부리고 지지도 받고 인정도 원했다. 그러나 젊은 초보 엄마는 오히려 남편에게 의지하기 원했고 의지되지 않는 남편을 비난하였다. 남편들은 결혼생활 동안 아내들은 자신을 '대우하지 않았다', '신경써주지 않았다.', '반기지 않았다', '사랑하지 않는다', '보살펴주지 않았다.'고 하였다. '대우하다'는 '어떤 사회적 관계나 태도로 대하다. 예의를 갖추다.'라는 의미이며, '신경 쓰다'는 '세심하게 살피다'를, '보살피다'는 '정성을 기울여 보호하며 돕다'라는 의미이며, '사랑하지 않음'은 '존재를 귀히 여기고 아끼지 않음'을 의미한다. 남편들은 결혼생활 동안 '가장으로서 온전한 가정을 이루고 지키기 위해 책임을 다하는 고단한 삶을 대우받고 인정받기'를 원했고, 그런 '자신의 가치를 존중하고 세심하게 보살펴주기'를 원했다.

남편들은 아내들이 자신과의 결혼생활을 하찮게 생각하고 평가절하하며 후회한다며 이혼을 요구하고 결국 이혼에 이르는 과정을 겪으면서 원가족 부모와 달리 온전한 가정을 꾸리고 살아보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친부와 다르지 않은 삶을 살았음을 자각하고 고생한 지난 삶의 무의미함을 경험하였다. 따라서 남편들에게 이혼은 아내의 인정과 수용이 없는 '무의미한 삶에서 벗어나 진정한 나를 찾기'위한 과정이었다.

(2) 아내들의 핵심범주: “외로움의 터널에서 빠져나가기”

본 연구의 아내들에게 결혼이란 남녀가 만나 결혼관계를 이루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녔다. 아내들 중 어떤 이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어떤 이는 가족과 함께 있는 것이 불편해서, 어떤 이는 부모님의 갈등이 보기 싫어서 원가족으로부터 이른 독립을 하였다. 그러나 어린 나이에 독립하여 혼자 사는 삶은 외로웠다.

남편과의 짧은 연애 동안 아내들은 자신을 사랑해주는 좋은 사람과 함께 살면서 그 사람에게 기대어 살면 외롭지 않고 삶이 고되지 않을 것 같다는 막연한 기대를 하였다. 남편에게 기대어 외롭지 않게 살 수 있을 것 같은 결혼에 대한 기대는 자녀의 출산과 함께 무너졌다. 결혼과 출산 후 삶의 과업은 늘어났고, 엄마에게 기댈 수밖에 없는 자녀와 아내에게 기대고 싶은 남편이 있어 아내는 결혼 전과 다름없이 비빌 구석 없는 오롯이 혼자인 삶으로 돌아갔다.

아내들은 ‘혼자였다’, ‘신뢰할 수 없다’, ‘사랑하지 않는다.’, ‘의지되지 않는다.’, ‘외로웠다’라고 그들의 결혼생활을 회고하였다. ‘외로움’은 ‘홀로되어 쓸쓸한 마음이나 느낌’을 의미한다. ‘신뢰’는 ‘굳게 믿고 의지함’을, ‘의지함’은 ‘다른 것에 몸과 마음을 기댐’을, ‘사랑하지 않음’은 ‘존재를 귀히 여기고 아끼지 않음’을 의미한다. 아내들이 결혼생활 동안 남편과의 관계에서 원했던 것은 ‘남편에게 몸과 마음을 기대고, 남편을 굳게 믿고 의지하며 남편에게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고 아낌 받는 것’이었다. 그러나 아내들이 경험한 결혼의 중심현상은 ‘혼자인 것 같은 생각과 느낌’, ‘외로움’이었다.

10명의 아내 중 6명은 부모가 이혼한 경험이 있고, 나머지 아내 4명의 부모는 고갈등 부부로 성장과정이 불안정하고 외로웠다고 보고하였다. 즉 아내들은 결혼 전 원가족 경험에서부터 ‘외로움’을 느꼈고 원가족에서도 혼자

인 생각/느낌을 경험하였다. 아내들은 '외로움'을 벗어나고자 결혼을 선택하였지만 남편과의 결혼은 '외로움'이 깊어지는 경험을 주었다. 결국 이혼과정에서 아내들은 결혼생활을 돌아보면서 스스로를 의지해야했다고 말하였다. 결혼생활 동안 남편에게 기대고 의지하려고 해서 외로움이 커졌다면 스스로를 의지하면 남편이 없어도 외롭지 않을 것이라고 자각하였다. 이에 아내들에게 이혼은 '외로움의 터널에서 빠져나오기' 과정이었다.

2) 이야기 윤곽의 전개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 부부들은 **'이른 나이'**에 감정에 끌려 **'좋은 마음만 생각'**하고 연애 초기부터 동거를 하거나 '**혼전 임신'**으로 인해 '**상황에 떠밀려' '서두른 결혼'**을 하였다. 아내들은 원가족으로부터 이른 나이에 독립하여 혼자 살면서 **'외로움'**을 느꼈고, **'힘든 상황'**으로부터 **'도피'**해 빨리 '**안정된 가정'**을 갖고 남편에게 **'의지하고 기대어'** 살고 싶었다. 한편 남편들은 부모님처럼 살고 싶지 않았다. 그들의 아버지와는 달리 가장으로서,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온화하고 행복한 가정', '올곧은 가정', '안정된 가정'**을 꾸리고 싶었다.

부부는 **'사회, 경제적 기반이 부족'**했지만 함께 노력하면 행복한 결혼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 기대했다. 하지만 이른 나이의 결혼과 임신, 출산은 부부들에게 생각지도 못한 고충을 가져다주었다. 남편들은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경제적 기반을 다지는데 몰두하면서 **'경제적 압박감'**과 스트레스가 쌓여갔고, 아내들은 **'혼자'**서 **'육아, 가사, 일 여러 문제들'**을 한번에 감당하면서 **'외로움'**이 깊어갔다. 남편들은 지친 마음으로 퇴근하면서 아내들의 수고했다는 **'따뜻한 말'**과 함께 반기는 모습을 보고 **'보살핌과 배려'**를 받기 원했고, 아내들은 하루 종일 아이와 씨름하며 보낸 힘들었던 시

간들을 남편에게 **‘위로받고’** 남편의 **‘역할 지원’**을 얻기 바라며 서로 충돌하였다.

‘정신없이 쫓기는 일상’ 속에서 부부들은 **‘함께하는 시간이 부족’**했고, **‘결혼생활과 미래의 희망’**을 나눌 마음의 여유가 없었다. 출산 후 밤, 낮이 없는 아이 때문에 부부는 각방을 사용하였다. 각자 열심히 주어진 일에 쫓기며 하루하루를 버티면서 부부들의 채워지지 않는 갈망은 충돌하고 갈등하며 누적되어 갔다. 부부들은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 같은 **‘대화를 비롯한 상호작용을 회피’**하고 해결되지 않는 **‘갈등을 묵인’**하며 **‘몸과 마음이 지쳐’** 갔다. 몸과 마음이 지쳐가니 서로 살결이 닿는 것조차 귀찮고 싫어졌다. 아내들은 배려 없는 남편과의 **‘성관계를 피해’** 아이를 안고 자는 척을 하고, 남편은 계속되는 아내의 **‘성관계 거부’**에 **‘성욕이 저하’**되었다.

부부들은 외롭고 공허하고 힘들고 답답한 마음을 풀고 해소하며 위로받고 공감 받을 수 있는 채널이 필요했다. 남편은 취미생활과 회사동료들과의 술자리, 친한 친구들과의 잦은 만남에 관심을 갖고, 아내들은 육아에 몰두하며 아이들에게 의지하며 비슷한 처지의 주변 사람들과의 만남에서 마음을 채우며 점차 배우자에 대한 **‘친밀감이 상실’**되고, **‘배우자 외에 다른 관계에 몰두’**하기 시작했다. 부부는 다른 사람들은 알아주는 내 마음을 배우자는 못 알아주는 상황에 더 화가 나고 견딜 수가 없었다. 배우자에게 더 큰 소리로 갈망을 외쳐보지만 부부의 **‘갈등은 점점 악화’**되어 사소한 일에도 **‘극단적 행동’**과 **‘폭력적 다툼’**으로 확대되었다.

아내들은 남편에게 ‘파출부’, ‘애 키우는 엄마’, ‘집안 일 하는 종’으로만 취급받지 않고 **‘여자로 사랑받고 싶었다.’**. 남편들은 ‘돈 버는 기계’, ‘머슴’으로만 이용당하지 않고 **‘인정, 대우받고’, ‘사랑받고 싶었다.’**. 아내들이 먼저 남편에게서 마음이 떠났다. 싫지도 좋지도 않은 **‘아무런 감정도 들지 않는’, ‘무관심한’** 남편과의 관계는 이미 끝이 났다고 자각하였다. **‘부부의 정,**

의리'가 없고 더 이상 **'의지되지 않고' '신뢰되지 않는'** 남편과의 **'결혼생활은 의미'**가 없었다. 마치 몸에서 장기가 빠져나가 바람이 통하는 것 같은 엄청난 **'상실감', '공허함', '허탈함'** 앞에 **'사회적 편견과 시선'**은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았다. 그렇게 부부는 이혼준비를 위한 **'의도적인 별침'**과 **'별거'**에 들어갔다.

남편들은 아내들의 지속적인 이혼 요구에 **'힘들게 살아온 삶이 의미 없었음'**을 자각하고 자신의 인생이 없었음을 후회하고 통감한다. 부부는 더 이상 배우자가 **'변하지 않을 것'**이며 상황은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하였다. 그렇게 아내들은 **'외로움의 터널에서 빠져나오기'**위한 몸부림으로 이혼을 외쳤고, 남편들은 아내들의 이혼요구 앞에서 **'무의미했던 삶'**을 자각하고 **'진정한 자신을 찾기'**위해 이혼에 소극적으로 반응하였다.

3. 설문연구 결과

3-1. 부부들의 의사소통 패턴

<표 14> 부부들의 의사소통패턴

	부부1	부부2	부부3	부부4	부부5	부부6	부부7	부부8	부부9	부부10
남편	건설	건설	건설	손상	건설	건설	손상	손상	건설	건설
아내	손상	손상	손상	요구	손상	건설	손상	손상	건설	건설

의사소통패턴질문지(CPQ)에 따른 <표 14> 부부들의 의사소통패턴을 살펴보면 부부들은 각자의 의사소통패턴에 대해 정확한 자각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 1~5까지는 남편과 아내가 평정한 의사소통패턴에 차이를

보였고, 부부 6~10까지는 남편과 아내가 평정한 부부의 의사소통패턴이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과 아내 둘 간의 평정 차이를 막론하고 남편들에게서는 '건설' 유형이 빈번히 보고되었고, 아내들에게서는 '손상' 유형이 빈번히 보고되고 있어 남편들은 부부의 의사소통패턴에 대해 큰 결함과 불편을 못 느끼는 것으로 이해되나 아내들은 부부의 의사소통패턴에 대해 결함과 불편을 인지하고 이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이해되었다. 실제로 심층면담에서 아내들은 남편들에 비해 더 높은 비율로 남편들과의 대화에서 결핍감을 호소하였고 특히 '지지 및 공감적 소통의 부재'로 인해 남편과의 대화에서 '무의미하고 공허함'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더 나아가 심층면담에서 부부들은 자신들의 대화가 상당 기간 회피/단절의 특징을 보이며 싸인 감정이 폭발할 시 비난, 욕설, 모욕적인 말로 상처 주는 말을 사용한다는 것을 일관성 있게 보고하고 있는데 이는 '의사소통방식'과 '갈등해결방식'의 범주와 하위범주로도 도출되어 비난, 방어, 경멸, 담쌓기 등의 역기능적 의사소통 행동이 결혼만족도나 부부적응도와 부적 관계가 있다는 선행연구(Gottman & Krokoff, 1989; Gottman, 1999; 권윤아, 김득성, 2008b; 홍순건, 채규만, 2010)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심층면담에서 연구 대상 부부들의 대부분은 갈등 발생 초기에는 아내요구-남편철회 패턴이었다가 갈등 중기에는 상호 비난 및 모욕 등의 공격적 패턴으로, 갈등 후기에는 상호 대화회피 및 단절의 형태가 주를 이루었다. 관계에서 친밀성을 더욱 원하는 사람이 요구하고 자율성을 더 원하는 사람이 철회하는 역할을 한다는 Rubin(1983)의 연구처럼 본 연구의 아내들은 지지 및 공감을 얻는 관계에 집중하고, 남편들은 가장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독립적인 남성의 역할에 집중하기 때문에 정서적 교류와 표현을 꺼리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심층면담에서 관찰된 부부의 의사소통패턴과 달리 <표 14>의 의사소통패턴질문지(CPQ)의 결과는 다소 다른 결과를 보여준다.

이 같은 결과는 부부들 특히 남편들이 자신의 의사소통양상을 객관적으로 인지하는데 다소 방어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거나 객관적으로 인지하기 어려울 수 있음을 시사한다. Gottman과 Krokoff(1989)이 성(gender)에 따라 부부갈등에 대한 부부의 의사소통패턴이 다르다고 하였으며, Holtzworth-Munroe와 Jacobson(1985)은 아내들이 부부관계를 꾸준히 관찰(monitoring)하여 관계에 문제가 생겼음을 빨리 알아차리는 것에 비해 남편들은 부부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만 부부관계를 관찰(monitoring)하는 경향이 있어 부부관계를 늦게 인식하고 늦게 대처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 바, 남편들은 기본적으로 부부 관계 양상을 이해하는 아내들보다 덜 민감한 특성이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에 남편들의 경우 아내들에 비해 의사소통 방식에 대한 훈련 이전에 자신의 의사소통패턴을 비롯한 부부관계에 대한 객관적인 자각을 돕는 훈련이 선행되어야할 것으로 생각된다.

3-2. 부부들의 심리도식

<표 15>은 부부들의 주된 심리도식유형과 부부들의 원가족 부모의 갈등 및 이혼경험을 나타낸다.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부부 8쌍은 남편 혹은 아내의 부모가 이혼한 경험이 있고, 부부 6쌍은 자신들의 부모 또한 높은 수준의 부부갈등을 겪었다고 보고 하였다. 또한 2쌍은 자신들의 부모 또한 갈등이 있었으며 한 부모의 이른 사망으로 한 부모 가정에서 자랐다.

남편 1, 2, 9는 '자기희생도식'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은 모두 그들의 친부가 경제적으로 불안정하고 가정적이지 않아 어머니가 힘든 결혼생활을 했다고 보고하였다. 이에 본인들은 가정적이고 화목하고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기 위해 자신을 희생해서 아내와 자녀에게 충실한 가장이 되고자 결혼생활 동안 비효율적이고 불건강한 희생을 하였다.

<표 15> 심리도식유형과 원가족 경험

		심리도식유형	원가족 경험 (수준)
부부1	남편	자기희생도식	부모 갈등(고)
	아내	자기희생, 엄격한 기준/과잉비판도식	부모 이혼
부부2	남편	정서억제, 자기희생도식	부모 갈등(중)
	아내	융합/미발달된 자기도식	부모 갈등(중) /한 부모사망
부부3	남편	정서적 억제, 자기희생도식	부모 갈등(하)
	아내	융합/미발달된 자기도식	부모 갈등(고)
부부4	남편	정서적 결핍, 질병/피해에 대한 취약성 도식	부모 이혼
	아내	불신/학대도식	부모 갈등(고)
부부5	남편	유기도식	부모 이혼
	아내	엄격한 기준/과잉비판, 부족한 자기통제/자기훈련	부모 이혼
부부6	남편	처벌, 부족한 자기 통제/자기훈련 도식	부모 갈등(고)
	아내	정서적 결핍, 사회적 고립/소외, 불신/학대도식	부모 이혼
부부7	남편	승인/인정 추구, 처벌 도식	부모 이혼
	아내	승인/인정추구, 특권의식/과대성, 불신/학대도식	부모 갈등(고)
부부8	남편	승인/인정추구, 처벌 도식	부모 이혼
	아내	유기, 정서적 결핍, 불신/학대도식	부모 갈등(고)
부부9	남편	엄격한 기준/과잉비판, 자기희생도식	부모 갈등(중) /한 부모사망
	아내	부정성/비관주의, 자기희생	부모 이혼
부부10	남편	승인/인정추구, 정서적 결핍, 유기	부모 갈등(중)
	아내	엄격한 기준/과잉비판, 불신/학대도식	부모 이혼

남편 7, 8은 '승인/인정추구', '처벌도식'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은 부모가 어린 시절 이혼하여 친부와 살았으며 친모의 부재로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하였다. 특히 남편 7은 가족의 신체적 폭력에 장기간 노출되었고 남편 8은 친부와 계부의 정서적 학대에 노출된 경험이 있었다. 이들은 아내와 가족에게 인정받는 결혼생활을 원했지만 결국 아내에게 이용당하고 배신당했

다고 느끼며 배신감에 분개하고 처벌적 앙심을 품는 모습을 보였다.

남편 5, 10은 '유기도식'을 가지고 있으며 남편 5의 부모는 이혼을 하였고 남편 10의 부모의 부부갈등 수준은 '중'이었다. 남편 5는 결혼 전 위기상황일 때 부모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경험을 했다고 보고하였으며 결혼생활 중 아내가 다른 남자와 즉흥적인 만남 후 이혼을 요구하자 이때도 버림받은 느낌을 받았다고 호소하였다. 남편 10은 성장과정에서 부모님에게 정서적 지원을 받은 경험이 없다고 하였다. 성장과정 동안 관심과 보살핌에 대한 갈망이 높았다고 하였고 이 같은 요구는 아내와의 결혼생활 동안에도 충족되지 않아 갈망을 충족시켜줄 사람을 찾았다고 하였다.

아내 2, 3은 '융합/미발달된 자기도식'을 가지고 있으며 아내 2는 사춘기 시절 친모의 부재로 외롭고 혼자인 느낌, 마음 둘 곳 없이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하였다. 아내 3은 성장과정에서 자신은 어머니를 좋아했지만 어머니는 항상 자신을 피하고 자신과 함께 하는 것보다는 개인적인 시간을 갖고 싶어 하는 것 같았다고 회고하였다. 아내 2와 3은 모두 남편과의 관계에서 남편과의 강한 애착관계를 원했지만 끊임없는 외로움과 정서적 결핍감을 호소하며 이혼을 통해 자기 자신을 찾고 싶다고 하였다.

아내 4, 6, 7, 8, 10은 '불신/학대도식'과 '정서적 결핍도식'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 모두 부모의 부부갈등이 높았거나 부모가 이혼한 경험을 하였다. 아내 4는 학창시절부터 관계에서 학대경험과 불신경험이 있었으며 결혼 후 고부갈등을 호소하며 남편이 시모와 '붙어먹었다'는 표현을 하였다. '붙어먹다'는 '간통하다'를 속되게 이르는 말로 아내 4와 6은 이성과의 외도가 아닌 상황에서도 남편에 대해 간통한 것과 같은 배신감과 불신을 경험하였음을 알 수 있다. 아내 6은 결혼 후 남편이 친구와 '붙어먹어' 술 먹고 노는 걸 좋아한다고 하였다. 아내 7은 성장과정에서 관계 갈등과 배신 등의 불편한

경험이 많았으며 결혼 후 남편의 부정을 의심하는 모습을 보였다. 아내 8 또한 이전 연애경험을 비롯하여 결혼 후 남편과의 관계에서도 부정을 의심하며 학대받는 경험을 하였고, 아내 10은 남편의 부정을 확인하고 배신감을 느끼며 분노하였다.

> “항상 혼자라는 생각을 했어요. 외로웠어요. 남편도 외로운 상황에서 친구도 없고 해서 그냥 친구처럼 만나다가 임신을 해서 결혼하게 됐어요. 항상 공허하고 존재감이 없어 혼란스러웠는데 남편을 만나서 기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막상 결혼을 하고 나니 시댁에 제 편이 없는 것 같고 혼자 있는 것 같고 마음 둘 데가 없더라구요. 남편에게 외롭다 혼자인 것 같다고 얘기해 봤지만 저만 힘든 거 아니라고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았어요. 저는 안중에도 없는 거죠. 배신감을 느꼈어요.(W8: 유기, 정서적 박탈, 불신/학대)”

> “와이프도 부모님도 감싸주고 따뜻한 말을 해주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와이프한테 따뜻하게 챙겨주고 사랑해주고 대화도 잘 통하고 그런 관계를 원했는데 그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 해주면 넘어갔던 것 같아요. 불 꺼진 집에 들어가는 것보다 사람들과 같이 있는게 훨씬 마음이 편했어요. 외롭지 않고.(H10: 정서적 박탈, 유기)”

> “남편의 말투에서 (나를) 비난하고 구박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하나...자존감이 내려가고, 화나고 용서가 안 되고. 그래서 그만 살자. 못 살겠다 생각했죠.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져서 너무 상실감이 크고 슬프고 공허하고 허탈해요. 나는 두고 친구랑 붙어먹으면서 술만 먹는 거에요. 안 들어오고 연락도 않고. 지금 이혼 안 해도 언젠가는 결국 혼자 있을 것만 같아요. 언젠가는 깨질 것 같은 거죠.(W6: 정서적 박탈, 사회적 고립/소외, 불신/학대)

Young(1990, 1999)에 의하면 도식 중 대다수는 생애 초기에 형성되고 이후로 지속적으로 정교해지면서 생애 후기의 경험들에 중첩되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즉 자기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실제로 부정확하거나

왜곡된 것이라도 이를 유지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심리도식은 아동기 시절에 충족되지 못한 핵심적 정서욕구와 타고 난 정서적 기질, 그리고 생애 초기의 경험들의 영향으로 생겨난다고 한다. Nemati(1996)에 연구에 의하면 의존, 실패, 유기도식은 결혼만족과 부적인 상관을 보이고, D'Andrea(2003)에 연구에서는 단절 및 거절 도식이 긍정적 정서 및 적응과 부적인 상관을 나타냈다. 김시연과 서영석(2008)의 연구에서도 부적응도식이 남편과 아내 모두의 결혼만족도를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고, 심리도식의 부적응성이 높을수록 부부들은 스트레스 상황을 더욱 왜곡하여 과장되게 지각할 가능성이 높고 이는 다시 부적응적인 심리도식을 강화시킴으로써 부부상호작용 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부부들의 특정 도식과 원가족 경험들의 특징을 볼 때, 부부들의 어린 시절 부모와의 관계 경험과 성장 환경에 따른 경험은 그들의 주된 도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며 이는 결혼생활 중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재현되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부부들은 자신의 심리도식 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심리도식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들의 관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자각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초기 부적응도식과 애착패턴의 관련성에 관한 Stanojevic과 Nedelijkovic(2012)의 연구에서는 초기 부적응도식에서 높은 점수는 애착 회피와 두려움형의 애착패턴에서 나타났고, 초기 부적응도식에서의 낮은 점수는 안정형 애착패턴에서 나타났으며 초기 부적응도식의 빈도가 불안정 애착그룹, 특히 두려움형과 몰입형의 그룹에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상당수의 아내들은 결혼 전 듬직하고 의지되며 마음을 다 줄 수 있을 것 같아 선택한 남편이었지만 결혼생활 중 갈등경험이 지속되고 남편들에게서 마음이 떠나면서 남편에 대해 사랑의 감정에서 서운함, 화, 우울함, 수치심, 무관심, 두려움의 감정으로 변화하는 양상을 보였는데 이는 Stanojevic과 Nedelijkovic(2012)의 연구에서 두려움형의 애착그룹

의 양상과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그 사람과 둘이 있다가 어떻게 될지도(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두려웠어요.’라는 아내 8의 보고나 ‘이제는 남편이 무서워요.’라는 아내 9의 보고처럼 부부들은 친밀감이 사라지고 애착의 ‘연결고리’가 끊어질 때 배우자에 대한 사랑의 감정에서 위협적인 대상을 만났을 때와 같은 공포의 감정으로 변화하는 양상이 시사되며(Gottman & Gottman, 2010, Johnson, 2006), 인지의 근원인 도식과 부부관계의 애착은 어떠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Stiles, 2004). 본 연구 대상자들에게서 관찰된 현상, 즉 부부갈등경험이 지속되고 친밀감이 사라지면서 사랑했던 대상이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으로 변하는 순간은 부부갈등이 심화되고 극적으로 치달을 때 불신/학대 도식과 유기 등의 부적응적도식이 작용한 결과일 수도 있을 것이다. 이에 극적인 정서반응을 부부관계의 단초로 삼아 부적응도식을 변화시키고 부부 간의 건강한 애착을 돕는 개입이 중요하다.

부부문제와 관련된 대부분의 심리학적 연구들(Jacobson & Margolin, 1979l; Epstein & Baucom, 1993; 김진숙, 권석만, 2010)에서 의사소통을 중심으로 하여 부부간에 교환되는 행동 및 이와 관련된 인지적 요인들이 결혼 적응에 중요하다는 결과들을 공통적으로 나타내고 있듯이 본 연구에서도 인지의 심층적인 기원인 심리도식은 부부들이 자신의 부부관계가 어떠한가에 관한 주관적 정의를 내리는 것과 결혼생활에서 부부들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부부들로 하여금 결혼생활 중 어느 부부들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표면적인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도식과 같은 심층적인 요인의 상호작용이 표면적인 문제들에 대한 과장된 지각에 영향을 미치고 부부갈등을 증폭시키며 갈등에 있어 배우자의 문제를 부각시키는 부부들의 역동을 이해하고 이를 교정해주는 심층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Ⅴ. 논의

1.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30~40대면서 결혼지속년수가 10년 이하인 미성년자녀를 둔 부부들의 부부갈등경험과 이혼결정과정을 확인하고 이혼의 심층적인 원인을 밝히고자 하는 연구이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하여 부부연구와 교육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부부 상담실무와 이혼상담 현장에 유용한 실제적 지침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법원에서 법적 이혼절차 중에 있는 부부 10쌍을 심층면담하고 근거이론방법에서 제안하는 개방코딩, 축코딩, 선택코딩의 절차에 따라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개방코딩 절차에 따라 남편은 83개의 개념과 40개의 하위범주, 16개의 범주가 도출되었고, 아내는 93개의 개념과 42개의 하위범주, 18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축코딩 절차를 통해 패러다임요소들과 범주들의 관계성을 파악하였다. 남편들의 경우 중심현상은 '삶의 의미상실'로 나타났으며, 인과적 조건은 '준비없는 결혼', '원가족 경험에 의한 개인요인', '경제적 문제'였으며, 맥락적 조건은 '일-가정 다중역할갈등', '출산 후 상황에 의한 각방사용', '지속하는 부부문제', '함께하는 시간의 부재', '원가족 문제'였고, 중재적 조건은 '배우자 외 다른 관심에 몰입', '변화 불가능성 인지', '이혼 억제요인의 약화'였으며, '행위/상호작용 전략'은 '부부성생활', '의사소통방식', '갈등해결방식'이었다. 아내들의 경우 중심현상은 '혼자라는 생각/느낌(외로움)'으로 나타났으며, 인과적 조건은 '준비없는 결혼', '원가족 경험에 의한 개인요인', '경제적 문제'였으며, 맥락적 조건은 '일-가정 다중역할갈등', '출산 후 상황에 의한 각방사용', '지속하는 부부문제', '공유하는 시간의 부재', '배우자 가족과의 관계'였고, 중재적 조건은 '배우자 외 다른 관심에 몰입', '변화 불가능성 인지', '이혼 억제요

인의 약화', '새로운 삶에 대한갈망', '마음이 떠남(정서적 이혼)'이었으며, '행위/상호작용 전략'은 '부부성생활', '의사소통방식', '갈등해결방식'이었다.

부부들의 부부갈등경험과 이혼결정과정은 갈등발생단계, 대화회피단계, 성관계 회피 및 거부단계, 의도적 별침 및 별거단계, 법적이혼실행단계의 5단계 과정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다음의 연구문제로 실시되었다.

1) 이혼을 실행하는 부부들의 주요 생활사건(자녀출생 전, 후)에 따른 갈등경험 및 갈등해결과정은 어떠한가?

2) 남편과 아내의 이혼결정과정은 어떠하며 심층적 이혼사유는 무엇인가?

1) 자녀 출산 후 부부들의 갈등경험 및 갈등해결과정

본 연구 대상 부부들의 갈등경험은 다음의 3가지 특징으로 정리할 수 있으며 이는 연구 문제 1에 관한 논의에 해당된다.

첫째, 연구 대상 부부들은 결혼기간 내내 다중역할갈등이 맥락적 조건으로 지속되었다. 연구 대상 부부들은 가족발달의 주기에서 자녀 출산 및 자녀의 미취학기를 포함하는 시기로, 이 시기의 부부들은 자녀 출산으로 주어지는 부모로서의 역할 적응을 요구받는 시기이다(강혜숙, 김영희, 2008). 본 연구에서도 결혼생활 중 겪는 핵심적인 생활사건은 출산 및 육아를 중심으로 한 다중역할갈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 결혼으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기반의 부족과 이에 따른 '경제적 부담과 압박감', '공유 시간의 부재', '의사소통의 문제', '각방사용 및 성관계 문제' 등 결혼생활에서의 여러 갈등사건

들을 뛰어넘는 사건이었다. 연구 대상 부부들 중 5쌍이 혼전임신으로 결혼하였고 나머지 부부들 또한 결혼 1년 전후로 출산 및 육아 경험을 하여 부부들은 전반적으로 젊은 나이에 준비 없이 낯선 출산 및 육아라는 발달과업을 겪으면서 절반 정도의 부부들(부부 1, 3, 4, 6, 10)은 높은 수준의 다중역할갈등을 경험하였고 나머지 부부들은 중등도 수준의 다중역할갈등을 경험하였다. 더욱이 이들 부부 중 5쌍은 맞벌이 부부로 일-가정의 다중역할로 인한 역할갈등이 더욱 더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맞벌이 부부 중 한 아내는 '출산 전에는 버티고 견뎌지던 것들이 이제는 힘에 부쳤다'고 표현할 정도로 출산과 육아는 결혼생활 중 첫 번째로 맞는 가장 큰 위기인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소소하게 누적되어온 삶의 고충을 부채질하고 증폭시키는 기폭제로 작용하였던 것으로 이해된다. 첫 자녀출산 후 부부 간의 결혼적응도와 결혼만족도가 감소하며(고선주, 옥선화, 1993b; 양명숙, 1993), 남편보다는 아내에게서 더 큰 폭의 결혼만족도 감소현상이 관찰되었으며(Twenge et al., 2003), 여러 부부갈등 영역 중 가사노동 분담과 관련한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난(Kluwer et, al., 1996) 연구들에서와 같이 본 연구 대상 부부들도 자녀출산 후 가사분담과 관련한 갈등이 혼재되면서 부부갈등이 증폭되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일-가정 다중역할 갈등경험에서 남편들과 아내들의 차이가 나타났는데, 남편들은 자신의 직장 일에 대한 배려와 공감과 같은 정서적 지원을 원하는 반면 아내들은 육아 및 가사에 대한 남편의 배려와 공감과 같은 정서적 지원을 원하였다. 즉, 남편들과 아내들은 일-가정 다중역할 가운데 중점을 두고 몰입을 하는 영역에 있어 차이가 있었으며 이는 맞벌이 부부이든 외벌이 부부이든 차이가 유사하였다. 따라서 부부들의 다중역할 스트레스 및 갈등 경험 시 개입 영역에 있어 구체적인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출산 후 남성의 경험에 관한 오제은(2011)의 현상학적 연구에서도 남성들의

경우 가사노동을 분담함으로써 아내들에게 정서적 돌봄을 제공하는 것이 부부관계에 중요한 요인임이 확인된 것도 본 연구에서 다중역할 스트레스 시 아내들이 남편들에게 기대하는 역할을 반증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 부부들과 같이 자녀출산 및 학령전기의 부부들에게 자녀 출산과 양육으로 기인하는 역할갈등 시 남편들과 아내들에게서 나타나는 차별적인 역할기대를 서로 이해하고 적절하게 충족시켜줄 수 있는 역할이행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가사 및 육아에 더 몰두하고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받는 아내들에게 다중역할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해결방법은 아내들의 고충에 대한 남편들의 감정적 공감과 위로 같은 정서적 지원이 필요하고, 직장 일에 대한 과중한 부담과 스트레스가 가사 및 육아 스트레스로 전이되는 남편들에게 있어서는 아내들의 인정과 지지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 대상 부부들의 갈등경험의 특징은 양가의 원가족과의 관계양상에서 남편들과 아내들에게서 차이가 있었다. 연구 대상 남편들의 경우에는 자신의 원가족과의 문제가 맥락적 조건으로 작용하였으나 아내들의 경우에는 남편 가족과의 관계문제가 맥락적 조건으로 작용하였다. 즉 남편들은 자신의 원가족과 자신의 관계 갈등과 아내의 고부갈등이 원가족과의 문제의 하위범주로 나타났으나, 아내들은 고부갈등을 비롯하여 시댁문화에 적응하고 시댁 가족과 융화되기 위해 노력을 하였지만 시댁에서 소속감을 갖지 못하고 소외감을 느끼는 배우자 가족과의 관계문제가 부부갈등 경험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여전히 우리나라 젊은 부부들의 결혼생활에도 남성 중심의 결혼 문화가 존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즉 결혼생활 중 남편들은 자신의 가족과의 관계가 부부갈등의 이슈가 되지만 아내들은 남편의 가족과의 관계가 부부갈등의 이슈가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남편의 원가족 문화가 아내의 원가족 문화보다 부부들의 관계와 결혼생활에 더 큰 영향을 미치므로, 남편의 원가족과의 분화가 부부들의 결혼만족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등 오늘 날 젊은 부부들의 결혼생활에서도 남편에 대한 아내의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오현주 등, 2013; 이봉은, 2017). 이에 남편들의 원가족 분화와 고부갈등 중재방법에 대한 훈련이 더욱 구체화되고 강화될 필요가 있다.

셋째 남편들과 아내들의 갈등 시 정서경험에서 보인 공통점은 남편들과 아내들에게서 '우울 및 공허', '정서억제 및 회피', '화 및 충동성', '관심 및 애정에 대한 갈망'의 개념이 발견된 것으로, 이는 원가족 경험에 의한 개인요인으로 범주화되었다. 즉 남편과 아내 모두 결혼 전 원가족에서 정서적 어려움을 경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가족 경험에 의한 정서적 어려움이 부부갈등 상황에서 상호작용하였다. 그러나 결혼생활 동안 정서적 어려움을 경험하는 방식에서는 차이를 보였는데 부부갈등이 증폭된 시점에서 남편들은 정서경험이 다양하지 않고 부정적인 정서는 대체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넘기려는 등 정서를 억제하고 회피하는 양상을 보인 반면, 아내들은 대체로 정서를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남편들과 공유하려고 시도하였으며 남편이 자신의 정서를 공감해주고 지지해주지 않을 때는 극단적인 부정적 감정표현으로 공감을 요구하는 적극적인 양상을 보였다. 남편들의 경우 감정표현을 아내와 나누지 않는 이유는 남편이 자신의 어려움을 표현하였을 때 정서적 어려움이 더욱 심해지고 안정적인 생활에 방해가 될 것이라는 인지 때문이었고, 한편 아내들은 정서를 표현하고 공유함으로써 정서가 해소될 수 있다는 인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아내들의 강렬한 감정적 외침과 남편들의 감정회피는 부부가 정서적으로 더 멀어지는 행동양상에 영향을 주었고 서로를 너무나 이질적인 존재로 인지하도록 만들었다. 따라서 남편들과 아내들의 정서표현의 차이는 정서경험의 차이라기보다는 정서표현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인지의 차이로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외적으로 드러나는 정서표현 방식에만 초점을 두기 보다는 정서를 경험하고 표현하는데

있어 배우자가 가지고 있는 인지를 이해하고 배우자의 정서적 반응과 의도에 대해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해석하는 인지적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윤미혜, 신희천, 2008).

넷째, 부부들의 갈등경험은 부부 각자의 심리도식이 부부관계 중에 역동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승인/인정추구', '처벌도식'을 가지고 있는 배우자의 경우 가족의 신체적 폭력 및 정서적 학대에 장기간 노출된 원가족 경험이 있었으며, 아내에게 이용당하고 배신당했다고 느끼며 아내에게 분개하고 처벌적 앙심을 품는 모습이었으며, '유기도식'을 가지고 있는 배우자의 경우에는 원가족 부모 또한 갈등 수준이 높았으며 부모로부터 정서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버림받은 것과 같은 경험을 하였으며 아내와의 경험에서도 동일한 감정을 경험하고 정서적 지원을 줄 다른 대상을 찾았다. '융합/미발달된 자기도식'을 가지고 있는 배우자는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정서적 및 실제적 상호작용에의 단절 경험이 있었으며, 상대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도 강한 애착관계를 원했지만 끊임없는 외로움과 정서적 결핍감을 경험하였다. '불신/학대도식'과 '정서적 결핍도식'을 가지고 있는 배우자는 어린 시절부터 학대경험과 불신경험이 있었으며 결혼 후에서 상대 배우자에 대한 의심과 불신을 나타냈다. 이처럼 부부들의 특정 도식과 원가족 경험의 특징을 볼 때, 부부들의 어린 시절 부모와의 관계 경험은 그들의 주된 도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도식은 결혼생활 중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재현되었던 것으로 확인된다(조성호, 2002; Stiles, 2004; 김시연과 서영석, 2008). 하지만 부부들은 자신과 배우자의 심리도식이 그들의 부부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자각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부부들이 집중하는 표면적인 갈등이나 배우자의 행동 이면의 심리도식과 같은 심층적인 요인의 상호작용이 표면적인 문제들에 대한 과장된 지각에 영향을 주어 부부갈등을 증폭시키는 부부들의 역동에 대한 이해 증진 및 부정적인 도식의 교정을

돕는 심층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본 연구 대상 부부들의 갈등 경험 시 갈등해결방식은 ① 임시방편적 해결, ② 갈등 무시/묵인, ③ 대화회피/단절, ④ 극단적 행동/폭력적 다툼, ⑤ 주변의 도움요청의 5가지 형태로 나타났으며 이 또한 연구문제 1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갈등해결방식은 유형으로 분류되기보다는 갈등의 변화에 따라 점진적으로 나타나는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모든 부부들에게서 모든 갈등해결방식이 관찰되었으며, 갈등의 초기, 중기, 후기로 구분하여 과정에 따라 갈등해결의 방식이 변화하였다.

갈등 초기의 부부들은 스스로는 원치 않는 것이라도 상대가 원하는 요구를 즉각적으로 들어주려고 노력하거나 지키지 못할 과도한 약속을 하고 나중에는 더 나아질 거라는 막연한 기대와 바람으로 갈등상황을 넘기는 임시방편적 해결을 하였다. 갈등이 반복되는 갈등 중기에는 점차 갈등 해결에 무기력해져 갈등을 무시하거나 묵인하며 의미 없다고 느껴지는 대화를 회피하고 단절되기에 이르렀다. 결국 갈등 후기에는 해결되지 않고 싸인 감정들이 아주 사소한 일상들, 특히 육아와 관련된 일상에서 촉발되어 가출 및 내쫓기 등의 극단적 행동과 원가족 및 경찰이 개입되는 폭력적 다툼으로 갈등에 반응하는 양상으로 발전하였다. Amato 등(1995)에 따르면 부부가 갈등이 발생했을 때 부정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대처하는 것은 부부관계의 악화를 넘어 이혼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본 연구의 부부들은 이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폭력적 상호작용이 빈번하였다. 또한 부부갈등에 대해 남편과 아내가 대처하는 방식은 평균적인 차이를 보인다고 하는데 남편은 주로 갈등을 회피함으로써 갈등해결의 기회가 적은 경향이 있고(Rubin, 1992), 아내는 갈등에 대해 주로 남편을 비난함으로써 갈등의 불씨를 키우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Gottman & Krokoff, 1989). 본 연구의 부부

들에게서도 갈등해결방식에 있어 성차를 보였는데, 아내는 요구하고 비난하며 남편은 회피하는 양상을 나타냈다. 그러나 이러한 양상은 부부 갈등이 발생하는 초기 단계에 주로 관찰되었고 갈등이 반복되면서 남편과 아내 모두 갈등을 무시하고 억압하거나 대화를 회피하는 방식이 주를 이루었고 쌓인 부정적인 감정을 간헐적으로 극단적 및 폭력적 행동으로 상호작용하는 양상이 특징적이었다. 한편 일부 부부들은 건설적인 방법으로 부부 상담과 같은 전문적 도움을 받고자 시도하기도 하였지만 한 쪽 배우자의 인식부족과 비용부담의 문제로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대화단절이 장기화되다가 감정적 갈등이 심화될 경우 극단적 행동과 폭력적 행동이 더욱 심각해져 원가족이나 경찰 등 제 3자의 개입으로 부부갈등이 중재되는 양상을 나타냈다. 이에 연구자와의 심층면담에서 부부관계 회복을 위해 시도하기 원하더라도 양가 가족들이 갈등에 개입되어 있는 상태라 돌이킬 수 없음을 인지하고 포기하는 모습을 보였다. 따라서 갈등 초기에 억압이나 회피와 같은 임시방편의 해결과 같은 미숙한 부부갈등 방식이 갈등이 지속되면서 더욱 부정적인 양상으로 악화되어 결국 이혼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이를 수 있기에 부부 사이의 갈등이 발생하면 갈등 초기에 효과적이고 건설적인 갈등해결을 위한 의사소통교육이 효과적이겠다.

2) 남편과 아내의 이혼결정과정

이혼을 과정으로 보는 많은 학자들의 견해 가운데 본 연구에서의 이혼과정은 ‘결혼 생활에 불만을 인식하는 단계’로부터 시작하여 ‘이혼의 가능성에 대해 심각하게 고려’하는 단계, 이혼에 대해 ‘배우자 및 주변 사람들과 의논하는 단계’, 이혼에 대해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단계’, 그리고 법적 이혼 전 별거 단계‘ 등이 이혼의 과정에 포함된다고 한 Booth와 White(1980)의 입장과 유사

하였다. 본 연구에서 부부들의 이혼과정은 ① 갈등발생단계, ② 상호작용 회피 단계, ③ 친밀감 상실 및 성관계 회피 단계, ④ 의도적 별침 및 별거단계, ⑤ 법적 이혼실행단계의 5단계 과정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연구 문제 2에 관한 것이다. 5단계의 이혼결정과정은 남편들과 아내들에게 동일한 과정으로 나타났으나 이혼결정과정의 인과적 조건, 맥락적 조건, 중재적 조건, 행위/상호작용전략, 중심현상에서는 남편들과 아내들에게서 차이가 발견되었다.

첫째, 갈등발생단계에서 부부들은 준비 없는 결혼, 임신과 출산, 육아로 일-가정의 다중역할로 인한 고충과 갈등이 결혼생활에서 큰 위기로 작용하였다. 일-가정 다중역할 갈등은 이후의 결혼생활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부부관계에 상당한 혼란을 주었다. 따라서 예비 부부교육 시 문제해결 및 효과적 의사소통을 기반으로 하여 구체적으로 일-가정 다중역할 갈등을 다루는 능력을 교육할 필요가 있으며, 효율적 역할 분담으로 일-가정 다중역할 갈등을 단기간에 끝낼 수 있도록 조속한 개입이 중요하다. 김한별(2012)은 결혼초기 부부들의 적응과정과 학습경험을 연구한 결과 '배우자(spouse)의 정체성 획득'이 중심현상으로 나타나 결혼생활에서 구체적으로 요구되는 자신의 역할을 인식하고 실제로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으며, 최승미와 권정혜(2012)는 첫 자녀 출산 전후 부부의 관계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에서 '부부의 새로운 역할 인식과 우리성(We-ness)'을 핵심범주로 도출하고 부부단위의 정체성을 획득하는 것이 출산과 양육이라는 생애전환기를 맞는 부부들의 적응에 중요한 요인이라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부부들이 출산 후 원가족과의 관계 및 양육문제로 인해 부부갈등이 증폭되는 과정에서 '혼자'라는 경험과 배우자가 '알아주지 않는'다는 경험을 하여 '우리성', 혹은 '배우자 정체성'의 획득이 불안정했던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갈등발생단계에서의 부부는 한 팀으로서 '우리성'과 '배우자로서의 정체성 획득'을 촉진

함으로써 자녀들에게만 집중되는 보살핌과 사랑의 공유를 배우자에게 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갈등발생단계에서 부부의 친밀감과 유대를 돈독히 하고 결혼의 의미를 강화하여 이혼을 예방하는데 효과적이겠다. 더 나아가 아내들에게는 시댁문화에 적절히 적응하고 고부갈등을 유연하게 넘길 수 있는 방법적인 교육과 가사노동과 육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산후 우울증을 관리할 수 프로그램을, 그리고 남편들에게는 새로운 가족문화에 적응하는 아내의 고충을 이해하고 지원하며, 고부갈등 시 적절하게 중재할 수 있는 방법적인 교육과 함께 아내들이 육아를 보다 쉽게 감당하는데 중요한 것으로 알려진 남편의 정서적 역할지원을 돕는 프로그램과 같이 남편과 아내에게서 차별적이면서 구체적이고 실제적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할 것이다.

둘째, 상호작용회피 단계에서 부부들은 출산으로 인한 각방 사용이 지속되고, 이전 단계의 갈등이 반복될 경우에 상대 배우자에게 감정이 쌓이게 되고, 서로에게 요구, 비난, 불평, 불만을 토로하며 감정싸움을 하게 되는 배우자와의 상호작용을 회피하였다. 이 단계에서 부부들의 감정은 다음 단계에서 경험하는 배우자에 대한 화, 분노의 감정에 비해 훨씬 개입하기에 용이하므로 배우자에 대한 화와 분노 감정으로 부부들의 감정 변화가 심화되기 전에 부부들의 감정을 다루는 것은 부부관계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Jacobson & Margolin, 1979). 그러므로 이 단계에서는 부부 개별의 정서완화 및 조절, 그리고 배우자의 행동에 대한 재해석과 수용을 촉진하는 개입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배우자의 정서를 수용하고 공감과 위로를 끌어낼 수 있는 부부의 건강한 정서적 관계를 촉진하는 접근은 배우자 외의 관계에서 공감과 위로를 충족함으로써 부부관계의 친밀감 상실과 관계 와해를 예방하는데 효과적일 수 있다.

셋째, 친밀감 상실 및 성관계 회피 단계의 부부들은 배우자와 지속되는 갈등으로 부정적인 감정이 분노, 화 등으로 악화되고, 극단적이고 폭력적인 형

태로 갈등에 반응하였고 서로에게 친밀감이 상실되며 배우자와의 성관계를 회피하거나 거부하는 악순환이 관찰 되었다. 더 나아가 이 단계의 부부들은 배우자에 대한 배신감과 수치심, 외로움, 우울 등 좀 더 지속적이고 전반적인 삶에 영향을 주는 정서경험을 하게 되므로, 상대방의 문제행동이나 상대방과의 관계에만 초점을 두기 보다는 스스로 자신의 감정과 존재감 등 보다 자기성장의 차원에 초점을 둠으로써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힘을 촉진함과 동시에 Gottman & Gottman(2010)의 모델에서 강조하는 것처럼 갈등상황이 지속되면서 나타나는 부부들의 부정적인 정서를 낮추고 부부의 친밀감과 우호감을 높여 부부들의 긍정적 정서를 쌓는 노력을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넷째, 의도적 별침 및 별거 단계의 부부들은 이혼을 고려하고 준비하려는 의도로 별거 및 별침을 선택하고 배우자와의 관계는 감정적으로 죽은 결과를 초래하고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하고 더 악화될 것이라는 무망한 인식과 관계 회복에 대한 의지 상실을 경험하였다. 한 배우자가 이혼의지가 확고하며 새로운 삶에 대한 갈망이 증가하며 정서적으로 이혼한 상태에 이르므로 실제적인 관계 회복의 가능성은 희박하고 이혼으로 이어진다(Gottman, 2010). 그러므로 이 단계에서는 결혼의 의미와 자신의 삶을 재고하는 과정을 통하여 자존감을 회복하고 배우자를 용서하며 자기실현을 돕는 과정이 필요하다.

다섯째, 법적이혼실행 단계의 부부들은 이혼억제요인이 사라지면서 법적 이혼을 실행하였다. 본 연구의 10쌍의 부부들은 모두 아내들의 적극적 이혼요구로 법적 이혼절차를 시작하였으며 이들 중 1쌍은 이혼접수를 3회, 1쌍은 이혼접수를 2회 하였으며 또 3쌍은 이혼결심을 3회, 5쌍은 이혼결심을 2회 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 차례 이혼결심과 이혼접수를 하였지만 이혼접수를 비롯한 법적 절차를 모두 이수하지 못한 것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

는데 그 중 가장 큰 요인은 이혼억제요인이었다. 부부들에게 이혼억제요인은 '자녀들에 대한 걱정', '사회적 편견과 낙인', '가족과 주변의 이혼만류' 등이었는데 본 연구의 심층면담에서는 이혼하는 부부들은 기존에 법적 이혼실행을 유예할 수 있었던 이혼억제요인이 약화된 경험을 보고하였다. 즉 부부들은 자녀들이 부부싸움에 계속해서 노출되고 불안한 환경 속에서 일관된 양육을 제공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는 것보다 '이혼이 자녀에게 더 좋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노진숙, 함경애, 김미옥, 김환구, 천성문, 2014). 또한 부모가 행복하고 개인생활이 나아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사회적 낙인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다. 또한 지금까지 이혼을 만류하던 가족 및 지인들이 이혼을 방관/묵인하거나 '이혼을 지지'하면서 이혼억제요인이 약화되었다. 이 단계의 부부들은 적어도 한 배우자가 이혼에 대해 더 확고한 의지와 적극적 태도를 갖고 다른 배우자는 이혼요구를 수용하게 되므로, 이혼과 관련한 실제적인 협의와 문제해결을 위한 접근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양육을 비롯한 현실적인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협의하고 부부관계로서가 아닌 부모 관계로서의 관계 및 역할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김요완(2009)은 이혼소송의 과정을 갈등발생단계, 자존심 손상단계, 무시단계, 성관계 단절단계, 역할중단단계, 상호공격단계, 단절단계의 7단계로 나누고, 성관계 단절의 단계를 정서적 이혼으로 보았으며 역할중단 단계부터는 법적이혼의 단계에 이르는 과정으로 관계회복이 어렵다고 보았으나, 본 연구는 부부갈등경험과 이혼결정과정에 관한 연구로 부부들의 성관계 문제는 두 지점 즉 갈등발생단계에서의 상황에 따른 별침과 법적이혼실행단계 이전의 의도적 별침 및 별거 단계에서의 의도적 별침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아내들은 남편들에게 정서적으로 멀어지면, 의도적으로 성관계를 회피하고 마음을 닫는 정서적 이혼을 의미하는 마음이 떠남이 중재적 조건으로 작용하여 의도적 별

침 및 별거에 이르게 되는 것으로 나타나 별침의 두 형태에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이혼에 대한 의도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별침 및 별거하는 단계에서부터는 부부관계의 회복이 어려운 것으로 확인되어 이전 갈등단계에서 부부들의 애착과 정서적인 친밀감의 유지를 위한 갈등해결 및 관계 회복을 위한 개입이 효과적일 것이다.

3) 남편과 아내의 표면적 이혼 사유와 심층적인 이혼사유

본 연구의 10쌍의 부부들은 모두 이혼사유에 '성격차이'를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으며, 기타 다양한 이유도 이혼사유로 보고하였다. 하지만 주요 면담질문지에 따른 심층면담에서 '결정적 이혼사유'에 대한 물음에서는 '성격차이'라는 말로 간단히 응답하지 않았다. 아내 9는 '설문지라 남편이 보기도 하고...그래서 성격차이라고 체크했어요. 성격차이였다면 살 수 있었을 거예요.'라고 하였고 아내 10은 '외도를 했다는 거, 외도 정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쌓였던 것들이 외도 때문에 터진 거예요.'라고 하였으며, 남편 5 또한 '저도 살면서 다 잘한 건 아니니까 아내의 외도는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했고 또 그렇게 살았어요.'라고 하며 외도를 표면적 이혼사유로 보고하였으나 이혼과정에 이르기까지 당사자들의 내적 경험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부부들이 이혼결정과정에 이르는 심층적인 요인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선택코딩의 핵심범주와 이야기 윤곽에서 서술한 것처럼 남편들의 심층적 이혼사유는 '삶의 의미상실'이라는 중심현상에서 이혼을 통하여 '무의미한 삶에서 벗어나 진정한 나를 찾기'위한 것이었다. 남편들은 아내에게 가장, 남편, 아빠로서 자신의 고생을 '대우/인정받지 못하고' 남편으로서 '보살핌/사랑받지 못하는' 경험과 함께 '배우자로서의 의미를 상실'하면서 삶

전반의 의미상실을 자각하였다. 상담소를 찾은 이혼위기의 기혼자들을 대상으로 한 강희숙과 양정옥(2013)의 연구에서 부부갈등의 중심현상으로 '삶의 의미상실'을 도출한 것과 유사하다. 또한 이혼소송 중 부부관계의 와해과정을 연구한 김요완(2009)의 연구에서 도출된 중심현상인 '자존감 손상'은 본 연구의 남편들의 중심현상의 하위범주에서 발견된 '대우/인정받지 못함'의 범주와 유사한 것으로 이해된다. 한편, 아내들의 심층적 이혼사유는 '혼자라는 생각/느낌(외로움)'이라는 중심현상에서 이혼을 통하여 '외로움의 터널에서 빠져나오기' 위한 것이었다. 아내들은 동지처럼 무언가를 함께 할 수 있다는 남편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고 남편이 '의지되지 않고' 여자로서 사랑받고 부부로서의 의리와 정을 나누는 '부부애가 없음'을 느끼면서 오롯이 '혼자라는 생각/느낌(외로움)'을 경험하였다. 남편들과 아내들의 이혼결정과정에서 중심현상의 차이는 부부 간의 성차를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남편들의 이혼결정과정의 중심현상이 '삶의 의미상실'로 도출된 것은 정서적 관계보다는 자신의 가정에서 경제적이고 가족을 보호하려는 역할에 대한 인정을 원하는 남성들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이는 한편, 아내들의 이혼결정과정의 중심현상이 남편과의 관계에서 애정과 친밀감 추구의 욕구가 좌절되어 '혼자라는 생각/느낌(외로움)'으로 도출된 것은 남편들에 비해 부부관계에서 정서적 친밀감의 관계를 중시하는 여성들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결과는 부부상담 및 임상실무에서 부부갈등경험과 이혼결정과정에서 경험하는 남편들과 아내들이 중심현상의 차이를 이해하고, 개인 및 부부관계 내에서 이와 같은 내적인 요소들을 다루는 개입을 제공하여야 한다.

연구결과와 결론에 근거한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법원에서 법적이혼절차 중인 부부들을 심층 면접한 연구

로 지금까지 이혼이라는 주제가 지닌 민감성 때문에 연구하기 어려운 대상자를 연구하고 부부갈등경험과 이혼과정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도와 후속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남편들과 아내들에 따라 이혼에 이르게 되는 내적인 경험의 차이를 연구하여 그 차이를 실증적으로 반영하였다. 특히 기존의 표면적 이혼사유를 밝히는 연구들에서 더 나아가 '성격차이'라는 표면적 이혼사유 이면의 심층적인 이혼사유를 밝혔다. 이에 '성격차이'라는 공통적인 표면적 이혼 사유 이면에 남편들은 '삶의 의미상실'을, 아내들은 '혼자라는 생각/느낌(외로움)'을 중심현상으로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차이를 확인하여 부부들의 심층적인 이혼사유를 밝힌데 그 의의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결혼생활 동안 부부갈등이 발생할 때 부부들의 갈등대처방식과 의사소통방식을 포함한 상호작용과정에서의 변화와 인지 및 정서의 변화를 일련의 과정에 따라 실증적으로 밝히면서 부부갈등경험에서 이혼실행에 이르는 과정을 단계적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기존의 부부의사소통에 기반을 둔 프로그램에 중요한 요소로 '삶의 의미'나 '우리' 혹은 '함께'라는 성장적인 요소들을 포함시킬 필요성에 대해 제안하였다. 이에 임상실무에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단계에 따른 부부들의 변화를 이해하고 부부들의 핵심경험을 반영한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넷째, 본 연구는 근거이론연구와 설문연구를 통합적으로 활용하여 설문연구 결과가 실제 부부들의 실제 경험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확인하였다. 또한 부부들이 실제로 자신의 인지, 정서, 행동에 대해 객관적인 자각이 어렵고 이것이 부부관계 상호작용 시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도 확인하였다. 이에 부부들로 하여금 부부관계에 영향을 주는 자신의 심층의 문제들을 먼저 인식하는 선행과정 후 이를 치유하는 프로그램이 병행되는 것이

중요함을 제안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2. 제한점 및 제언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재판상 이혼 및 협의 이혼을 신청하여 법적절차 중인 결혼 지속년수가 10년 이하인 30~40대 부부 10쌍을 대상으로 부부갈등경험 및 이혼실행과정을 연구한 것으로 표집의 한계로 인하여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이혼을 실행하는 다양한 연령대의 전체 부부들의 경험을 이해하는데 일반화하기 어려운 제한이 있다.

둘째, 본 연구에 참여한 부부들의 면담시점은 부부에 따라 법적이혼 절차 중 다양한 시점에 이루어졌다. 즉 어떤 부부는 법적이혼 절차 초반에, 어떤 부부들을 법적이혼 절차 후반에 면담이 이루어져 연구를 종료하는 시점에 모든 부부들이 최종적으로 이혼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 따라서 엄격한 기준에서 이혼을 실행한 부부들을 대상으로 부부갈등경험과 이혼실행과정에 대한 경험을 확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

셋째, 연구 대상자 10쌍의 부부 중 3쌍의 부부는 재판상 이혼절차 중이고 나머지 7쌍의 부부는 협의 의혼절차 중에 있어 재판상 이혼절차 중인 부부와 협의 이혼절차 중인 부부들의 사례 비율이 달라 두 유형의 부부들의 부부갈등경험과 이혼결정과정에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지 못했다. 따라서 법적절차 형식에 따른 부부경험의 차이를 연구하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른 제언을 부부문제에 관한 임상연구 측면과 임상실무 측면, 그리고 사회복지정책 측면의 세 측면으로 언급하고자 한다.

1) 임상연구 측면

(1) 질적 연구의 확대실시 필요성

첫째, 부부들은 부부갈등과 이혼경험에 관한 질문에 대해 상대방이 이해하기 쉽고 설명하기 쉬운 방식으로 간단하게 응답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혼사유에 관한 질문들이 대체로 그러하다. 부부문제와 같이 심층적인 문제에 관한 연구 시 자기보고식의 설문지에만 의존할 경우 개인의 주관적 지각에 따라 부부들의 실제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데 제한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이혼연구에 관해 양적연구에만 의존할 경우 주제가 지니는 민감성과 복잡성 때문에 표면적 문제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결혼생활에서의 표면적인 문제에만 집중하지 않고 본 연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부부관계에 원인적 요인으로 영향을 주는 원가족과의 관계 경험, 개인의 인지 및 도식, 정서요인과 같은 갈등의 기저에 있는 심층적인 요인에 대한 탐색이 필요하다. 또한 원인적 요인들이 실제 부부관계에서 어떠한 행위/상호작용을 통해 갈등양상으로 드러나며 이혼과정과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탐색이 가능한 질적 연구가 확대 실시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부부문제에 관한 연구 시 양적측정과 함께 심층면담과 관찰을 접목한 중다평가적 방법을 사용한다면 부부의 실제를 보다 풍부하게 평가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부부치료 실제에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본 연구 대상자들과 동일한 연령과 결혼지속년수의 대상자들을 지역과 경제적 수준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연구해야할 뿐만 아니라 보다 이질적인 집단으로 확대 실시하여 부부갈등경험과 이혼과정에 대한 보다 다양한 심층적 연구가 필요하다. 이 뿐만 아니라 결혼생활 중 갈등이 있지만 행복한 결혼을

유지하고 있는 건강한 부부들을 대상으로 행복한 결혼유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가령 본 연구에서 남편들과 아내들의 경우 '삶의 의미상실'과 '혼자라는 생각/느낌(외로움)'이 이혼결정의 중심현상으로 확인된바, 본 연구 대상자 부부와 동일한 조건의 행복한 부부집단에게서 이러한 요인들이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지, 실제로 중심현상이 행복한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의미있는 연구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2) 양적연구에의 적용

첫째, 남편들과 아내들에게서 '삶의 의미상실'과 '혼자라는 생각/느낌(외로움)'이 이혼결정과정의 중심현상으로 발견되었는데 '삶의 의미상실'은 '대우/인정받지 못함', '보살핌/사랑받지 못함'이라는 하위범주에서 도출된 범주이며, '혼자라는 생각/느낌'은 '의지되지 않음', '신뢰할 수 없음', '부부애가 없음'이라는 하위범주에서 도출된 범주이다. 그러나 남편들과 아내들에게서 '삶의 의미상실'과 '혼자라는 생각/느낌'이 독립적으로 부부 결혼만족 및 결혼안정성에 영향을 주는지, 이것이 부부갈등과 같은 결혼생활 중 겪을 수 있는 스트레스를 견디는 힘이나 회복력 등에 작용하는지, 혹은 부부의 정서에 영향을 주어 갈등 시 의사소통 및 상호작용을 악화시키는지 등 상관에 대한 이해는 어렵다. 따라서 '삶의 의미상실'과 '혼자라는 생각/느낌'의 속성을 구체화하고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도구의 개발과 양적연구 및 질적연구를 통합한 접근을 통하여 이혼결정과정에 이르는 부부들의 중심현상을 명료하게 사정하고 적절하게 개입할 수 있는 지침의 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기존의 부부문제와 심리도식에 관한 연구들은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부적응도식과 이를 매개하는 요인들을 살펴보는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김시연, 서영석, 2008; 이지혜, 채규만, 2012). 본 연구에 따라 부부들의 심리도식과 도식의 상호작용이 어떠한 갈등을 유발하며 부부 상호작용 시 어떤 형태로 표현되어 부적응도식이 강화되고 악화되는지에 관한 부부 쌍 연구가 더 활발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부부 도식의 유형에 따라 부부들의 갈등 영역과 유형에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그에 따라 부부갈등을 조절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부부갈등이 이혼실행으로 악화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구체적인 지침을 제안하기 위해 더 많은 부부들을 대상으로 한 양적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부부문제를 신속히 사정하고 예측하며 조절할 수 있는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2) 임상실무 측면

(1) 부부 상담 프로그램에의 적용

연구 대상 부부들의 부부갈등경험과 이혼결정과정은 갈등발생단계, 상호작용 회피 단계, 친밀감 상실 및 성관계 회피 단계, 의도적 별침 및 별거단계, 법적 이혼실행단계로 이루어지는 일련의 과정이었다. 이에 부부 상담의 현장에서 부부들이 어떤 단계에 놓여있는지 정확하게 진단하고 단계별 특징에 따라 적절한 개입이 이루어져야할 것이며, 무엇보다 이혼을 결심하고 의도적인 별침과 별거의 단계에 진입하기 전의 조속한 개입이 부부관계의 갈등을 완화하고 이혼을 예방할 수 있는 적기가 될 것이다.

(2) 이혼 상담 프로그램에의 적용

법적 이혼절차 중인 부부들을 대상으로 한 이혼상담에서의 주안점은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 재산분할 등 실제적인 법적 협의를 원만하게 이루는 것이다. 이에 이혼상담 시 당사자들은 결혼실패의 원인을 표면적인 배우자의 과오에만 집중하고 법적으로 보다 나은 고지를 점령하고자 투쟁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이혼상담 과정에서 부부로서 와해된 관계를 건강한 부모관계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이혼의 중심현상인 '삶의 의미상실'과 '혼자라는 생각/느낌(외로움)'을 자각하고 치유하는 본질적 개입은 부모로서 개인의 성숙을 도울 것이다. 부모의 성숙은 결국 자녀에게 심리적으로 더 안전하고 건강한 양육환경을 마련하려는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자녀의 심리적 복리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며, 향후 안정된 재혼을 준비하고 재혼가정의 안정성을 높여 이혼을 예방하는데도 근본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3) 정책적 측면

본 연구의 부부 2, 3, 5, 6, 7, 8은 결혼생활 중 여러 차례 심각한 부부갈등을 경험하고 이혼을 고려하며 시도하려고 했던 경험이 있었다. 반복되는 갈등 속에서 부부들은 부부 상담과 같은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고자 시도한 경험도 있었다. 하지만 비용부담의 문제와 배우자의 인식 및 협조부족으로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지 못했고 위기상황에서 무기력한 시간을 보냈다. 여전히 법원의 문턱은 낮고 부부문제를 도울 전문기관의 문턱은 높은 현실이 안타깝다.

2007년부터 실시된 이혼숙려제도는 이혼율을 낮추고자 신중한 이혼을 도우려는 것이지만 실제로 이혼실행을 하는 부부들을 대상으로 한 숙려기간의 단기 상담은 부부문제의 해결과 재결합보다는 원만한 협의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이유는 본 연구의 대상자 부부들에게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결혼생활 동안 여러 차례 반복된 갈등으로 이혼을 고려하고 시도하며 더 이상 변화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지한 상황에 있는 부부들이 법적 이혼절차를 시작하기 때

문이다. 이 같은 이혼상담의 현실을 고려할 때 부부문제의 해결은 법적 이혼을 시도하기 전에 이루어져야 효과적일 수 있다.

부부문제는 민감하고 복잡한 사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높은 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 자발적으로 공개하기 어려운 특징이 있다. 이를 감안할 때 정책적 측면에서 부부상담의 문턱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는 국가가 복지 대상에게 직접 현금이나 서비스, 물품을 제공하는 대신 정해진 이용처에서 서비스로 교환할 수 있는 이용권을 제공하는 바우처 제도가 있는데 특히 최근에는 아동,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바우처를 통한 심리지원서비스를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다. 이와 같이 부부들의 경우에도 결혼생활 중 주요 발달과업이 주어지는 시기마다 심리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바우처 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임산부에게 임신과 출산 시 바우처를 제공하고 있고 바우처를 제공받는 임산부는 자연스러우면서 당연하게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다. 이처럼 부부생활의 전환기마다 거리낌 없이 정기적인 부부 상담과 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다면 궁극적으로 부부갈등을 완화하고 이혼율을 낮추는 사회적 공헌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된다.

참고문헌

권윤아, 김득성(2008). 부부간 역기능적 의사소통 행동 척도 개발-Gottman의 네 기수(騎手) 개념을 중심으로.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46(6), 101-113.

권윤아, 김득성(2008b). 부부싸움에서 사용하는 의사소통 행동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6(10), 83-96.

강유진(2005). 부부관계에 대한 비합리적 신념과 결혼의 질. 서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강희숙, 양정옥(2012). 이혼위기에 처한 부부들의 부부갈등과정에 대한 질적 연구. 한국가족치료학회지, 20(2), 183-199.

고현선, 지금수(1995). 부부의 갈등대처유형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 13(4), 71-83.

고선주, 옥선화(1993b). 부모기로의 전이에 관한 연구 2: 부모기로의 전이에 따른 부부 결혼적응의 변화. 대한가정학회지, 31(3), 127-141.

곽배희(1993). 이혼원인 및 과정에 관한 사례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구혜경, 유영달(2008). 기혼부부의 결혼만족도, 이혼고려 정도 및 이혼장애요인에 관한 연구: 부부간 차이를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 20(4), 1-34.

권정란, 이인숙(2006). 원가족의 정서적 건강성과 자기분화에 따른 부부적응.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1(1), 35-56.

김갑숙, 최외선(1992). 아내가 인지한 부부갈등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0(2), 133-143.

김경신, 조유리(2000). 부부의 갈등대처행동과 결혼만족도. 한국가족관계학회지. 5(2), 1-21.

김경신, 이선미(2000). 노년기 부부갈등에 관한 고찰. 한국노년학연구, 9, 89-106.

김경자(2003). 기혼남녀의 원가족 경험과 자기분화가 가족체계기능에 비치는 영향.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미정(2001). 부부들이 지각하는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사회적 요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민녀, 채규만(2006).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기혼자의 결혼만족도.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1(4), 655-671.

김명자, 권오실(1996). 부부간의 갈등정도와 갈등관리방법 연구: 첫 자녀가 초등학생 이하인 부부를 중심으로. 생활과학연구지, 11(1), 3-22.

김시연, 서영석(2008). 부적응 도식과 일상적 스트레스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지각된 부부 지지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0(4), 1243-1265.

김순기(2001). 기혼자녀가 지각하는 원가족의 정서적 건강성과 자아정체감이 결혼 후 심리적 안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순기, 유영주(2001). 기혼자녀가 지각하는 원가족의 정서적 건강성과 자아정체감이 결혼 후 심리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6(1), 43-64.

김순숙(2012). 중년기 기혼남녀의 자기분화, 자아존중감, 갈등해결전략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영기, 한성열, 한민(2011). 부부 의사소통 유형과 부부 성만족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7(2), 199-218.

김오남(2006). 이주여성의 부부갈등결정요인 연구.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요완(2000). 부부의사소통유형, 성 지식수준과 성 만족도의 관계연구. 경희대학교 학생생활연구, 5, 63-87.

김요완(2007). 이혼소송 중인 부부의 부부관계 와해과정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요완(2009). 근거이론을 적용한 이혼소송과정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1(2), 559-583.

김은정(1992). 결혼초기 주부의 역할갈등 및 갈등해결 방법과 결혼만족도.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재경(1992). 부부의 갈등과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형성기 가정과 확대기 가정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진숙, 권석만(2010). 인지행동적 요인과 부부불만족도 사이의 관계. 한국심리학회, 29(2), 265-288.

김정숙(2009). 부부의 자아분화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갈등대처행동, 의사소통의 매개효과와 배우자 지지의 조절효과.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정옥(2011). 이혼 전 의사결정단계 부부를 위한 치료 사례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9(10), 91-100.

김현숙(2017). 이혼하는 부부가 경험하는 부부갈등 변화과정 연구. 충북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한별(2012). 결혼초기 부부의 적응과정에서 학습경험탐색: 근거이론접근. 교육문제연구, 44, 1-35.

김희연, 채규만(2010). 심리도식, 가족응집성-적응성, 스트레스 취약성과 자살생각의 관련성. 인지행동치료, 10(1), 39-55.

남순현, 전영주, 황영훈(205). 보웬의 가족치료이론. 서울: 학지사.

노진숙, 함경애, 김미옥, 김환구, 천성문(2014). 기혼자의 결혼유지와 이혼결정과정 분석. 재활심리연구, 21(1), 97-115.

박민지(2005). 부부친밀감에 영향을 미치는 원가족 분화수준과 가족규칙 및 부부의 사소통.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봉순, 김영희(2010). 원가족 분화경험이 기혼남녀의 부부친밀감에 미치는 영향: 자아정체감과 자녀에 대한 태도를 매개로. 대한가정학회지, 48(9), 1-11.

박수진, 이인수(2015). 부부의 원가족건강성이 부부친밀감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가족과 가족치료, 23(2), 381-400.

박영화, 고재홍(2005). 부부의 자존감, 의사소통 방식 및 갈등대처행동과 결혼만족도간의 관계: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한국심리학회: 산업 및 성격, 19(1), 65-83.

박태영, 문정화(2013). 부부치료를 통해 본 부부갈등 및 이혼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8(1), 23-49.

사법연감(2017). 법원행정청. http://www.scourt.go.kr

서미아(2017). 남편과 아내의 애착손상 및 정서조절력이 부부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자

기-상대방 상호의존성 모델을 활용하여. 가족과 가족치료. 25(2), 327-345.
서병숙(1993). 결혼과 가정. 서울: 학문사.
서정숙(2010). 부모 부부갈등과 기혼자녀 부부갈등의 관계에서 부모 양육태도와 기혼자녀의 자아탄력성, 성의 매개효과.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신경림, 조명옥, 임진향 외(2013). 질적연구방법론.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양명숙(1993). 부모전환기에서의 역할연구(1): 부모역할관에 대하여 첫째 자녀와 둘째 자녀를 출산하는 한국의 부모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1(4), 53-66.
엄정희(2009). 원가족 부모의 양육태도와 부부자아개념 및 부부응집성, 부부의사소통과의 경로모형분석. 백석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연규진(2006). 부부관계에 대한 비합리적 신념과 결혼만족도와의 관계-다층모형을 이용한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분석-. 연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연규진, 연문희, 양지웅(2013). 부부관계에 대한 비합리적 신념과 결혼만족도와의 관계 -다층모형을 이용한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분석-. 한국가족치료학회지, 21(1), 57-80.
연우석, 채규만(2014). 성 의사소통 훈련을 혼합한 부부대화법 프로그램의 결혼 및 성 만족에 미치는 효과. 인지행동치료, 14(1), 1-19.
유순희(2016). 황혼이혼 결정과정에 관한 연구-근거이론 중심으로-. 울산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유영주(1977). 가족관계학. 서울; 교문사. 234-235.
유은희(1994). 상담가족의 부부간 상호작용. 한국도시가족의 부부문제연구. 한국가족상담교육연구소 개소 1주년기념 학술세미나 연구보고서 제 1권.
유정이, 김명자, 이지은, 이호준, 김수리(2006). 이혼경험에 대한 질적분석-부모의 경험과 부모자녀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 상담 및 심리치료, 18(1), 157-176.
윤미혜, 신희천(2009). 일상사건의 공유를 통한 부부의 친밀감 발달과정: 지각된 배우자 반응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3(1), 17-32.
이경성(2001). 이혼의도, 시도 및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6(2), 97-119.

이경성, 한덕웅(2001). 부부관계에서 배우자 행동의 귀인이 결혼만족과 이혼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5(2), 41-64.

이경희(1998). 부인이 지각한 갈등과 친밀감에 따른 부부관계유형. 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미영, 조현, 권정혜(2009). 자기개방과 공감반응이 친밀감에 미치는 영향-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국심리학회 연차 학술발표 논문집, (1), 254-255.

이미열(2006). 청소년의 애착과 우울증과의 관계. 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명신, 김유순(2005). 이혼사유별 의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남녀 모델 비교. 여성연구, 69, 35-91.

이무영(2003). 이혼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숙명여자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민식, 오경자(2000). 부부갈등이 아동의 내면화 및 외현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 아동의 지각된 부부갈등과 양육태도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4), 727-745.

이봉은, 김세경, 천성문(2017). 부부의 자기분화와 부정적 상호작용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수산해양교육연구, 29(5), 1501-1512.

이선미, 전귀연(2001). 결혼초기 남편과 아내의 부부갈등과 갈등대처방식이 결혼만족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 19(5), 203-220.

이소미, 고영건(2009). 자아분화가 결혼적응에 미치는 효과: 갈등대처행동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8(3), 643-658.

이숙희, 고재홍(2012). 부부의 긍정적 착각과 결혼만족: 자기효과와 배우자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7(2), 149-170.

이영숙(1990). 부부간의 지위부조화와 갈등해결방법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8(1), 49-66.

이영희(2011). 부모의 부부갈등과 자녀의 결혼안정성과의 관계에서 자녀의 원가족 분화와 부부친밀감의 매개효과. 영남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정은, 이영호(2000). 개인특성, 스트레스 및 부부간 의사소통과 결혼만족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 임상, 19(3), 531-548.

이종원(2002). 부부 갈등과 관련된 원가족 변인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이종한(2004). 이혼 전 상담제도의 필요성과 상담의 방향. 한국상담심리학회 심포지엄 자료집, 13-31.

이현주(1997). 부부의 자아분화정도와 갈등대처행동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눈문.

이희윤, 조유현(2015). 부부의 관계신년지각, 배우자의 긍정적 행동만족, 의사소통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가족과 문화, 27, 62-88.

오제은(2011). 첫 자녀출산 후 남편이 경험한 가족관계 변화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9(8), 73-83.

오현주, 최승미, 조현, 권정혜(2013). 가부장적 원가족 분위기가 신혼부부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부정적 의사소통 패턴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8(1), 1-16.

임승락(1998). 부부간 의사소통 행동과 결혼생활만족.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임은혜(2008). 커플의 자아분화 수준의 유사성과 친밀감과의 관계연구: 예비부부와 기혼부부의 비교를 중심으로. 학생생활연구, 21, 31-47.

장문선, 김영환(2002). 부부 의사소통패턴과 특징적 갈등대처방식.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1(2), 331-347.

장문선, 김영환(2003). 기혼여성 우울증 환자의 결혼만족도에서 역기능적 태도와 부부의사소통패턴의 특성.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2(2), 399-414.

장지영, 황순택(2012). 부부의 성격과 결혼만족도 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7(2), 133-148.

장춘미(2009). 스트레스와 결혼만족도간의 관계에 대한 부부의 지지행동 및 갈등해결행동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4(1), 153-171.

조성호(2002). 초기부적응도식과 심리적 부적응. 한국심리학회지: 상담과 심리치료, 14(4), 775-788.

전영주(2006a). 이혼원인에 대한 협의이혼 청구자의 지각 및 성차. 한국가족치료학회지, 14(1), 1-19.

전영주, 이성희(2006). 협의이혼 청구자의 원가족 경험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4(5), 191-203.

정경숙(1998). 도시주부의 결혼만족도에 따른 부부갈등 해결방식과 MBTI 성격유형과의 상관연구: 중졸학력 주부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문자, 이종원(2003). 원가족 변인이 부부갈등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1(3), 147-164.

정윤경, 최지현(2010). 부모의 부부관계의 질과 자녀세대의 부부적응 및 결혼에 대한 가치관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5(3), 331-353.

정현숙(2009). 부부의 자아분화 수준과 의사소통 및 성적 친밀감 연구. 상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주혜주(2005). 이혼 여성의 이혼 결정과정.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천혜정, 김양호(2007). 기혼자와 이혼자의 결혼 및 이혼과정 차이. 한국가족복지학, 12(3), 5-23.

최규련(1993). 맞벌이부부의 결혼만족도와 우울증에 관한 연구: 학동기 자녀를 둔 맞벌이부부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1(1), 61-84.

최규련(1994). 가족체계 유형과 부부간 갈등 및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2(2), 140-152.

최규련(1994). 가족체계 유형과 부부간 문제해결 행동유형.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2(2), 262-272.

최상진, 김은미, 차영란(2006). 이혼사유의 사회적 구성; 사회적 통계와 언론보도 내용의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1(2), 227-244.

최선희, 전명희(1999). 우리나라 부부갈등과 부부관계 유형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38, 284-3-8.

최정숙(2006). 여성의 이혼과정: 분리의 혼돈에서 삶을 재구축해 나아가기. 가족과 가족치료, 14(1), 111-141.

최혜경, 노치영(1994). 기혼남녀의 부부간 문제해결 행동유형.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2(2), 262-272.

통계청(2017). 2016년 이혼통계결과. 통계청. http://kostat.go.kr

하상희(2008). 기혼남녀가 지각한 원가족 경험이 결혼만족도 및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6(2), 129-141.

한경혜, 김주현, 강혜원(2004). 성인남녀의 이혼과정 각 단계에서의 성별차이. 한국가족관계학회, 9(2), 93-118.

한국가정법률상담소(2017). 2016년도 상담통계. http://lawhome.or.kr.

홍강의, 정도언(1982). 사회재적응 평가척도 제작: 방법론적 연구. 신경정신의학, 21, 123-136.

홍순건, 채규만(2010). 한국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Gottman의 이론을 중심으로-. 인간이해와 상담, 31(2), 299-316.

황지인, 함경애, 천성문(2014). 부모의 부부갈등과 결혼안정성과의 관계에서 부부갈등대처방식의 매개. 인문학총론, 36, 381-405.

Amato, P. R. (1993). Child's adjustment to divorce: Theories, hypotheses, and empirical support.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5, 23-38.

Amato, P. R., Loomis, L. S., & Booth, A. (1995). Parental divorce, marital conflict, and offspring well-being during early adulthood. *Social Forces*, 73(3), 895-915.

Amato, P. R. (1996). Explaining th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divorc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8, 628-640.

Amato, P. R., & Rogers, S. J. (1999). Do attitudes toward divorce affect marital quality?. *Journal of Family Issues*, 20(1), 69-86.

Amato, P. R., & Booth, A. (2001). The Legacy of parents' marital discord: Consequences for Children's marital qual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1(4), 627-638.

Baucom, D. H. & Epstein, N. B., (1990). *Cognitive-behavioral marital therapy*. New York: Brunner/Mazel.

Beck, A. T. (1967). *Depression: Causes and treatment*.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Beck, A. T. (1976). *Cognitive therapy and the emotional disorders*.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y Press.

Benette, N. G., Blanc, A. K. & Bloom, D. B. (1988). Commitment and the modem union: Assessing the link between premarital cohabitation and subsequent marital stability.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3, 127-138.

Berko, R. M. Rosenfeld, L. B., & Samovar, L. A. (1997). *Connecting: A Culture-Sensitive Approach to Interpersonal Communication Competency*(2nd). New York: Harcourt Brace College Publishers.

Bohannan, P. (1970). The six situation of divorce. In P. Bohannan(Ed.), *Divorce and after (pp. 63-86)*. New York: Doubleday Company.

Booth, A., & White, L. (1980). Thinking about divorc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2, 605-616.

Coleman, J. C. (1984). Intimate Relationships, Marriage and Family, Indianapolis: The Bobbs-Merrill.

Creswell, J. W (2010). 질적연구방법론. (조흥식 외 역, 원저 2007 출판). 서울: 학지사.

Christensen, A. (1988). Dysfunctional interaction patterns in couples. In P. Noller & M. A. Fitzpatric(Eds), *Perspectives on marital interaction*(pp. 31-52). Philadelphia, PA: Mutilingual Matters.

Christensen, A., & Heavey, C. L. (1990). Gender and social structure in the demand/withdraw pattern of marital interac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 73-81.

Christensen, A., & Shenk, J, L. (1991). Communication, Conflict, and Psychological Distance in Nondistressed, Clinic, and Divorcing Couple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9(3), 458-463.

Christensen, A. & Sullaway, M. (1983). Assessment of dysfunctional interaction pattern in coupl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5, 653-660.

Christensen, A. & Sullaway, M. (1984). *Communication Pattern Questionnaire*.

Unpublished manuscript, University of California, Department of Psychology, Los Angeles.

Driver, J., Tabares, A., Shapiro, A., Nahm, E. Y., & Gottman, J. M.(2003). Interactional patterns in marital success and failure: Gottman laboratory stuies. In F. Walsh (Ed), *Normal family processes: Growing diversity and complexity*(pp. 493-513).

D'Andrea, J. T. (2003). *An investig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maladaptive shemas and psychological adjustment: The moderating effect fo spiritual coping styl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Fordham university.

Ellis, A. (1962). *Reason and emotion in psychotherapy*. New York: Lyle Stuart and Citadel Books.

Emery, R. E. (1982). Interparental conflict and the children of discord and divorce. *psychology bulletin*, 92(1), 310-330.

Epstein, N., & Baucom, D. H. (1993). *Cognitive Factors in marital disturbance*. In K. S. Dobson & P. C. Kendall(Eds.), Psychology and cognition. SanDiego, CA: Academic Press.

Epstein, N., & Baucom, D. H. (2002). Enhanced Cognitive-behavioral therapy of couple; A contextual approach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Fincham, F. D. (2003). Marital conflict: Correlates, structure and context.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12(1), 23-27.

Fine, M. & Hovestadt, A. J. (1984). Perceptions of marriage and nationality by lebel of perceived health in the family-of-origi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10, 193-195.

Fogarty, T. F. (1976). Marital crisis. In P. J. Guerin(Eds.), *Family therapy: Theory and practice*(pp. 325-334). New York: Gardner Press.

Freeman, N. (1998). *Constructive thinking and early maladaptive schemas as predictors of interpersonal adjustment and marital satisfact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Biola University.

Funder, D. C. (2001). *The Personality Puzzle*. New York: Norton.

Geiss, S. K., & O'Leary, K. D. (1981). Therapist ratings of frequency and severity of marital problems: Implications for research.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7, 515-520.

Gottman, J. M. & Krofoff, L. J. (1989). Marital interaction and satisfaction: A longitudinal view.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7(1), 47-52.

Gottman, J. M. (1993). A theory of marital dissolution and stability.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7, 57-75.

Gottman, J. M. (1993). *What predicts divorce?: The relationship between marital processes and marital outcomes*. Lawrence Erlbaum Assoc Inc.

Gottman, J. M. (1994). *What predicts divorce?*. Hillsdale, NJ: Erlbaum.

Gottman, J. M. (1999). *The marriage clinic A scientifically-based marital therapy*. New York: WW Norton & Company.

Gottman, J. M. (2002). 행복한 부부, 이혼하는 부부: 행복한 결혼생활을 위한 7가지 원칙. (임주현 역, 원저 1999년 출판). 서울: 문학사상사.

Gottman, J. M., & Krokoff, L. J. (1989). Marital interaction and satisfaction: A longitudinal view.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7(1), 47-52.

Gottman, J. M., & Levenson, R. W. (1992). Marital processes predictive of later dissolution: Behavior, physiology, and healt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3, 221-233.

Gottman, J. M., & Levenson, R. W. (2000). The timing of divorce: Predicting when a couple will divorce over a 14-year period.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2, 737-745.

Gottman, J. M., & Gottman, J. S. (2010). Level Ⅰ가트맨 부부치료 초급 매뉴얼 (최성애, 권경윤, 김미화, 김민정, 김희정, 이봉희, 한이숙, 한정희 역, 원저

2000년 발행). 서울: HD가족클리닉.

Greenberg, L, S., & Johnson, S, M. (1986). *Emotionally focused couples therapy. Clinical handbook of marital therapy*(pp. 253-276). New York: Guilford Press.

Hamamci, Z. (2005). Dysfunctional relationship beliefs in marital conflict. *Journal of Rational-Emotive and Cognitive-Behavior Therapy*, 23(3), 245-261.

Hahlweg, K, Revenstorf, D., & Schindler, L. (1984). Effects of behavioral marital therapy on couples' communication and problem-solving skill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2, 553-566.

Heavey, C. L., Layne, C., & Christensen, A. (1993). Gender and conflict structure in marital interaction: A replication and extensio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1(1), 16-27.

Holtzworth-Munroe, A. & Jacobsen, N. S. (1985). Causal attributions of married couples: When do they search for causes? What do they conclude when they do?.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8, 1398-1412.

Hope, S., Power, C., & Rogers, B. (1999). Does financial hardship account for elevated psychosocial distress in lone mothers? *Social Science and Medicine*, 29, 381-389.

Hopper, J. (1993). The rhetoric of motives in divorc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5(4), 801-813.

Huston, T. Caughlin, J., Houts, R., Smith, S., & George, L. (2001). The connubial crucible: Newlywed years as predictors of marital delight, distress and divor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0(2), 237-252.

Jacobson, N. S. (1989). Beyond empiricism: The politics of marital therapy.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11, 11-24.

Jacobson, N. S., & Holtzworth-Munree, A. (1986). Marital therapy: A social learning / cognitive perspective. In N. S. Jacobson & A. S. Gurman (Eds.),

Clinical handbook or marital therapy (pp. 29-70). New York: Guilford Press.

Jacobson, N. S., & Margolin, G. (1979). *Marital therapy: Strategies based on social learning and behavior exchange principles.* New York: Brunner/Mazel.

Johnsom, S. M. (2006). 정서 중심적 부부치료: 부부관계의 회복(박성덕 역, 원저 2004년 출판). 서울: 학지사.

Kitson, G. C. (1992). *Portrait of divorce: Adjustment to marital breakdown.* New York: Guilford Press.

Kluwer, E. S., Heesink, J. A., & Van De Vliert, E. (1996). Marital conflict about the division of household labor and paid work.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8(4), 958-969.

Kressel, K., & Deutsch, M. (1977). Divorce Therapy: An In-Depth Survey of Therapists' Views. *Family Process*, 16(4), 413-443.

Kurdek, L. A. (!995). Predicting change in marital satisfaction from husbands' and wives' conflict resolution stal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7, 153-164.

Kurdek, L. A. (1994). Areas of conflict for gay, lesbian, and heterosexual couples: What coupes argue about influences relationships satisfact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6, 924-934.

Leonard, E., & Roberts, L. (1998). Marital aggression, quality, and stability in the first year of marriage: Findings from the Buffalo newlywed study. In T. Bradbury(Ed.). *The developmental course of marital dysfunction.*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Lewis, R. A., & Spanier, G. B. (1979). *Theorizing about the quality and stability of marriage.* in W. Burr, R. Hill, F. I. Nye, & I. L. Reiss(eds.). Contemporary theories about the family. New York: Free Press.

Martin, T. C. & Bumpass, L. L., (1989). Resent trends in marital disruption.

Demography, 26, 37-51.

Mertens, D. M. (2003). Mixed Methods and the politics of human research: The Transformative-emancipatory perspective. In A. Tashakkori & C. Teddlie (Eds.), *Handbook of mixed methods in social and behavioral research* (pp. 135-164). Thousand Oaks, CA: Sage.

Napier, A. Y. (1978). The rejection-intrusion patterns: A central family dynamic.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Counseling*, 4, 5-12.

Nemati, M. C. (1996). *A structural model of marital satisfact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Georgia.

O'Donohue & Croach, J. L. (1996). Marital therapy and gender-linked factors in communication.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22, 87-101.

Olson, D. H., DeFrain, J., & Olson, A. K. (2002). 행복한 결혼 건강한 가족.(21세기 가족문화연구소 역, 원저 1999년 발행). 서울: 양서원.

Punch, K. F. (1998). *Introduction to social research: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approaches*. Thousand Oaks, CA: Sage.

Reichardt, C. S., & Cook, T. D. (1979). Beyond qualitative versus quantitative methods. In T. D. Cook & D. S. Reichardt (Eds.),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methods in evaluation research* (pp. 7-32). Beverly hills, CA: Sage.

Reis, H. T. (2000). Caregiving Attachment and Relationship. *Psychological Inquiry*, 11(2), 69-83.

Rice, F. P. (1979). *Marriage and parenthood. Boston*: Allyn and Bacon, Inc.

Rovers, M. (2004). Family of origin theory, attachment theory and the genogram: Dveloping a new assessment paradigm for couple therapy. *Journal of Couple & Relationship Therapy*, 3(4), 43-63.

Rusbult, C. E., Johnson, D. J., & Morrow, G. D., (1986). Determinants and consequences of exit, voice, loyalty, and neglect: Responses to dissatisfaction in adult romantic involvements: *human relations*, 39(1),

45-63.

Sabatelli, R. M., & Bartle-Haring, S. (2003). Family-of-origin experiences and adjustment in married couple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5, 159-169.

Scanzoni, J. (1982). *Sexual bargaining: Power politics in the American marriage*(2nd). Chicago and London: University of Chicago Press.

Segal, Z. (1988). Appraisal of the self-schema Construct in cognitive models of depression. *Psychological Bulletin*, 103, 147-162.

Sprenkle, D. H., & Storm, C. L. (1983). Divorce therapy outcome research: A substantive and methodological review. *Journal of Marital and Familty Therapy*, 9(3), 239-258.

Stanojevic, T. S., & Nedeljkovic, J. (2012). Attachment pattern from the perspective of early maladaptive shemas. *Ljetopis Socijalnog Rada/Annual of Social Work*, 19(1), 95.

Stern, P. (1980). Grounded theory methodology: Its uses and processers. Image: *The Journal of Nursing Scholarship*, 12, 20-23.

Stinnett, N., Walters, J., & Kaye, E. (1984). *Relationships in marriage and the family*. New York: Macmillan.

Stiles, O. E. (2004). *Early maladaptive shemas and intimacy in young adults' romantic relationship*.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Alliant International University.

Straus, M. A. (1979). Measuring intrafamily conflict and violence The Conflict Tactics(CT) scal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1(1), 75-88.

Strauss & Corbin(2001). 근거이론의 단계. (신경림 역, 원저 1998 출판). 서울: 현문사.

Strauss, A. and Glaser, B. (1967), *The Discovery of Grounded Theory*: *Strategies for Qualitative*, Research. London: Wiedenfeld and Nicholson.

Strauss, A., & Corbin, J. (1988).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Technique and*

procedures for developing grounded theory. New York: Sage Publications.

Strauss, A., Corbin, J. (1998).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2end.)*. Thousand Oaks, CA: Sage.

Strauss, A.,Corbin, J. (1997). *Grounded theory in practice*. Thousand Oaks, CA: Sage.

Tallman, I., Rotolo T., & Gray, L. N. (2001). Continuity or change? The impact of parents' divorce on newly married couples. *Social Psychology Quarterly*, 64(4), 333-346.

Twenge, J. M., Campbell, W. K, & Foster, C. A. (2003). Parenthood and marital satisfaction: A meta-analytic review.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5(3), 574-583.

Weiss, R. S. (1975). *Marital Separation*. New York: Basic Books.

Weizman, L. (1985). *The divorce revolution.* The Free Press.

Wile, D. B. (1981). *Couples therapy: A non-traditional approach*. New York: Wiley.

Wolchik, S. A., Wilcox, K. L., Tein, J. Y., & Sandler, I. N. (2000). Maternal Acceptance and Consistency of Discipline as Buffers of Divorce Stressors on Children's Psychological Adjustment Problem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28(1), 87-102.

Young, J. E. (1990). *Cognitive therapy of personality disorders: A schema-focused approach*. Sarasota, FL: Professional Resource Press.

Young, J. E. (1999). *Cognitive therapy for personality disorders: A Schema-focused approach(rev. ed.)*. Sarasota, FL; Professional Resources Press.

Young, J. E., Klosko, J. S, Weishaar, M. E. (2005). 심리도식치료(권석만 외 역, 원저 2003년 출판), 서울: 학지사.

Young, M. E., & Long L. L. (2004). 부부 상담과 치료(이정연 역, 원저 1997년 출판). 서울: 시그마프레스.

ABSTRACT

The grounded theory study on marital conflict experience and divorce decision process. -For married couples under legal divorce proceedings-

Kim, Min Nyeo
Department of Psychology
Graduate School of Sungshi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marital conflict experience and divorce decision process of married couples who are in legal divorce proceedings, to clarify reasons of decisive divorce and to use it as guidance of marital education and counseling. For this purpose, the grounded theory was applied to 10 pairs of married couples whose married years were less than 10 years and whose children were 30-40 years old. In addition, by using the Young's schema questionnaire(YSQ) and the communication pattern questionnaire(CPQ), it is possible to objectively evaluate schemas and communication patterns of couples, and how this affects couples's interactions and how they affect marital relations.

Research problems for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what is the experience of conflict and the process and method of conflict resolution according to the major life events (pre- and postnatal) of married couples? Second, what is the decision process of divorce between husband and wife, and what is the reason for divorce and deep divorce?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first, 83 concepts, 40 subcategories, and 16 categories were derived from the open coding process, and 93 concepts, 42 subcategories, and 18 categories were derived for the wives. Second, as a result of verify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ategories by relating the categories to the paradigm through the axial coding procedure, the central phenomenon was

expressed as ‘loss of meaning of life’ in husbands, and the central phenomenon as ‘thinking and feeling alone(loneliness)’ in wives. The causal conditions that cause the central phenomenon were ‘marriage without preparation’, ‘individual factor by original family experience’, ‘economic problem’, and contextual condition corresponding to central phenomenon was ‘work-family multiple-role conflict’, ‘use of each room by post-natal situation’, ‘continuing couple problem’, ‘absence of time together’, ‘problem with the original family and spouse’ and interventional conditions that interfere with or promote action/interaction strategies include ‘immersion in other interests than spouse’, ‘non-changeability’, ‘weakening divorce deterrence factors’, ‘craving for new life’, and action/interaction strategy for the central phenomenon were ‘marital sex’, ‘communication style’ and ‘conflict resolution style’. Third, the core categories of husbands derived from open coding and axis coding followed by selective coding were ‘searching for a real one out of a meaningless life’ and the core category of their wives was ‘getting out of the tunnel of loneliness’. Through the process analysis, the process of marital conflict leading to divorce occurred in five stages of conflict occurrence-avoidance of interaction-loss of intimacy and avoidance of sex-intentional separation and separation-legal divorce. Fourth, the reason for the in-depth divorce confirmed in this study is ‘loss of meaning of life’ for husbands and ‘thoughts and feeling of being alone(loneliness)’ for wives, indicating that husband and wife experience in marital conflict experience and divorce decision process. Finally, the schema and communication patterns of the couples evaluated through the questionnaire survey were reproduced in the actual marital relationship and affected the interaction process, but it was confirmed that the married couple did not perceive it correctly or not at all.

This study presented the experience of marital conflict and divorce decision making in stages, and included important growth factors such as ‘finding meaning of life’ and ‘acquiring the idea of us(we-ness)’ as a team in programs based on existing marital communication. In addition, according to husbands and wives, the difference in internal experience and the cause of in-depth divorce were confirmed empirically, and the specific intervention direction according to the stage of conflict in clinical practice was proposed.

<부록 1>

주요 면담 질문지

[결혼 전 연애 기간에 관한 질문]

당신은 배우자와 어떻게 만나 연애하게 되었나요?
당신은 배우자의 어떤 점이 좋았나요?
당신은 배우자와의 교제기간은 어느 정도였나요?

[결혼 결심 과정에 관한 질문]

배우자와의 결혼을 결심하게 한 결정적 이유는 무엇인가요?
배우자의 어떤 점이 좋았나요?
배우자와의 결혼은 준비된 결혼이었나요?(결혼 이전에 어떤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배우자와의 결혼 생활에서 기대한 것은 무엇이었나요?

[결혼 생활에 관한 질문]

결혼생활 중 행복했던 순간과 경험은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해주시겠어요?
어떤 점에서 행복했다고 기억되나요?
결혼생활을 하는데 어떤 어려움(결혼생활의 일반적 어려움에 관하여)이 있었는지 그 상황과 경험을 자세히 설명해주시겠어요?
어떤 점에서 그때가 가장 힘들었던 순간으로 기억되나요?
부부의 성생활(소통 및 배려, 만족정도에 관하여)은 어땠나요?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정서적 지지와 공감은 어땠나요?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 부부의 양육관과 양육태도는 어땠나요?
결혼은 당신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부부갈등 경험에 관한 질문]

당신의 결혼생활 중 처음 갈등하게 된 사건과 경험은 무엇인가요?
첫 갈등의 원인은 무엇이었다고 생각하나요?
당신 부부(당신과 배우자 각자)는 첫 번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였나요?

갈등 해결 시 부부가 사용한 해결 방법은 무엇이었나요?
갈등은 잘 해결되었나요?
첫 번째 갈등을 겪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나요?
첫 번째 부부갈등 이후, 주요한 갈등이 일어난 시점과 이유, 경험은 무엇인가요?
(기억에 남는 또 다른 갈등 상황을 시간적 순서대로 회고하기)
부부는 주요한 갈등을 각각 어떻게 해결하였나요?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에서의 변화는 무엇인가요?

[이혼결정 과정에 관한 질문]

이혼을 처음 생각했던 시기와 계기, 그 경험은 무엇인가요?
당시 이혼에 대해 생각해지만, 이혼을 실행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인가요(이혼장애 요인에 관하여)?
이후 또 이혼을 생각했던 때가 있었나요? 그 시기와 계기, 경험은 무엇인가요(정서적 이혼에 관하여)?
(법적 절차를 통해)이혼을 최종적으로 실행하게 된 이유와 결정적 계기는 무엇인가요(구체적으로)?
이혼은 당신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당신은 이혼 소송 중 어떠한 경험을 하나요?

[원가족 경험에 관한 질문]

당신 부모님과 배우자와의 관계는 어떠했나요?
당신 부모님의 부부관계 및 결혼생활은 어떠했나요?
부모님의 결혼생활이 당신의 성장과정에 어떤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하나요?
(ex, 결혼관, 이성관, 성격, 정서 등)
당신의 부모님 혹은 당신 부모님의 결혼생활 모습이 당신의 결혼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하나요?
(ex, 부부갈등에 대한 관점, 부부갈등 해결 방법 등)

<부록 2>

인적사항 질문지

❖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해 주시거나 직접 기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1. 귀하의 가족관계는(가계도)?

2. 귀하의 나이는? 만_____세

3. 자녀 나이
   첫째:(아들, 딸) ____세/ 둘째:(아들, 딸) ____세/ 셋째:(아들, 딸) ____세

4. 동거가족: _____ 나이: ____세

5. 귀하가 살고 있는 지역은 어느 곳입니까?

① 서울 ② 경기 ③ 기타( )

6. 귀하의 직업은?

① 전문직 ② 관리직 ③ 사무직 ④ 판매/서비스직 ⑤ 생산직 ⑥ 농어축산업 ⑦ 무직
⑧ 기타: _____

7. 귀하의 교육 정도는?

① 초졸 ② 중졸 ③ 고졸 ④ 전문대졸 ⑤ 대졸
⑥ 대학원졸 ⑦ 기타 ( )

8. 귀하의 결혼 형태는 다음 중 어떤 것입니까?

① 연애결혼 ② 중매결혼 ③ 혼합형(연애+중매) ④ 기타

9. 결혼(사실혼 포함)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① 1년 미만 ② 1년~3년 ③ 4년~6년 ④ 7년~10년 ⑤ 11년~15년
⑥ 16~20년 ⑦ 21년~25년 ⑧ 26년 이상

10. 귀 가정의 총 월수입은?

① 100만 원 이하 ② 100~200만 원 미만 ③ 300만 원 이상~400만 원 미만
④ 400만 원 이상~500만 원 미만 ⑤ 500만 원 이상~700만 원 미만
⑥ 700만 원 이상~800만 원 미만 ⑦ 800만 원 이상~900만 원 미만
⑧ 900만 원 이상~1,000만 원 미만 ⑨ 1,000만 원 이상

11. 귀하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① 없음 ② 기독교 ③ 불교 ④ 천주교 ⑤ 기타 ( )

12. 귀하는 만족스러운 결혼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자유롭게 작성해주세요.

<부록 3> 심리도식 질문지

아래 내용들은 사람들이 자신을 묘사하는데 사용하는 문장입니다. 각 문장을 읽어보고 그 문장이 최근 2년 동안의 당신과 얼마나 당신을 잘 일치하는지 판단하십시오. 확신이 서지 않을 경우에는 옳은 답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선택하기 보다는 *감정적으로 느껴지는 바에 따라서* 대답하십시오.

몇 문장은 부모님과의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만약 부모님 중에 돌아가신 분이 계시다면 살아계실 때의 관계가 어떠했는지에 따라서 대답하십시오.

1에서 6까지의 점수 중에서 당신을 가장 정확히 묘사한 점수를 골라서, 문장 앞에 있는 빈 칸에 숫자를 기입하십시오(두 가지 점수 사이에서 선택하기 어려울 때는 보다 높은 점수를 선택하십시오. 예를 들어 3점과 4점 중 어느 것인지 결정하기 어려울 때는 4점을 선택하십시오.)

평가 점수

1= 완전히 나와 다르다.
2= 대부분 나와 다르다.
3= 나와 일치하는 면이 다른 면보다 조금 많다.
4= 나와 상당히 일치한다.
5= 나와 대부분 일치한다.
6= 나와 완벽하게 일치한다.

		완전히 다르다.					나와 완벽하게 일치한다.
1	내게는 나를 보살펴 주거나, 나와 마음을 나누거나,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 진심으로 걱정해 주는 사람이 없었다.	①	②	③	④	⑤	⑥
2	나와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떠날까 두려워 그들에게 매달리게 된다.	①	②	③	④	⑤	⑥
3	사람들이 나를 이용할 것이라는 느낌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⑥
4	나는 부적격자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5	내 결점을 알게 된다면 내가 원하는 그 누구도 나를 사랑할 수 없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6	내가 직장(학교)에서 남들만큼 잘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아무 것도 없다.	①	②	③	④	⑤	⑥
7	내게는 일상생활을 스스로 헤쳐 나갈 능력이 없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⑥
8	뭔가 나쁜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느낌을 떨쳐 버릴 수가 없다.	①	②	③	④	⑤	⑥
9	나는 내 나이에 걸 맞는 수준으로 아버지(어머니)로부터 독립할 수 있었던 적이 없었다.	①	②	③	④	⑤	⑥
10	만약 내가 원하는 대로 한다면 뭔가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⑥
11	대개의 경우 결국은 내가 가까운 사람들을 돌보게 된다.	①	②	③	④	⑤	⑥
12	나는 나 자신을 너무 의식한 나머지 다른 사람에게 긍정적 감정을 표현할 수 없다.(예를 들면, 애정, 관심을 보이는 것 등)	①	②	③	④	⑤	⑥
13	내가 하는 일 대부분에서 최고가 되어야 한다. 이등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②	③	④	⑤	⑥
14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때 거절당하는 것을 용납하기가 매우 힘들다.	①	②	③	④	⑤	⑥
15	나는 자제력을 발휘해서 일상적이거나 지루한 일을 끝마칠 수가 없다.	①	②	③	④	⑤	⑥
16	내게 돈이 많고 중요한 사람들을 알고 지낸다면 나 자신이 가치 있게 느껴질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17	일이 잘 되어가는 듯이 보여도 나는 단지 일시적이라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⑥
18	내가 만약 실수를 한다면 벌을 받아 마땅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19	나를 따뜻하게 대하고, 감싸주고, 애정을 보여주는 사람이 없었다.	①	②	③	④	⑤	⑥
20	나는 주변 사람들을 잃을까봐 걱정이 된다. 내게는 그들이 너무 필요하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21	남들과 함께 있을 때 경계를 늦춰선 안 된다. 내가 방심하면 그들이 나를 해칠 것이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22	나는 근본적으로 남들과는 다르다.	①	②	③	④	⑤	⑥
23	나의 진정한 모습을 알게 된다면 내가 원하는 어떤 사람도 내 곁에 있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24	나는 무언가를 성취해 낼 능력이 없다.	①	②	③	④	⑤	⑥
25	나는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남들에게 의존해서 처리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26	재난(자연재해, 범죄, 재정곤란, 질병)이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을 것이란 느낌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⑥
27	아버지(어머니)와 나는 서로의 삶과 문제에 대해 지나치게 관여하고 간섭하는 경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28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 줄 수 밖에 없다고 느낀다. 그러지 않으면 그들은 어떤 식으로든지 내게 보복을 하거나 나를 거부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29	나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을 더 생각해 주기 때문에 나는 좋은 사람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30	다른 사람에게 내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쑥스럽다.	①	②	③	④	⑤	⑥
31	나는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한다: “이 정도면 됐다”는 수준에 만족할 수 없다.	①	②	③	④	⑤	⑥
32	나는 특별하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에게 가해지는 제한의 많은 부분들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	①	②	③	④	⑤	⑥
33	목표를 이를 수 없을 경우에 나는 쉽게 좌절하고 포기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34	내게 있어서 업적은 다른 사람들이 주목해 줄 때 가장 가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35	좋은 일이 생기면 나쁜 일이 따라올까 걱정된다.	①	②	③	④	⑤	⑥
36	내가 실수를 한다면 용서란 없다.	①	②	③	④	⑤	⑥
37	내가 누군가에게 특별한 존재라고 느꼈던 적이 없다.	①	②	③	④	⑤	⑥
38	내가 가깝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나를 떠나거나 버릴 것 같아서 걱정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⑥
39	누군가가 나를 배신하는 것은 시간문제다.	①	②	③	④	⑤	⑥
40	나는 어디에도 소속감을 가질 수가 없다. 나는 외톨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41	다른 사람들의 사랑과 관심, 그리고 존경을 받을 가치가 없다.	①	②	③	④	⑤	⑥
42	직장의 업무나 그 외에 뭔가 성과를 내야 하	①	②	③	④	⑤	⑥

	는 분야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보다 유능하다.	
43	나는 상식이 부족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44	나는 공격 당할까봐 걱정이 되는 경우가 많다.	① ② ③ ④ ⑤ ⑥
45	아버지(어머니)와 나는 서로의 신상에 관한 사소한 일조차도 숨김이 없이 지낸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배신감이나 죄책감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⑥
46	대인관계에서 나는 항상 상대방에게 유리하도록 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⑥
47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느라 너무 바빠서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이 거의 없다.	① ② ③ ④ ⑤ ⑥
48	다정하고 자연스럽게 되기가 힘들다.	① ② ③ ④ ⑤ ⑥
49	나는 나의 모든 책임을 완수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50	나는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하거나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되는 것이 싫다.	① ② ③ ④ ⑤ ⑥
51	나는 장기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즉각적인 만족을 포기하기가 매우 힘들다.	① ② ③ ④ ⑤ ⑥
52	다른 사람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지 못하면 내가 덜 중요한 사람처럼 느껴진다.	① ② ③ ④ ⑤ ⑥
53	아무리 조심해도 지나치지 않다: 언제나 뭔가 잘못될 가능성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54	내가 만약 일을 해내지 않으면 결과를 감수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55	진정으로 나에게 귀를 기울이거나, 나를 이해해주거나, 내 진정한 욕구와 감정에 공감해주는 사람이 없었다.	① ② ③ ④ ⑤ ⑥
56	좋아하는 사람이 내게서 멀어지려 한다고 느끼면, 필사적으로 매달리게 된다.	① ② ③ ④ ⑤ ⑥
57	나는 다른 사람들의 동기가 매우 의심스럽다.	① ② ③ ④ ⑤ ⑥
58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소외감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⑥
59	나는 사랑스럽지 못한 존재다.	① ② ③ ④ ⑤ ⑥
60	직장에서 나는 다른 사람들만큼 재능이 있는 것 같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⑥
61	일상적인 상황에서 나의 판단을 신뢰할 수 없다.	① ② ③ ④ ⑤ ⑥
62	돈을 모두 잃어버리고 가난해질 것을 걱정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63	나는 마치 아버지(어머니)가 나를 통해서 인생을 사는 것 같은 느낌이 종종 들곤 한다. 나만의 인생이란 없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⑥
64	나는 항상 남들이 나 대신 선택하게하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정말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⑤	⑥
65	나는 언제나 모든 사람들의 문제에 귀 기울여 왔다.	①	②	③	④	⑤	⑥
66	나는 나 자신을 너무 억제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내가 감정이 없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67	나는 무언가를 이루고 완수해야 한다는 지속적인 압력이 있음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⑥
68	나는 다른 사람들이 따르는 통상적인 규칙이나 관례를 따를 필요가 없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⑥
69	내게 이로운 일이라 하더라도 내가 즐기지 않는 일을 억지로 할 수 없다.	①	②	③	④	⑤	⑥
70	내가 회의에서 연설을 하거나 모임에서 소개될 경우 나는 인정받고 칭찬 받기를 기대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71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한다 해도 경제적으로 파산하게 될까봐 걱정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⑥
72	내가 왜 실수를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내가 잘못을 하면 대가를 치러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73	어떻게 해야 할 지 확신이 서지 않을 때 내게 좋은 충고를 해주거나 방향을 제시해줄 믿음직한 사람이 없었다.	①	②	③	④	⑤	⑥
74	때때로, 나는 사람들이 떠나 버릴까봐 너무 두려워서 그들을 쫓아버린다.	①	②	③	④	⑤	⑥
75	나는 보통 상대방이 무슨 다른 속셈을 갖고 있는 건 아닌지 경계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76	나는 어떤 모임에서도 겉도는 느낌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77	나는 근본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 자신을 솔직하게 남들에게 드러내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78	직장(학교)에서 나는 대부분의 사람들만큼 똑똑하지 못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79	나는 매일 부딪히는 일상적인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할 자신이 없다.	①	②	③	④	⑤	⑥
80	나는 의사가 심각한 질병을 진단한 적이 없는	①	②	③	④	⑤	⑥

	데도 중병에 걸릴까봐 걱정한다.	
81	나는 종종 아버지(어머니)나 배우자로부터 독립된 나만의 정체성이 없다는 느낌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⑥
82	남들이 내 권리를 존중하고 내 감정을 고려하도록 요구하기가 매우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⑥
83	사람들은 내가 남에게는 너무나 많은 것을 해주지만 나 자신을 위해서는 별로 하는 게 없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84	사람들은 내가 감정적으로 경직되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85	나는 내 실수에 대해 나 자신을 쉽게 용서하거나 변명할 수가 없다.	① ② ③ ④ ⑤ ⑥
86	나는 내가 남들보다 더 가치있는 공헌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87	나는 내 결심을 충실히 지킬 수 있었던 적이 거의 없었다.	① ② ③ ④ ⑤ ⑥
88	많은 칭찬과 찬사를 받으면 내가 매우 가치있는 사람처럼 느껴진다.	① ② ③ ④ ⑤ ⑥
89	나는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재난이 닥치게 될까봐 걱정된다.	① ② ③ ④ ⑤ ⑥
90	나는 벌을 받아 마땅한 나쁜 사람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부록 4> 의사소통 패턴 질문지

남편용	

아래의 문항은 부부 간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발생한 문제에 대해 의논하는 동안', 그리고 '발생한 문제에 대한 의논이 끝난 뒤'에 일반적으로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부부관계에서 각 문항의 내용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는지, 동의하지 않는지에 대해 ①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부터 ⑨ '언제나 그렇다'까지의 숫자 중 하나에 √ 표를 해 주십시오.

❍ 1단계. 부부 간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전혀 그렇지 않다.								언제나 그렇다.
1.	우리 부부는 둘 다 문제를 의논하는 것을 피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2.	우리 부부는 둘 다 문제를 의논하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3.	아내는 문제를 의논하려고 하면, 나는 그것을 피하려고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4.	내가 문제를 의논하려고 하면, 아내는 그것을 피하려고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 2단계. 부부 간 발생한 문제를 의논하는 동안

		전혀 그렇지 않다.								언제나 그렇다.
1.	우리 부부는 둘 다 서로를 비난하고, 상대방에게 책임을 돌린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2.	우리 부부는 둘 다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상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대방에게 표현한다.	
3.	우리 부부는 둘 다 서로에게 나쁜 결과(예, 이혼, 별거)가 올 수 있다면서 서로에게 위협적으로 경고를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4.	우리 부부는 둘 다 서로에게 해결방안을 제안하고 타협점을 찾는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5.	아내는 잔소리를 하고 요구하면, 나는 물러나서 대답하지 않거나 더 이상 의논하는 것을 꺼린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6.	내가 잔소리를 하고 요구하면, 아내는 물러나서 대답하지 않거나 더 이상 의논하는 것을 꺼린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7.	내가 내 입장을 설명하고 옹호하려 하면, 아내는 나를 비난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8.	아내는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고 옹호하려 하면, 나는 아내를 비난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9.	아내는 위협적으로 경고를 하고, 나는 아내의 의견을 수용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10.	나는 위협적으로 경고를 하고, 아내는 나의 의견을 수용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11.	아내는 나에게 욕을 하거나 모욕적인 말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12.	나는 아내에게 욕을 하거나 모욕적인 말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 3단계. 부부 간 발생한 문제에 대한 의논 후

		전혀 그렇지 않다.	언제나 그렇다.
1.	우리 부부는 둘 다 서로의 입장을 이해했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2.	의논이 끝난 후, 우리 부부는 둘 다 서로 피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거나 더 이상 이야기하는 것을 꺼린다.	
3.	우리 부부는 둘 다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4.	의논이 끝난 후, 우리 부부는 둘 다 서로에게 더욱 잘 해주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5.	나는 어색하게 거리를 두고 아내를 대하지만, 아내는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더 잘 해주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6.	아내는 어색하게 거리를 두고 나를 대하지만, 나는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더 잘 해주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아내용	

아래의 문항은 부부 간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발생한 문제에 대해 의논하는 동안', 그리고 '발생한 문제에 대한 의논이 끝난 뒤'에 일반적으로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부부관계에서 각 문항의 내용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는지, 동의하지 않는지에 대해 ①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부터 ⑨ '언제나 그렇다'까지의 숫자 중 하나에 √ 표를 해 주십시오.

❍ 1단계. 부부 간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전혀 그렇지 않다.								언제나 그렇다.
1.	우리 부부는 둘 다 문제를 의논하는 것을 피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2.	우리 부부는 둘 다 문제를 의논하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3.	남편은 문제를 의논하려고 하면, 나는 그것을 피하려고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4.	내가 문제를 의논하려고 하면, 남편은 그것을 피하려고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 2단계. 부부 간 발생한 문제를 의논하는 동안

		전혀 그렇지 않다.								언제나 그렇다.
1.	우리 부부는 둘 다 서로를 비난하고, 상대방에게 책임을 돌린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2.	우리 부부는 둘 다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상대방에게 표현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3.	우리 부부는 둘 다 서로에게 나쁜 결과(예, 이혼, 별거)가 올 수 있다면서 서로에게 위협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적으로 경고를 한다.	
4.	우리 부부는 둘 다 서로에게 해결방안을 제안하고 타협점을 찾는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5.	남편은 잔소리를 하고 요구하면, 나는 물러나서 대답하지 않거나 더 이상 의논하는 것을 꺼린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6.	내가 잔소리를 하고 요구하면, 남편은 물러나서 대답하지 않거나 더 이상 의논하는 것을 꺼린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7.	내가 내 입장을 설명하고 옹호하려 하면, 남편은 나를 비난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8.	남편은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고 옹호하려 하면, 나는 아내를 비난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9.	남편은 위협적으로 경고를 하고, 나는 아내의 의견을 수용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10.	나는 위협적으로 경고를 하고, 남편은 나의 의견을 수용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11.	남편은 나에게 욕을 하거나 모욕적인 말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12.	나는 남편에게 욕을 하거나 모욕적인 말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 3단계. 부부 간 발생한 문제에 대한 의논 후

		전혀 그렇지 않다.	언제나 그렇다.
1.	우리 부부는 둘 다 서로의 입장을 이해했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2.	의논이 끝난 후, 우리 부부는 둘 다 서로 피하거나 더 이상 이야기하는 것을 꺼린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3.	우리 부부는 둘 다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4.	의논이 끝난 후, 우리 부부는 둘 다 서로에게 더욱 잘 해주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5.	나는 어색하게 거리를 두고 남편을 대하지만, 남편은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더 잘 해주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6.	남편은 어색하게 거리를 두고 나를 대하지만, 나는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더 잘 해주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부록 5> 연구 설명서 및 동의서

연구대상자 설명서 ver.__(신규는 1.0)

연구과제명 : 부부갈등 경험과 이혼결정 과정에 관한 근거 이론적 연구
-법적 이혼절차 중인 부부를 대상으로-

본 연구는 결혼 생활 중 갈등을 겪는 부부가 어떠한 심리적 과정을 통하여 이혼 결정에 이르는지 개인 내적이고 심층적인 이유를 밝힘으로써 이혼 결정의 본질적 원인을 찾고, 부부 갈등을 완화하고 이혼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하는 연구입니다. 귀하는 본 연구에 참여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설명서와 동의서를 신중하게 읽어보셔야 합니다. 이 연구가 왜 수행되며, 무엇을 수행하는지 귀하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연구를 수행하는 김민녀 연구원이 귀하에게 이 연구에 대해 설명해 줄 것입니다. 이 연구는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히신 분에 한하여 수행 될 것입니다. 다음 내용을 신중히 읽어보신 후 참여 의사를 밝혀 주시길 바라며, 필요하다면 가족이나 친구들과 의논해 보십시오. 만일 어떠한 질문이 있다면 담당 연구원이 자세하게 설명해 줄 것입니다.
귀하의 서명은 귀하가 본 연구에 대해 그리고 위험성에 대해 설명을 들었음을 의미하며, 이 문서에 대한 귀하의 서명은 귀하께서 자신이 본 연구에 참가를 원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행복한 결혼생활을 꿈꾸며 결혼을 하지만, 결혼생활 중 갈등은 반드시 존재하며 갈등의 요소는 부부 둘만의 문제를 비롯하여 자녀문제, 경제적 문제, 배우자 가족과의 문제 등 도처에 존재한다. 통계청(2017) 발표에 따르면, 여전히 혼인의 절반가량이 이혼을 하고 있고, 특히 초혼의 이혼율에 비해 재혼의 이혼율은 2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나, 부부갈등과 이에 따른 이혼의 악순환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여겨진다. 무엇보다 자녀들에게 미치는 이혼의 파장은 성장과정에서 중요한 시기에 한 부모와의 이별 같은 상처뿐만 아니라, 학교 및 대인관계 적응문제를 비롯하여 결혼에 대한 가치관과 같은 사고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결혼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은 부부갈등에 관한 연구, 부부 친밀감과 응집성에 관한 연구(박민지, 2005; 임은혜, 2008)으로 분류되며, 최근에는 결혼만족에 배우자의 행동과 사건 자체보다 이에 대한 해석과 평가라는 인지적 요인이 더 깊은 관련이 있다는 연구들도 보고되고 있다(연규진, 2006; 강유진, 2005; 김은지, 2010, 김미정, 2001, 김경미, 2009). 또한 이혼에 관한 연구 동향은 이혼의 이유와 소재에 따른 외부적 요인에

관한 연구(곽배희, 1993; 구혜경, 2008)와 일부 이혼과정에 대한 사례연구로 분류되나, 이들 연구들은 대부분 이혼을 한 당사자를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주로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대상으로 이혼 고려 계기를 연구한 것이거나 이혼을 경험한 한 배우자만의 경험을 다루고 있다.
이혼은 결혼생활 중 어떤 한 시점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갈등 과정에서부터 이혼 의도, 계획, 실행 등의 과정의 문제로 이해되어야 하며, 또한 연구 대상이 되는 부부는 각각의 행위, 그리고 부부 간의 상호 작용 경험에 있어 차별적이고 독특한 의미를 지니며, 상호작용 과정에서 외적으로 관찰되는 현상 이면에 부부 각자가 부여하는 의미도 매우 다양한 특징을 나타낸다. 따라서 기존의 연구들은 개별 부부들의 상황에 따라 갈등의 요인이 무엇이었는지, 또 그 갈등을 어떻게 대처해왔는지, 더 나아가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 이혼에 이르게 되었는지 그 과정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하지 못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인식에서 근거 이론적 질적 연구 방법으로, 부부를 심층적으로 면접하여 결혼생활 중 부부가 어떠한 갈등을 겪고, 갈등 중 어떻게 상호작용하며,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 이혼결정에 이르게 되는지 등 개인 내적이고 심층적인 이유를 밝힘으로써 부부갈등 및 이혼결정의 본질적 요인을 찾고, 이를 기반으로 적절한 시기에 부부문제 해결을 위해 개입하여 갈등과 이혼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2. 연구 참여 대상

본 연구에는 **법원에서 재판상 이혼 및 협의 이혼 절차 중인 부부 10쌍이 참여할 것입니다.

3. 연구 방법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귀하는 연구자와 60~90분 정도의 심층면담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귀하는 심층면담에서 귀하의 결혼생활과 이혼과정에 대해 연구자와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심층면담의 내용은 녹취될 것이며, 이는 면담 후 축어록 형태로 풀어 분석하고 연구에 활용됩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1회의 추가적인 면담이 요청될 수 있습니다.

4. 연구 참여 기간

귀하는 본 연구를 위해 1~2회 정도의 심층면담에 참여하도록 요청받을 것입니다.

5. 연구 참여 도중 중도탈락

귀하는 연구에 참여하신 후에도 언제든지 도중에 그만 둘 수 있습니다. 만일 귀하가 연구에 참여하는 것을 그만두고 싶다면 담당 연구원이나 연구책임자에게 즉시 말씀해 주십시오.

6. 부작용 또는 위험요소

심층면담 중 부부갈등 상황이 회고되면서 내적 갈등이나 무의식적 갈등이 드러나 심리적인 어려움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이혼과정 중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일 것입니다. 이에 대한 이해와 해결은 심층면담 후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연구 참여 도중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나 위험 요소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담당 연구원에게 즉시 문의해 주십시오.

7. 연구 참여에 따른 이익

귀하는 심층면담을 통해 결혼생활에 대해 회고하고 정리하는 과정을 거침으로써 이혼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고통과 혼란을 어느 정도 해결하는데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결혼 생활 및 자신과 배우자에 대해 객관적 시각과 통찰을 갖게 됨으로써 이혼 후 변화된 개인의 삶과 향후 있을 수 있는 건강한 재혼 등 삶의 주요 문제들을 건강하게 준비할 수 있는 데도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귀하가 연구에 참여할 시 귀하에게 30,000만 원 미만의 소정의 선물이 지급될 것입니다.

8. 연구에 참여하지 않을 시 불이익

귀하는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아도 귀하에게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9. 개인정보와 비밀보장

**법원을 포함한 전국 법원의 전산시스템 상에는 귀하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기록되며, 또한 상기의 개인정보에 접속할 수 있는 사람은 접속권한이 부여된 해당 사건 재판부 소속의 법원 직원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원 전산시스템은 법원 외부의 어떠한 장소에서도 접속이 불가하도록 되어 있어 사법 기관의 철저한 관리 아래 귀하의 개인정보가 보호되고 있습니다. 또한 연구자의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귀하에게서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별, 연령, 직업군, 학력, 결혼지속년수, 가족관계, 결혼형태. 이 정보는 연구를 위해 5년간 사용되며 수집된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적절히 관리됩니다. 관련 정보는 잠금장치가 있는 연구자의 컴퓨

터에 보관되며 본 연구자와 책임 연구자만이 접근 가능합니다. 연구를 통해 얻은 모든 개인 정보의 비밀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 연구에서 얻어진 개인 정보가 학회지나 학회에 공개 될 때 귀하의 이름과 다른 개인 정보는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법이 요구하면 귀하의 개인정보는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모니터 요원, 점검 요원,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는 연구대상자의 비밀보장을 침해하지 않고 관련규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본 연구의 실시 절차와 자료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연구 결과를 직접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본 동의서에 서명하는 것은,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알고 있었으며 이를 허용한다는 의사로 간주될 것입니다. 연구 종료 후 연구관련 자료는 5년간 보관되며, 이후 녹임 파일의 삭제, 전사된 축어록 원자료는 파일삭제와 파지의 방법으로 폐기될 것이다.

10. 연구문의

본 연구에 대해 질문이 있거나 연구 중간에 문제가 생길 시 다음 연구 담당자에게 언제든지 연락하십시오.

이름: _____ 전화번호: _____

만일 어느 때라도 연구대상자로서 귀하의 권리에 대한 질문이 있다면 성신여자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에 연락하십시오.

성신여자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전화번호: 02-920-7756, 7739

동의서 ver.__

연구제목: 부부갈등경험과 이혼결정과정에 관한 근거 이론적 연구
-법적 이혼절차 중인 부부를 대상으로-

1. 나는 본 연구의 설명문을 읽었으며 담당 연구원과 이에 대하여 의논하였습니다.
2. 나는 위험과 이득에 관하여 들었으며 나의 질문에 만족할 만한 답변을 얻었습니다.
3. 나는 이 연구에 참여하는 것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동의합니다.

4. 나는 이 연구에서 얻어진 나에 대한 정보를 현행 법률과 연구윤리심의위원회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연구자가 수집하고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5. 나는 담당 연구자나 위임 받은 대리인이 연구를 진행하거나 결과 관리를 하는 경우와 보건 당국, 학교 당국에서 실태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비밀로 유지되는 나의 개인 신상 정보를 직접적으로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6. 나는 언제라도 이 연구의 참여를 철회할 수 있고 이러한 결정이 나에게 어떠한 해도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7. 나의 서명은 이 동의서의 사본을 받았다는 것을 뜻하며 연구 참여가 끝날 때까지 사본을 보관하겠습니다.

연구대상자	성명:	서명:	서명일:
법정대리인 (필요시)	성명: 연구대상자와의 관계:	서명:	서명일:
입회인 (필요시)	성명:	서명:	서명일:
연구책임자	성명:	서명:	서명일: